

창립 37주년

岳

友

1995년

제11집



전남대학교 산악회

(Chunnam National University Alpine Club)

창립 37주년

岳 友

1995년 제11집



全南大學校 山岳會

등산은 어떤 가능성

등산은 모험

등산은 적극적인 자연체험

등산은 창조적 유희적 스포츠

등산은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

등산은 죽음과 맞서서 얻는 깨달음

등산은 ‘천국’에서 지상으로의 율아감

등산은 ‘차안’과 ‘피안’을 잇는 다리

등산은 한층 높은 의식세계의 탐구

등산은 하나의 가능성

지도교수 인사말

그간 수많은 山行들, 산에서 느끼고 山에서 감격스러웠던 일들을 山行日記로 적어 두고 비교할 수 없는 幸福들을 回想하면서, 이 해도 저물어 가는 즈음에 『岳友』 제11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 모두가 追求하고, 목적으로 설정한 “아카데믹한 알피니즘”의 참뜻을 항상 재조명하면서 선진적인 산악활동을 염원하여 왔고, 때로는 모든 일의 발전과정에서 격동기를 경험하듯이, 시대적인 중압과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에서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그 기초가 착실하게 다져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산악활동을 향한 부단한 노력과 생명을 발산하는 活力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간의 산행경험과 體驗을 통하여 도전과 인내 속에서 끝없는 노력의 昇華가 이루어질 때 대학산악회의 希望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全南大學校 山岳會도 三十而立을 넘어 不惑을 향해 매진할 年輪을 쌓은 만큼 모든 면에서 착실히 뿌리를 내려 긍지와 신념을 갖고 산으로의 淸純한 情을 북돋우면서 새로운 大學山岳會다운 전통을 확립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산악회 재학생들이 주관하여 발행하는 『岳友』지가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내용이 알차고 대학인의 知性을 대표하는 山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도교수 김 재 룰

회 장 발 간 사

우리 주위의 산들이 가을의 현란함을 알리는가 싶더니, 어느덧 겨울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캠퍼스의 나무들마저도 그들의 푸르름을 모두 벗고 봄을 향한 긴 그리움으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올 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겨울을 맞이하는 나무들에게 있어 겨울은 죽음의 시간들이 아닌 자신을 돌이켜 보고 반성하는 준비의 시간들일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나무들처럼 겸허한 마음으로 지난 일년의 시간들을 돌이켜 보고 반성해야 할 시간들이 찾아온 듯 합니다.

여기 그러한 반성의 마음으로 그 동안의 산행의 흔적들을 한 곳에 모아 보았습니다. 부끄럽고 부족한 것 같은 기록들이지만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더 없이 소중한 추억들로 남아 있는 것들입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뜨거운 햇볕 아래서 암벽등반을 하면서, 이름 모를 능선 위를 걸으면서, 설악산의 세찬 바람을 느껴내며 산에 대한 작은 꿈 하나를 가슴 속 깊이 심었습니다.

그 꿈을 버리지 않는 한 저희들은 항상 행복할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눈덮힌 산을 향해 배낭을 꾸릴 때입니다. 늘 하얀 산에 대한 갈증들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은 힘찬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을 위해 많은 도움 주신 지도교수님과 OB선배님, 재학생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재학생 회장 김 현 성

격려사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을 이고 의연하게 눈바람을 견디며 넉넉한 품세로
은 광주의 진산(眞山) 무등산 아래, 이 고장 등산운동의 불
씨를 지피며 끊임없는 열정 속에 이 지방의 등산인구의 저
변확대에 힘썼으며, 본격적인 등산활동을 주도해 왔던 우
리 전남대학교 산악회가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거봉들의 원정등반을 거듭하면서 활동했던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악우 11집을 펴낸다니 진심
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산은 인생의 도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일
부분으로 산을 오르는 사람이 대중화되어 있으며 산을 통하여 건강생활은 물론 인
간관계를 통한 삶을 누려 가고 있으며, 전문 산악인들은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인간
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기의 힘을 통한 호연지기를 길러 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활발한 등산활동으로 곳곳의 국내외의 등반은 물론 전남대학교 개교기
념 행사로 실시하고 있는 CROSS COUNTRY대회를 일반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실시함으로써, 학생은 물론 일반인에게까지 산악문화 발전에 더욱 기여했다고
자부하며, 계속 산악운동을 전문적으로, 또 대중적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는 산악회
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등산활동도 더욱 힘찬 젊은이들의 산악활동이
기를 빕니다.

전남대학교 O.B산악회장 김 장 영

차 례

◆ 지도교수 인사말	김 재 료
◆ 회장 발간사	김 현 성
◆ 격 려 사	김 장 영
◆ 산 약 회 가	

기 획

• 95년도 산행 및 행사보고	2
• 산행경력	/ 정순택 /..... 4
• 오늘 하루 산행도 성실히(초모량마 북동릉 등반기)	/ 유명희 /..... 6
• 알피니스트의 길	12

등 반 보 고 서

• 동계장기등반	/ 천옥량 /..... 18
• 춘계훈련등반 보고서	
A조	/ 천옥량 /..... 25
B조	/ 최진영 /..... 28
• 하계장기등반 보고서	
A조.....	/ 진용훈 /..... 31
B조.....	/ 천옥량 /..... 47
C조	/ 이수연 /..... 62
• 등산학교 정규반	/ 이수연 /..... 68
• 등산학교 암벽반	/ 김연정, 방경환 /..... 70
• 추계훈련등반	
A조.....	/ 이형관 /..... 75
B조.....	/ 방경환 /..... 78

문 예 · 수 필

- 동기등반(38기)/ 진용훈 /..... 82
- 동기등반(39기)/ 김연정 /..... 84
- 학산인의 한마당/ 노원기 /..... 86
- 전남·북대 합동등반/ 이형관 /..... 87
-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산행/ 임도균 /..... 89
- 무등산악챌린지대회/ 노원기 /..... 92
- 연맹합동등반/ 함경준 /..... 93
- 광주·전남 암벽대회/ 김성석 /..... 95
- 목포대학교 CROSS COUNTRY/ 정양숙 /..... 96
- 『신들의 트레버스』를 읽고(독후감)/ 박아미 /..... 98
- 지리산 100km종주기/ 노원기 /..... 99
- 두려움(나 개인의 이야기)/ 이현조 /... 102
- 하계시 104
- 훈련소에서 온 편지/ 문준연, 임도균 /..... 105
- 비망록 글모음 109

부 록

- OB회원 주소록 120
- 재학생 주소록 134
- 군입대자 주소록 135
- 회원동정 136



1. 95년도 산행 및 행사보고
2. 산행경력 (정순택)
3. 오늘하루 산행도 성실히 (유명희)
4. 알피니스트의 길

95년도 산행 및 행사보고

1. 3월 5일 - 새인봉 암벽등반 : 9명 참가
 2. 3월 11일 - 재학생 정기총회
 3. 3월 18일·19일 - 월출산 암벽등반(시루봉) : 14명 참가
 4. 3월 26일 - 신입생 환영등반
 - 장소 : 무등산 동화사 터 • 참가인원 : 재학생 18명, OB 3명(장희, 김용석, 박헌주)
 5. 4월 1일·2일 - 월출산 산악마라톤
 - 대회장소 : 월출산 천황사 매표소 ~ 도감사 → 왕인박사 유적지
 - 출전인원 : 재학생 12명 OB 2명(박명선, 유명희)
 6. 4월 16일 - 조계산 종주등반 : 14명 참가
 7. 4월 30일 - 새인봉 암벽등반 : 14명
 8. 5월 5일~7일(3박4일) - 춘계훈련등반
 - 대상 : 땅끝 ~ 강진 성전, 2개 조 • 등반방식 : 릿지 및 종주등반
 - 참가인원 : 19명
 9. 5월 20일 - 무등산종주등반 : 7명 참가
 10. 5월 27일·28일 - 학산인의 한마당
 - 장소 : 호남대 제2캠퍼스 • 참가인원 : 22명
 11. 6월 3·4일 - 전남·북대 합동등반
 - 장소 : 전북 대둔산 • 참가인원 : YB 11명, OB 2명(유명희, 김선주)
 12. 6월 6일 - 새인봉 암벽등반 : 6명 참가
 13. 6월 8일 - 새인봉 암벽등반 : 5명 참가
-

-
14. 6월 11일 - OB정기산행 참가
 - 장소 : 지리산
 - 재학생 참가인원 : 4명
 15. 7월7일~28일(21박 22일) - 하계장기등반
 - 등반 대상지 : 백두대간 2개 조(A조 : 진부령 → 두타산, B조 : 속리산 → 두타산)
낙동정맥 1개 조(C조 : 주왕산 → 두타산) 총 3개 조
 - 참가인원 : 16명, OB 2명 중간 합류(박헌주, 김지형)
 16. 8월 10일~15일(5박6일) - 광주등산학교 정규반
 - 장소 : 지리산 피아골 외국분교
 - 참가인원 : 3명
 17. 9월 2일·3일 - 연맹합동등반(광양 백운산)
 - 장소 : 광양 백운산
 - 참가인원 : 학산전체 44명, 재학생 7명 참가
 18. 9월 24일 - 광주·전남 암벽대회
 - 장소 : 무등산 새인봉
 - 참가인원 - 5명
 19. 9월 17일·18일 - 월출산 암벽등반
 - 대상 : 형제봉, 시루봉
 - 참가인원 : 10명
 20. 9월 30일~10월 3일 - 광주등산학교 암벽반
 - 장소 : 월출산
 - 참가인원 : 10명
 21. 10월 7일 - CROSS COUNTRY대회 : 총 70여 팀 참가
 22. 10월 11일 - 목포대 CROSS COUNTRY : 8명 참가 (1위, 2위, 5위 입상)
 23. 10월 22일~24일(2박 3일) - 지리산 종주
 - 산행 코스 - 남원 인월 ~ 대원사
 - 참가인원 - 5명
 24. 10월 28일 ~29일 - 무등산악챌린지대회
 - 참가인원 : 6명(남자부 2위, 3위, 5위 여자부 2위 입상), OB 1명 (박명선)
 25. 11월 3일~5일 - 추계훈련등반
 - 대상 :월출산 종주 및 암벽(시루봉, 매봉)
 - 참가인원 : 11명
 27. 11월 26일 - OB 정기 산행 참가
 - 장소 : 계룡산
 - 참가인원 : 9명
-

산행경력

鄭 舜 澤

(62학번, 현 광주·전남산악연맹 회장)

지 난 11월 26일 전남대학교 OB와 재학생의 계룡산 합동등반은 성황이었다. 버스에 빈자리가 없어 읍서버로 참석했던 지인(知人)들이 미안해하고 불안해하였을 정도였다.

관음봉을 넘어 갑사(甲寺)주차장에서 아리랑 약주를 앞에 두고 뒷풀이를 하면서 각자 소개를 하게 되었다. 재학생들이 38기, 39기 아무개라고 하니까 OB들도 자기 기수를 계산하느라 수군거리고, 그것이 여의치 않고 계수도 곤란하여 근래학생들이 사용하는 학번으로 얼버무려 버리고들 하였다.

나 역시 이리저리 산출하여 6기 누구라고 말하고 앉으니 그것이 아니라고들 한다. 전대산악회가 창립한 시기가 1957년인가 1958년인가의 작은 의논이었다. 물론 전남대학교 산악반에서 산악부로, 다시 1961년 산악회로 확대개칭되었지만, 그 연원이 같은 것에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으면서도 누구도 확실한 결론을 못 짓는다.

본인이 1963년 『岳友』지 창간호를 편집하면서 그때까지의 기록들과 선배들의 증언을 통하여 1958년 6월 4일 김용석, 신귀현, 김종규 등 문리대 선배들이 전남대학교 산악반을 결성하고 무등산의 정례등반회를 시작한 것을 창립한 것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그 후 일년이 앞설 것이라는 막연한 의견도 있고, 초기 선배들의 기수는 요량할 수 없으니 기수를 챙겨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재학생들의 학번과 기수를 역산하니 나의 기수가 6기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창립년이 1957년이 되어 당혹케 되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창립일을 확인하자는 것이 아니라, 산악 또는 등산활동의 경력에 관한 얘기이다. 굳이 그런 경력이 필요하고 경력서를 쓸 일이 있을까도 싶지 않지만, 1981년에 대한산악연맹(大韓山岳聯盟) 이사(理事)로 선임되면서 제출하라 하여 산악활동 이력서와 산행 경력서를 쓴 적이 있다. 막연하여 1964년 전대산악회장과 전남학생산악연맹(全南學生山岳聯盟) 대표상임위원, 일고산우회(一高山友會) 부회장으로 시작되는 이력서를 만들고, 모두가 히말라야나 알프스의 원정기록들을 기재하는 터에 한라산 등반, 지리산 적설기등반 등의 치졸하기 짝이 없는 경력서를 작성하였다.

다른 경우들은 대한산악연맹 부산직할시연맹과 대구·경북연맹에서 금정대상과 팔공산악인상의 수여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적조서가 필요하니 그에 필요한 경력을 적어주라 하여 계면쩍고 난감해하면서도 대한산악연맹의 활동이력이 요구될 것 같아 「근무하던 삼원물산의 직원 130여 명으로 1973년 직장산악회인 「三岳會」를 조직하여 그 회장이 되고, 그 덕에 1976년 전남산악연맹 이사에 선임되어 본격적인 산악운동을 시작하였으며, 79년 전남학생산악연맹 부회장에 피선되고 등산학교 개교에 일익을 담당하였다.」라고 시작되는 메모를 넘겨주면서 잘 써 주라고 하였다.

그러나 완성된 공적조서들은 미사려구로 대한산악연맹을 혼자서 운영해 온 것처럼 되어 있고, 세계적인 산악인처럼 윤색되어 있어 부끄럽게 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영향도 있었겠지만 기억을 더듬어 산력을 정리할 때마다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산악이력서를 하나 준비해 두어야겠다는 마음을 두었다. 이젠 이력서를 쓸 일이 없어졌지만 대학의 보직을 맡게 되면서 여기저기서 날아드는 인명록과 각종 연감(年鑑)의 자료요구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경력란의 서식을 보면서 그때마다 산악활동의 경력을 되새기고 그것이 그 서식에 필요할 사항인지를 생각하곤 한다. 어찌 보면 생업을 위한 직장인 이력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산과, 산을 위해서 소모하였고, 인생의 삼분의 이는 산과 관련된 일들이 나의 인생역정이라 할 수도 있으며, 산으로 하여 생업이 더디고 직간접적으로 손상을 받게 되었음에도 그냥 묻혀 버리기엔 억울하기도 하다.

1981년부터 장장 십오년 동안 대한산악연맹의 이사, 운영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장, 감사, 상임이사의 일들을 맡아 각종의 회의와 행사참석으로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제주와 이 산 저 산을 찾아 나서 버스와 비행기 안에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 혹시라도 불의의 교통사고나 실종신고를 염려하여 떠날 때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를 간다고 행선지를 말하여 주는 것이 습관이 되기도 하였다. 광주·전남산악연맹과 광주등산학교를 5년간이나 맡았고, 사람이 냉정하게 끊고 맺는 것이 없어 93년부터는 광주·전남산악연맹의 회장을 하고 있다.

그 사이 소속산악회의 산행에 같이 가고 산악관계의 국제회의와 해외등반까지를 포함하면 산일이 주업이고 생업이 부업이랄 수도 있겠다. 경력란에 산악이력을 덧붙이는 것이 자기현시적인 것으로 보이고, 자질구레하게 자랑삼아 하는 것처럼 보여 득이 될 것도 같지 않으며, 기재하지 않는다 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할 일도 아니지만 산행경력을 빼어 버린 이력서가 허전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다.

전대산악회에 62학번으로 등록한 지가 35년이 된다. 군인 같으면 퇴역할 연륜이 되었고, 기업체에서는 진즉 옷을 벗었겠다. 숨도 가쁘고 배낭이 무거워 높은 산은 못 가겠고, 그 지겹고 벅찬 산악관계 일도 이제는 정리하고 야산이나 넘나들면서 산행경력이력서나 다듬어야겠다.

오늘 하루 산행도 성실히

(초모랑마 北東稜 遠征記)

33기 유명희(OB)

지리산 자락에 살면서 국민학교 6학년 때 난생 처음 노고단을 보았다. 가을 소풍 때 새벽 같이 밥을 먹고 출발했는데 노고단에 도착할 때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서였다. 그 때에 기억나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아주 멀었다는 것, 먹을 수 없는 산열매가 많았다는 것, 기분이 아주 좋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지리산 노고단을 올랐다. 노고단 고개에 서서 계속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발도 못 내딛고 5년을 보냈다.

고 2때 이에 용기를 내보자고 다짐을 하고 지리산을 향했다. 반야봉이란 곳을 가 보기 위해서였다. 지금은 아주 옛길이 되어 짐승만이 오고갈 천은사 뒷길이었다. 노고단까지는 아주 익숙한 길이었는데 노고단을 지나고 임결령을 지나 반야봉으로 향할 때는 왜 그리 숲 속이 깊게만 느껴지던지, 조금은 위험할 것 같은 바윗길도 있었다. 반야봉에 오르니 세상이 보인 듯 했다. 시원했고, 초행길이고, 단일 산행이라 하산을 서둘렀다. 뱀사골 계곡을 따라서 내려오는데 내가 뭐나 되는 양 의기양양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야봉까지 다녔다. 더 이상은 아직 나를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다.

그러길 또 5년. 난 지리산 천왕봉을 오르기 위해 십 년을 오르내렸나 보다. 그 때 지리산을 다니던 그 마음 그 정성으로 히말라야라는 곳도 대하고 싶은 마음이다.

지난해 이때 쯤 박영석 선배님으로부터 원정대에 참가하라는 제의를 받고 얼마나 기쁘던지 앞에 있는 소주잔을 비우고 대뜸 큰절을 한 것 같다. 박영석 선배님은 뒤이어 우리 원정대가 꾸려진 동기와 대원 선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 ‘에베레스트 북동릉은 82년부터 세계에서 알아주는 등반가들이 몇 차례 시도했지만 아직 미등으로 남아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번 해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대원도 한 단위 산악회가 아니고, 한 지역도 아닌 여러 지역이며, 대원들의 인간성을 보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다. 훈련은 철저히 개인 훈련이고,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합숙은 떠나기 보름 전. 이것이 우리 준비과정의 전부였다.

타딴하고는 현저히 다른 원정대가 탄생했다. 에베레스트 이전에 고소적응을 위해 시샤팡마등반을 하기로 결정하고 7월 22일 선발대 6명이 출국했다. 선발대원은 박영석 원정대장(동국대 83), 홍성택(한국체육과학대 85), 한왕룡(전주우석대 85), 진재창(이리원광대 85), 라관주(서강전문대86), 유명희(전남대 89) 6명이었다.

네팔에 도착해 일주일 정도 현지식량·장비구입하고, 티벳 비자 받고, 서울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풀고, 과일도 실컷 먹고, 재미나는 세상이었다. 그런데 너무 재미나는 세상에 살면 그런가 보다. 입술에 뭐가 돌아나더니 나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망고알레르기라고 네팔 거주 한국인이 알려준다. 정도가 너무 심해서 약을 써도 낫질 않는다. 카투만두를 출발하는데 얼굴까지 번져 보기도도 흉하게 되버렸다. 원정대장님은 상태를 봐서 나빠지면 다시 카투만두로 보낸다는데 앞이 캄캄했다.

다행히 네팔과 중국 국경인 코다리에 병원이 있다 해서 갔더니, 조그마한 방 한 칸에 약간의 약들이 있었다. 그곳에서 주사를 맞고 돌아와 일체 먹지를 앓았다. 하루가 지나니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니알람을 거쳐 시사팜마 B.C에 도착, B.C에서 2일정도 적응한 다음 ABC로 가기로 했다.

하루 자고 일어나니 박영석 선배님은 두통을 호소하고 자꾸 기침을 하신다. 그리고 나머지 형들도 머리가 아프다 하는데 난 아무 이상이 없다. 오후에 우리와 같이 온 우리 정부 연락관 덩이 만두를 만들었다고 우릴 초청했다. 중국 사람들에게는 주는 음식을 남기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다 먹으라고 하셨다. 다른 형들은 머리가 아프다며 별로 먹지도 앓으니 나머지가 모두 내 차지였다. 먹고, 먹고, 또 먹었더니 이제 배가 아파 오기 시작하는데 견잡을 수가 없다. 뛰어도 보고, 물구나무도 서보고, 할 수 있는 짓은 다했는데 모두 허사였다. 최후의 수단으로 굶기 시작했다. 물만 먹고 하루를 꼬박 굶으니 조금 나아지는 듯 했다.

다음날 출발. 영석 선배님은 상태가 너무 심해 재창형과 같이 남기로 하고 네 명에서 ABC로 출발했다. 오후에 접어들니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불고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그 와중에도 형들은 잘만 가는데 난 왜이리 힘이 드는지 ‘내가 왜 이럴까’ 하고 비판하다가 원인파악 결과, 어제 하루 아무 것도 먹지 앓은 것이 문제였다. 열 걸음 가다가 쉬고 다섯 걸음 가다 쉬고, 앓아서 한숨도 쉬었다가 먹구름 핀 하늘도 보았다가 집 생각도 하다가 이래저래 머리는 뒤죽박죽이고 ‘왜 왔나’ 싶고, 그야말로 인생말로인 듯 싶었다.

형들은 6시간에 오른 길을 난 8시간이나 걸렸으니…. 그래도 텐트치고 침낭 속에 들어가니 오늘도 성실했나 하는 반성도 하고 기분은 그런데로 좋았다. 다음날 장비, 식량을 정리하고 한가로이 보냈다. 두 형들은 머리가 아프다며 밥도 잘 안먹고 하는데, 나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기분 또한 그 만이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멀리서나마 루트파인딩도 해보고, 3일째 되는 날에 왕룡형과 나 그리고 셀파가 CAMP1에 가기로 했다. 잘 자고, 밥 잘 먹고, 장비도 다 챙기고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 오는데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그냥 땅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형들은 B.C에 무정하길 명희가 배가 아파 하산해야 되니 지프를 올릴 수 있는 곳까지 올리고 헬기를 띄우라고 난리다. 죽어 가는 소리로 괜찮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한참을 뒹굴다 보니 좀 나아진 것 같다. 왕룡형과 셀파가 떠나고 나는 텐트에 들어가 꿈쩍못하고 하루를 보냈다. 초반부터 내 상태는 말이 아니었다. 밤이 되니 언제 아팠냐는 듯이 말끔히 나왔다. 성택형은 분명히 재발하니 B.C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나는 올라올 일을 생각하니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다음날 camp로 가는데 아무렇지도 앓아서 기분이 좋았다.

며칠 후 박영석 선배님과 재창형이 올라 오셨다. 영석 선배님은 병원까지 다녀오셨단다. 원정대장님도 오셨으니 시사팜마 등반이 본격적인 시작이다.

첫날은 camp에 갔다가 내려오고 이를 쉬었다가 알파인 스타일로 올라가기로 했다. camp1 설치 다음날 camp2로 가는데 밑에 까마득한 히든크래비스에 성택형이 빠져서 가까스로 살아 나왔다. 오후가 되면서 날씨가 흐려지고 화이트아웃이 되어 한치 앞이 안보였다. 기존의 camp2자리를 못 가고 텐트를 쳤는데 눈사태의 위험도 있고, 바람도 불고 이래저래 힘겨운 밤이었다. 다음날 일단 이

곳은 피하자 하면서 오르기 시작했다. 2시간 정도 올라서 camp2자리에 도착해서 휴식. 다음날 camp3로 가기로 했다. 밤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말없이 괴로운 사람이 있었나 보다. 난 새벽같이 일어나 물을 만들고 밥을 하는데 날씨가 안 좋다. 밥을 먹고 날씨를 봐서 운행하기로 결정, 한 두 시간이 지난후 대장님이 말씀하신다.

“시사광마는 훈련등반이고, 고소적응도 이만큼 하면 충분히 했으니 이만 하산하자.”

많이 아쉬웠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물러설 수밖에. 그렇게 힘겹게 올라온 길을 미끄럼을 타며 2시간만에 camp1에 도착해 버렸다. 올라갈 때는 빙하가 얼어서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내려오는 길에는 많이 녹아서 골이 아주 넓어져 있었다. 대장님이 훌쩍 뛰면서 나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고민하는데 나도 따라서 훌쩍 뛰었더니 흐뭇해하신다. ABC, BC, 니알람, 카투만두로 하산 후 발대와 합류, 고려대 팀과 포항제철 팀도 있었다. 일주일정도 장비, 식량을 다시 구입하고, 휴식.

8월 29일 다시 출발. 장마로 인해 길이 유실되고, 아예 산사태로 길이 없어져 버린 곳이 있어 시간이 지연되기도 했다.

9월1일 초모랑마(티벳어, 네팔어로는 사가르마타)BC에 도착, 라마제를 거창하게 지내고, 9월 5일 ABC 고소적응된 우리 팀만 먼저 올라왔다. ABC(6,400)도 만들고 이틀 정도 쉬었다 정찰검 6명의 대원 모두 가보기로 했다. 가는 도중 원정대장님이 빙하에 빠져서 되돌아가시고 5명의 대원과 셀파 한 명이 넓은 플라토를 지나 벽에 붙어 픽스로프 한 물줄을 깔고 짐을 데포시키고 돌아왔다.

9월 9일 추석. 아침부터 분주히 차례상을 차리고 정성스레 차례를 지내고 사람들이 말하는 피너클은 검은 괴물같이 솟아 있었다.

9월 10일, 11일은 다시 라마제를 지내기로 한날.(보통 셀파들은 라마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 등반 시작) 영석 선배님은 셀파 네 명과 정찰검 Camp3까지 갈 수 있으면 가 본다며 출발. 나머지 대원들은 각 분야 집정리를 한다. 잠시 후에 무전이 오기를 “카메라와 비디오를 가지고 한 명이 더 와 주고, 한 명은 망원경으로 지켜보면서 기록하라”는 내용이다. 모두들 자기 분야에 열심이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재창형이 “쓸렸다”라는 외마디에 모두들 망원경 주위로 몰려서 보니 뿌연다. 소리도 없었다. 모두 구조준비를 하고 출발. 나는 다음 지시를 위해 대비. 계속 필요한 물자를 위해 무전이 오고, 나도 마지막으로 우모복을 챙겨서 출발. 도중에 산소가 필요하다는 무전. 영석 선배님과 관주형, 셀파 세 명은 부축을 받으며 오는데 사고가 난 지역은 아직도 몇 명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우모복을 가지고 그곳까지 가보니 성택 형은 셀파에게 인공호흡 중이고, 왕용형과 몇몇 셀파들이 계속 마사지 중. 나는 그저 지켜볼 뿐이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다. 세심한 부분, 잇기 쉬운 부분, 무전기, 건전지, 만일을 대비한 예비용 장갑, 모자, 고글 등 어느 곳이든 찾으면 내 할 일은 있었다. 얼마나 인공호흡을 했을까? 산소는 무용지물, 셀파들은 물러서는데 형들은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계속 시도해 본다. 무심한 셀파는 아무런 반응도 없다. ABC와 교신, 운반하기로 결정, 운반 도중 누군가 우모복으로 얼굴을 가린다. 그렇게 영원히 잠든 것이다. 스물 여덟 꽃다운 나이에 열여덟 아리따운 마누라를 남겨 두고. 전대원, 전셀파는 BC로 하산. 하산하는 날 대장님도 합류하셨다. 박영석 원정대장님이 한시름 놓으셨을 것이다. 대장님이 오셨으니 대원들도 마찬가지다. 나도

다시 등반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 롱복사에서 화장을 하고 대장님과 대원은 A,B,C로 영석 선배님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의사선생님과 시가제 병원으로 가셨다.

ABC에 올라와 다시 라마제를 지내고 등반을 시작하려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 하루 온종일 그칠 줄 모른다. 눈이 그친 다음날은 온통 구름에 가려(화이트 아웃) 앞이 보이지 않는다. 눈사태 소리만 이곳저곳에서 우르릉쾅, 우르릉쾅……. 이틀이나 계속된다. 다시 북동릉 등반 시작

죽은 셀파(에베레스트등정, 네팔의 2인자)의 후유증이 심해 다른 셀파들이 등반하려 하질 않는다. 한번의 눈사태로 멀쩡한 사람이 소리없이 죽고, 세 명의 셀파는 고통을 호소해 오고, 원정대장님은 병원에 가시고 관주형은 발의 고통과 설매,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장님은 날마다 셀파를 설득하시고, 또 고소적응이 안된 상태여서 식사도 못하시고, 그런 와중에도 산쟁이 형들은 등반을 시작. 이제 순전히 눈사태 위험이 없는 바위벽으로 길을 내기로 하고 시작. 난 말없이 뒤따르며 짐을 운반, 셀파들도 기껏 짐만 운반할 뿐, 등반시작 4일째 되는 날에야 비로소 Camp3를 설치할 수 있었다. C3(7,100m) 북동릉 능선 바로 아래 늪을 파내고 설치. 북동릉 능선에 올라서니 황홀 그 자체였다. 멀리 칸첸중가가, 바로 앞에 마칼루, 그리고 빙하, 티벳고원. 내가 이것을 즐기려고 이 고생을 하는가 싶었다.

에베레스트, 어차피 이번 산행에서는 오르겠다는 생각보다는 형들을 힘껏 돕고, 많이 배울 목적이었으니 이 능선에 올라선 것으로 난 정상에 오른 것만큼 좋았다.

얼마 후 영석선배님도 올라오시고 오랜만에 전대원이 모여서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됐다. 올라오 시면서 고기도 사 오시고, 사다도 사 오시고 배추도 사 오시고, 역시 영석 선배님이셨다. 원정대장님이 오셨으니 대장님은 BC로 하산 휴식하러 내려가셨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카투만두로 가셨다. 돌아와 들은 애긴데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13일을 병원에 누워 계셨단다. 다시 영석 선배님의 지시를 받으며 Camp4 설치에 온힘을 다하는데 진도는 안 나가고 날씨는 안 좋고 눈 상태는 또 무릎까지 쑥쑥 들어가니 고생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

영석 선배님께서 북동릉을 철수하고 북릉으로 시도하자고 하시고 전 대원 묵묵히 따른다. 그때가 10월 3일.

이틀 쉬었다가, 10월 6일 북릉으로 출발. 7명의 대원과 의사선생님, 셀파 한 명은 별 어려움 없이 North Col(C3, 7,000m)에 도착. 전날 셀파들이 C3를 설치해 주고 짐을 운반해 주어서 쉽게 올라왔다.

10월 7일, 의사선생님은 C3에 계시고 타 팀과 우리 팀이 출발. 무슨 바람이 그리도 부는지, 북릉을 목표로 했던 세 팀이 이 바람을 통과하지 못해 한 달 동안이나 C4를 설치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 픽스로프도 당연히 없다. 무거운 짐과 모진 바람을 대하면서 오늘도 성실히 한 걸음 한 걸음을 속으로 되뇌다. 해는 서산으로 지고, 바람은 거세지는데 가도가도 Camp4는 보이지 않는다. 모자하나 더 쓰려고 시도하다가 장갑과 모자를 날려 버리고 기분마저 말이 아니다.

C4에 도착. 오늘도 감사하며 성실히 했었던가 자문해 보며, 산소를 마시면서 잠을 청한다. 무심한 바람, 모진 바람은 멈출 줄을 모르더니 새벽녘에 너무도 고요해졌다. 원정대장님의 기쁨의 외침.

“바람이 멈췄다.”

바람이 멈춘 것이다. 새벽같이 일어나 물을 만들고 알파미로 밥을 준비한다. 아직까지는 먹을 만하다.

10월 8일

산소2통, 침낭하나, 먹을 것을 조금 챙겨서 또다시 걷기 시작한다. 한발한발 소중히 내딛으며 아래를 보니 까마득하다. 한 발 실수에 영원히 가는 것이다. 픽스로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다른 팀이 산소를 마시며 올라가는 것이 부럽기까지 하다. 다같이 힘들어 하는데 여자인 내가 안쓰러웠는지 인도팀 셀파가 자기가 마시던 산소를 마시라고 주는데 사양했다. 산소 마시며 가뿐히 가는 게 부러웠지만 마시고 싶지는 않았다.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다.

10월9일 꼭대기 가는 날

밤12시에 일어나 출발준비를 한다. 지금까지 소중한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오늘도 그러리라. 다짐하며 3시 30분에 출발.

달빛도 좋아라. 랜턴이 필요치 않다. 순간순간 위험을 느낀다. 오르는 길은 올라간다면 어떻게 내려올 것인가? 너무 무모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말없이 뒤통을 뺀다. 지난날 백두대간때 은티재에서 희양산을 오르면서부터 느꼈던 고마움. ‘이 길이 내리막이 아니라 오르막이라서 감사합니다.’, ‘비오는 날이 아닌 맑은 날에 오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은티재에서 희양산 오르는 길은 아주 가파르고 흙이 다 씻겨 내려가 나무뿌리가 다 드러나 있으며 그 뿌리마저 흔들거려 잡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난 다시 내려와야 하나 …….

그런 고마움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조심해서 걷는 것이 최선의 길이었다. 달과 해가 바뀔 때쯤 해서 북동릉과 북릉이 만나는 지점에 도달했다. 한쪽은 커니스, 한쪽은 천길 낭떠러지. 그렇게 걷다 보니 First Step에 도달했고, 그곳은 rope를 설치해 주마를 이용할 수 있었다. 주마를 하기에는 너무 힘이 겨운 것 같아서 올라가서 산소를 보니 동이 나 있었다. 산소를 교체하다가 또다시 장갑 한 짝이 날아가 버렸다. 애통할 일이다. 장갑이 매어 놓은 줄을 확인하고 확인했건만 그 끈이 풀려서 날아가 버린 것이다. 눈물이 핑 돈다. 어찌란 말인가? 아직 나는 갈 곳이 아니란 말인가? 그러나 어찌리, 다른 한쪽 장갑을 벗어 나눠 줬다. 그런 대로 괜찮았다. Second Step에서 사람들이 가질 않고 기다리고 있다. 먼저간 형의 말이 rope가 필요한데 아무도 rope가 없단다. 그곳(8,700m)에서 한시간 가량 있으면서 주위를 둘러 볼 수 있었다. 저게 히말라야의 파노라마인가 그저 황홀할 뿐이다.(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 직접 가서 볼 수밖에)

원정대장님의 심오한 결정. 하산.

벌써 타 팀은 내려가고 있었다. 아무 생각이 없다.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도, 이제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도. 형들이 내려간다. 나도 내려간다. C5, C4, C3, ABC까지. 그날 밤 왜 그리도 잠자리가 편하든지.

이틀 정도 쉬었다가 성택형과 왕용형이 나섰다. 바람이 몹시 분다. C4에 도착한 형들에게 무전으로 있는데 텐트는 찢겨져 버리고, 찢겨진 틈으로 눈이 들어와 눈이 가득 쌓인다. 가까스로 눈을 치우

고 들어갔는데 텐트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날아가겠다고 한다. 텐트에서 탈출을 해야 한단다. 그 와중에서도 누군가 “C5를 탈출해라”라는 말에 한바탕 웃었다.

10월 14일

우리 팀 2명과 셀파1명, 고려대팀 대원1명과 셀파1명이 4시경에 출발해서 2시경에 정상에 섰다. 왕용형과 성택형은 벌써 Second Step까지 내려와 버렸는데 고려대팀 셀파가 정상 부근에서 실족사 하고 대원은 Second Step위에서 내려올 줄 모르고 앉아 있다. 망원경으로 바라본 ABC는 초긴장 상태다. Second Step 아래에서 왕용형은 기다리고 우리 셀파가 올라가 보니 산소가동이 나서 그렇게 앉아 있더라. 왕용형은 5시간이나 8,700m에서 기다리다가 고대팀 대원을 데리고 C5에 도착한 시간은 밤 12시가 다 되어서였다. 이런 사람을 진정 산꾼이라 하는가? 산쟁이라 하는가?

하산.

방콕, 파타야, 한국.

알피니스트의 길

저자는 산악인의 자람의 시기를 난생, 1년째-6년째, 이렇게 크게 7개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와 같은 <자람>을 그는 체험해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겪고 또 그것이 어떤 “길”이라고 덧붙였다.

1. 난생, 태생

당신은 알고 있느냐? 산악인의 알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껍질을 벗는가? 어떤 것은 카라코람의 도루고 석과 같이 또 어떤 것은 히말라야의 운스톨과 같이 제각기 투명하게 특징 있게 빛나고 있다. 어떤 열대어처럼 어미가 될 때까지 어미의 보호를 받는 것도 있고, 태아에서 젖을 먹고 자라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이 현대는 보호를 지나치게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알처럼 자기 힘으로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건실한 산악인이 된다는 건 어렵다.

현대는 수많은 알들이 수없이 이곳 저곳에서 자라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기대할 만한 비상한 산악인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산악인의 길은 굉장한 곤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이 자라는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산악인의 알은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비상하게 변화되지는 않는다.

<처음의 등산>

이것이 산악인의 일을 변화시키는데 제일의 요소가 되는 것은 물론 산악인의 장래를 결정짓는다. “당신은 어떠한 자세로 산을 대할 것인가?” 가 산악인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건 틀림없다. 좋은 산을 처음 대하는 것. 좋은 사람을 처음 대하는 것. 이 두가지가 산악인의 알을 비약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좋은 산의 인상은 좋은 지도자와 같이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럭저럭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자기 힘으로 알을 깨치고 나오면 여러 가지를 맞이한다. 먼저 당신이 자랄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한다. 그것은 학교 산악부, 일반 산악회, 또 하나는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위치가 있다. 그중 어떤 것도 자기의 노력없이 간단하게 알피니스트로 만들어 주지 않는다. 당신은 여기서 산악부의 강한 훈련에서 죽어 간 사람의 얘기며 암벽에서 떨어져 죽었다던 어떤 클라이머의 얘기, 설원에서 많은 알피니스트가 흘러간 얘기 등 모두가 인가의 한계를 넘어선 도전의 얘기고 고난의 얘기다. 그러나, 그래도 너는 산을 좋아한다면 한 번 도전해 보라.

<1년째>

학교 산악부나, 일반 산악회에서의 최초의 1년간은 고생 속에서 시작해서 고생 속에서 끝을 맺는다. 특히 학교 산악부는 첨단 산악회라 해서 규율과 규제는 아주 강렬하다. 이 최초의 1년을 참아

넘길 수 있다면 아마 알피니스트로서의 길의 제1관문을 통과한 셈이 된다. 산을 갈 때는 산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선행자의 등산화만 보고 가는 기분이다. 무거운 짐이며 과중한 임무, 엄중한 규제와 규율 속에서 때로는 배가 고파 식량 텐트에서 훑쳐내는 일이 있고, 때론 참지 못해 밤에 탈주도 하고 별과 달이 흔들려 보이는 밤이 계속 된다. 일반 산악회에서도 1년에 40일 내지 90일 동안 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정회원이 된다는 것은 어렵다. 이 같은 것이 학교 산악부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산행을 계속하다 보면 공부 할 기회를 잊어버리는 수도 허다하다.

이와 같이 가혹한 1년이 끝나면 이제야 알피니스트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하고 체력, 정신력, 기술적 한계를 처음 느끼게 된다. 이러한 어려운 고비를 멋있게 넘겨야만이 2년째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2년째>

이 해는 당신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날뛰며 자찬하고 ‘파라’색 같은 해를 계속하고 ‘사태슈트’처럼 드라쿨라같이 신인을 아주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할 뿐 아니라 1년 전의 자신을 망각해 버린 채 자신 있다고만 생각한 애송이 너는 학교, 일반산악회에서 아주 자신 있는 알피니스트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피켈을 손에 쥐고 눈 위에서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신인을 거만하게 멋대로 흥분시키고 무시하는 아주 좋지 못한 버릇을 가지고 지저귀고 다닌다. 그러나 진정한 산악인의 알에서 태어난 기대 할 만한 산악인 2년째가 끝나는 겨울산은 조용하게 지내려 한다.

“겨울 산의 감동은 건실하게”

여름산밖에 몰랐던 그들은 딴 곳을 바라보고 있던 미인이 자기를 응시하는 것처럼 아주 놀란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으로 충분한가 하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2년째가 끝날 때면 한가지 위험에 부딪힌다. 이것은 작은 일이지만 아주 위험하다.

산악부나 산악회 스케줄 이외에 단독 또는 2-3인씩 짜서 무모한 등산이나 등반을 시도해 조난 당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오직 도약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한 강한 훈련과 Walking을 통한 산악인의 자질을 갖추는데 노력함으로써 이런 고통스런 통증을 벗어나야 3년째로 들어 설 자격을 갖는다.

<3년째>

누구나 성장하고 싶어하는 시대로서 지난 2년 동안 자신이 <파라>색에 물들었다고 수치심이 들어 자기를 의식한다. 여기서 또 한번 3가지의 Alpinist로서의 길을 생각해 보자.

하나는 학교 산악부의 진로다. 학교 산악부는 기술적 등반에 들어가기 쉽고 형식주의라고도 부른다. 대학 4년간이라지만 실질적으로 3개년이라 하며 Alpinist로서 육성기간이 좀 짧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이 속에서는 경험을 풍부히 쌓을 수도 없고 해서 결국 성숙치 못한다. 대학 산악부는 적어도 5년생이 되어야 관록이 있다고 하는데 3년째 끝장에는 바쁜 일정으로 현대의 학교산악부 3년생은 아주 약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구에 의존하는 기술중심의 산행으로 시작한다. 이때 비로소 2

년간의 경험과 체력을 바탕으로 등반을 시도하고 계획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는 건실한 일반 산악회는 시간적 규제가 적기 때문에 성숙의 가능성이 많다.

이마니시긴가씨는 등산에 대해서 두 가지의 실례를 들었다. 하나는 원심적이어서 자기 개방적 낭만적인 등산과 구심적이면서 자기 집중적 기술적 등산을 들었다. 대학산악부는 후자에 속하는 게 많으며 사회인 산악회는 전자에 속하는 게 많다고 본다. 이러한 것은 대학산악부의 합숙이라는 곳에서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인 산악회에서는 좀더 넓은 산악을 대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좀더 자유스런 것은 무소속 단독 행이라는데 이것은 아주 특수한 것이다. 만일 겨울 산에서 자연과 투쟁할 때 자연을 정복할 수 있고 그래서 자연 속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다면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 단독 행처럼 최대의 투쟁적인 것은 없다.

『단독 행의 신(가도오 저)』이라는 책에선 “단독행처럼 건실한 등산이 없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정도다.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Alpinist의 길에 3년째 들어선 당신은 대학 산악부에서 Subleader 즉 leader 견습을 하는 중추가 된다. 여름산 합숙 같은 곳에선 leader로서 활약할 수도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산악회에의 입회는 잡지의 광고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연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악회란 입회하지 않고는 산악회의 내용을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이킹정도의 회나 바레이션 전문 정도의 구별은 알 수 있지만 산악회 지도정신-산에 대해서 생각한 방법은 모를 것이다. 그러나 회원 수, 창립 년도, 초 등산기록 해외에서의 기록, 회보를 통해서 대체로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용구와 마찬가지로 산악회를 선택하는 데는 일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일류급일수록 당신은 하급에서 벗어나기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다. 4년생의 당신으로서는 고참, 중견, 약수, 신인, 이렇게 얘기한다면 약수로서의 고수 정도가 될 것이다. 적은 규모의 산악회라면 중견의 고수정도는 틀림없다. 흔히 있는 일이나 하위시대가 오래가면 독립하고 싶어 회에서 빠져 나와 다른 산악회를 만들게 된다. 이것은 성격상 큰 등산대의 대장이 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것이다.

4년째는 싫증이 난 해라고도 한다. 분리 독립하고 싶든지 고독을 찾아 단독산행을 하고 싶은 변화 있는 해이기도 하다.

<5년째>

대학산악부를 졸업하면 공백의 시대가 된다. 새로운 직장, 대학원, OB회 등 1년간 40일간의 등산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시내의 산악회에 입회한다던가 직장 산악회에 입회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산악회를 만들까 하는 해이기도 하다. 대학OB회의 약수는 현역과 같이 합숙에 들어갈 정도가 대부분이다.

당신이 Alpinist로서 나가려면 그 공백의 시대를 거쳐선 안된다. 대학산악부에서 얻지 못할 것도 여기서 얻을 수 있다. 『기술주체의 형식주의에서 어떻게 빠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

검약 정도나 알았던 당신이 다른 많은 산을 접촉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접촉(경험)을 필요로 하는 <오르란트>같은 등산은 Alpinist로서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Alpinist로서 예리하게 볼 수

있지만 전유적인(계속적으로) 등산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일 놀랄 만한 일은 이 시점에서 굳어 버리는 수가 있다. 무엇인가 완성했다고 해서 등산은 하지 않고 이론만 가지고 끝장을 내는 Alpinist는 곤란하다. 반드시 1년에 40일 이상은 등산을 하지 않는다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굳어 버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조금 대학시절에 경험이 있다고 해서 후배를 지도하려 해선 오산이며 진보가 없는 어긋난 일이다. 이런 Type의 OB가 많은데 <바쁘다>는 것은 Alpinist로서 등산을 못한다는 이유는 될 수 없다. 취직이라는 하나의 관문을 이미 Alpinist로서의 감격을 잊어 버렸는가?

학생시대 OB들이 많이 얘기했던 <파이 원>의 맛(이상에 맞는 구체적인 등반)은 졸업해서 해라. 학생시대 마스터한 기본 지식은 어떠한 등산에도 십분 통용할 수 있다.

마나슬루 초등정을 했던 <나까무라>씨는 대학산악부를 졸업하고 나서 월급생활에 들어가 등산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자신이 알고 또 다시 등산을 하게 되어 히말라야에 가게 됐다고 말한다.

당신은 머지않아 자신의 Alpinism을 추구할 때가 있을 것이다. 회의 때도 정신을 그대로 들어서 좋은 때는 수년 먼저 완성을 보게 될 것이고 수년 먼저 자신의 Alpinism이 회의 운영회권의 지도에 대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급히 Alpinism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이해가 쉽지 않으면 산에 대한 책을 읽으라. 좀더 많은 공부와 연구가 필요한 것이 이 시기가 될 것이다.

<6년째>

언제 Alpinist의 길이 끝장이 날지는 모른다. 수업이나 학문에 끝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Alpinist의 종말은 곧 죽음이다. 대학을 나와 2년째 되면 자기의 직장 일엔 익숙해질 때다. 이때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또 겨울이 되면 산은 당신을 가장 유혹하게 됨은 틀림없다. 사회 직장산악회에서 제일 두통거리는 전원 휴가를 얻을 수 없을 뿐더러 장기적인 계획의 등산은 더욱 어렵다. 이런 것을 조금씩 밀고 나가면 어디선가 조금의 무리가 생기게 된다. 이런 무리가 쌓이고 쌓이면 조난 사고의 원인이 되는 수도 있다.

“돌 위에서 3년”이란 말과 같이 한가지를 6년간 하고 보면 그럭저럭 베테랑이라는 위치에 서게 된다. 자기가 듣기엔 어쭙지 않지만 그냥 들어줘도 좋다. 그러나 산에 들어가지 않고선 안된다.

결국 1년에 며칠 등산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이지 산에 갈 수 없는 Alpinist의 존재는 들을 수 없다. 사회인이라는 것이 여유가 없는 인간이며, 자유시간도 없는 것인가? 나도 역시 휴가원에 “등산 때문에”라고 써 봤고, 경솔했다는 경험도 얻었다. 사회인으로서 등산가로서 일류라 생각해 준 그들 때문에 보기 좋게 제1의 관문을 돌파했었다.

대학산악부 졸업자가 Alpinist로서 좋은 벼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 OB회 전체계획에 기대한다는 가 너무 의존하는 Alpinist의 길은 끊어지고 말 것이다. 3인 또는 4인이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 계획도 세우고 실행하면 좋다. 히말라야 등산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겠다는 미친 기질을 가진 자만이 실현되는 것이다.

사회인 산악회는 5년째가 되면 중견멤버로서, 회의 여러 계획을 추진하는 위치에 있다. Alpine Club나 일본 산악회에서는 40세-50세는 보통이다. 20-30세는 그리 많지 않다. 일류의 회일수록 더욱

그렇다. 이러한 회의 중견이 되면 즉 leadership이라는 완전한 인식과 실현력을 가져야 한다. 언젠가 바랐던 leader 의 위치가 이렇게 고독하고 부담이 많은 것은 몰랐을 것이다. 물론 대학산악부 leader 와 사회산악회 leader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leader로서 처음 산의 위험에 대해선 실감으로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때때로 카운셀러가 될 수 있고, 회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고통스러운 것을 타개해야 되고, 때로는 너를 불신할 수도 있고 괴롭히는 것은 보통이다. 그러나 당신 위의 고참 멤버가 똑똑하게 당신의 미숙한 점을 봐 줄 것이다.

일본적 <고온센스>란 자유가 없는 비인간적인 것이다. <가오가스>와 만난 소련 Alpinist들은 긴 휴가를 정식으로 얻어 등산해 왔다고 얘기하더라는 것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당연히 휴일이라는 보수가 얻어지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인간으로서 생활이 된다는 것 요원하다. 일본의 험구를 쓰는 건 아니다. Alpinist가 되기 위해선 길이 어떻게 트이는 가를 얘기했을 뿐이다. Alpinist의 길을 걷는 당신은 등산을 계속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휴가를 얻어야 한다. 휴가는 해를 거듭할수록 얼마나 있는가 세어 봐야 할 것이고 어떤 불가능의 벽에 부딪칠 때도 있다.

사회인이 되어 히말라야에 가게 되면 하고 있는 일을 중지해야만 된다. 좀더 나이를 먹어 자유스럽게 휴가를 얻어 가지고 히말라야에 갈 때는 대장으로서이지 Climber로선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Alpinist의 길은 영원히 계속된다. 히말라야에서 <사다>가 되는 것도 좋고, 최근 일본에선 Pro Guide 협회에 드는 것도 있다.

Alpinist !

얼마나 감미로운 언어냐!

이 이름을 가진 채 영원한 Alps에 묻히게 될 것이다.

저자 : 塚本 珪一(일본 산악회 이사, 일본 대학교 교수, 철학 박사)

※ 전북대학교 산악회 『야호』지에 실린 것을 정리해서 다시 실었습니다.

등반보고서

1. 동계장기등반천옥랑
2. 춘계훈련등반
 - A조 천옥랑
 - B조 최진영
3. 하계장기등반
 - A조 진용훈
 - B조 천옥랑
 - C조 이수연
4. 등산학교 정규반 이수연
5. 등산학교 암벽반 ... 방경환, 김연정
6. 추계훈련등반
 - A조 이형관
 - B조 방경환

동계장기등반

- 기 간 : 95년 1월 4일 ~ 1월 19일
- 대 상 : 설 악 산
- 대 원 : 34기 김 현 성
34기 최 지 환
38기 한 창 균
38기 천 옥 량
38기 진 용 훈

기록 38기 천옥량

1월 4일 수요일

11:00 발대식 19:00 등산학교 입교식 20:00 출발

대강당 앞에서 발대식을 했다. 그때까지는 재미있기만 했다.

등산학교 입교식을 위해 염주동 체육관으로 이동하는 길은 무거운 이중화예다 앞뒤로 맨 짐이 너무 무겁고 어색해서, ‘아!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타대 회원들의 비슷한 복장과 짐들을 보니 위안이 되었다.

설악산으로 이동하는 버스에 짐을 실을 때 행준이 형이 오셨다. 필요할 거라며 이어밴드를 주신다. 필요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고마운 마음이 앞섰다.

1월 5일 목요일

3:00 설악산 소공원 도착 8:00 이론교육 시작

선배님들이 항상 말하는 하얀산을 기대하면서 버스에서 내리는데 매서운 바람만이 우리를 맞는다. 이럴 때 이어밴드가 그렇게도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 저항력 입구까지 이동하는 길은 배낭 무게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매트리스에 걸쳐놓은 섹이 헬멧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 불편하기만 하다. 설상가상으로 등산학교 동계반가를 가르쳐 주는 강사님이 목소리가 작다며 오리걸음을 시키는데 일어설 수가 없었다. 그 때 옆에서 도와주는 다른 학교 동기가 천사처럼 보였다. 자기 짐도 무거울 텐데.

텐트를 치고 구보를 하고 프랑스식 등반기술, 설상훈련 등의 이론교육을 하고 조를 짰다. 이론교육시간에는 어제 버스에서 시달린 탓인지 그 추위 속에서도 잠이 온다.

일정을 말해 주는데 눈이 없는 관계로 내일 비박을 나간다고 한다. 그것도 이틀씩이나. 이 추운

날, 조금은 무서운 생각이 든다. 하루가 참 빨리 갔다.

1월 6일 금요일

04:00 기상 11:00 죽음의 계곡 17:00 죽음의 계곡 비박

죽음의 계곡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힘들었다. 아이젠을 착용하고 벨트를 매고 기본동작을 가르쳐 준다. 일명 아이젠 워크(eisen walk), “하나 둘 짱짱” 하는 소리에 맞추며 얼음을 차는 소리가 요란하다.

힘들어서 입술이 바짝 타는데 하나 둘 소리는 멈출 줄 모른다. 또 산가는 왜 그리도 아이젠 워크 박자에 잘 맞는지, 자일의 정은 참 길기도 했다.

조별로 이동을 해서 실전에 들어갔다. 처음 해 본 백스텝은 피가 허벅지로 물리는 느낌에 몇 발 자국 떴을 못하겠다. 빙벽은 너무 무서웠다. 그리고 추운 줄 알았는데 강사님들은 추울 틈을 주지 않는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조별로 비박지를 찾았다.

어색할 것 같은 타대 동기들이고 선배님이었는데, 지금은 나를 지켜 주는 유일한 사람들처럼 느껴진다.

1월 7일 토요일

05:00 기상 07:00 죽음의 계곡 훈련 16:00 용소골 비박

아침엔 춥고 잠이 와서 코펠을 잡고 있는데 스르르 눈이 감겼다. 오늘 첫 코스는 삐올레 라마세(piolet ramasse)였다. 난 한다고 하는데, 피켈이 무슨 지팡이냐며 핀잔이다. 그래도 완등을 하니 기분이 좋다. 어제 못했던 백스텝도 마찬가지다. 어제 보단 자신감이 생기고 아이젠에 믿음이 가기 시작한다.

다음 날 용소골 훈련을 위해 우리는 양폭산장 아래쪽으로 내려와 2인 1조로 비박지를 찾았다.

1월 8일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니 침낭이 다 젖어 있다. 급히 아이젠 차고 프론트로 찍고 올라가는데, 겁이 앞서는지 잘 되진 않는다. 발목도 아파서 용소골까지 가는 길은 힘들었다. 1피치는 백스텝, 2피치는 프론트 포인팅으로 올라갔다. 모여 있는 장소가 돌이 많아서 아이젠 워크는 하지 않고 앉았다 서기를 하는데 동기가 슬립 한 번 먹으면 자동으로 20회이다.

힘들여 올라간 코스였는데 강사님이 쪼그려 뛰기와 팔굽혀펴기를 시킨다. 무슨 잘못했나 어리둥절해 하는데 올라왔으니 해야 한단다. 하강해도 마찬가지라고. 학기초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웃음이 나오려 하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

산행을 마치고 오랜만에 돌아온 B.C의 텐트는 내집처럼 편안히 느껴진다.

1월 9일 월요일

05:00 기상 토막골 훈련

발목이 말썽이다. 뒤따라오시던 선배님이 릿찌화를 주신다. 이중화를 벗으니 신을 신지 않은 기분이다.

우리 조는 mix climbing을 먼저 했다. 그 사이 눈발이 날린다. 이 눈이 하루 종일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초야를 불렀다. 야속하게도 노래가 끝나기 전에 눈이 그친다. 피켈을 들고 이중화를 신고 하는 mix climbing은 빙벽이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은 편했다.

mix climbing이 끝나고 피켈 찍는 법, 아이젠 차는 법 등을 연습하며 차례를 기다리는데 낙빙이 참 무섭게도 떨어진다.

내 차례다.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얼음에서 물이 흐른다. 그 때문에 오버미튼을 끼지 않은 내 손의 모장갑이 다 젖어서 올라가는 동안에도 손이 시려웠지만 다 올라가니 손이 애려왔다. 손 때문에 머뭇거리며 올라가는 나에게 “5조 힘내라!” 하는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날 기분 좋게 했다. 우리 조원들이 너무너무 고맙다.

1월 10일 화요일**05:00 기상, 잿은 바위골 훈련**

잿은바위골로 향하는 길은 참 험했다.

우리 조는 아래서 피켈연습을 하고 확보물 설치법도 배우는데 타연맹에서 커다란 낙빙을 여러 번 만든다. 좀 조심하지 않고는 ….

오늘이 등산학교 훈련 마지막 날인데 제일 마지막으로 올라갔다. 빙폭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계단처럼 만들어져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 아침에 강빙이라고 해서 겁을 먹었는데 마지막이라서인지 하산하는 길도 재미있었다.

분임 토의도 재미있게 마쳤다.

1월 11일 수요일**09:00 수료식, 예비일**

4시 정도에 뽕하는 소리가 들린다. 텐트에 불이 붙어서 가스가 터지는 소리다. 조대 수성이 형 텐트였는데 홀라당 타 버렸다. 약간 잠잠하더니 집합을 시켜서 30분 정도를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추위에 떨게 세워 두는데 죽을 맛이다.

9시에 수료식을 마치고 예비일로 낮잠을 잔 후, 속초 시내로 나가 목욕탕을 갔는데 발이 통통 부어 있고 무릎은 맨살을 찾아 볼 수도 없이 멍이 들어 있었다. 목욕을 하고 나니 더 피곤해진다.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데 산에 간지도 모르며 잘 있냐며 걱정을 하신다. 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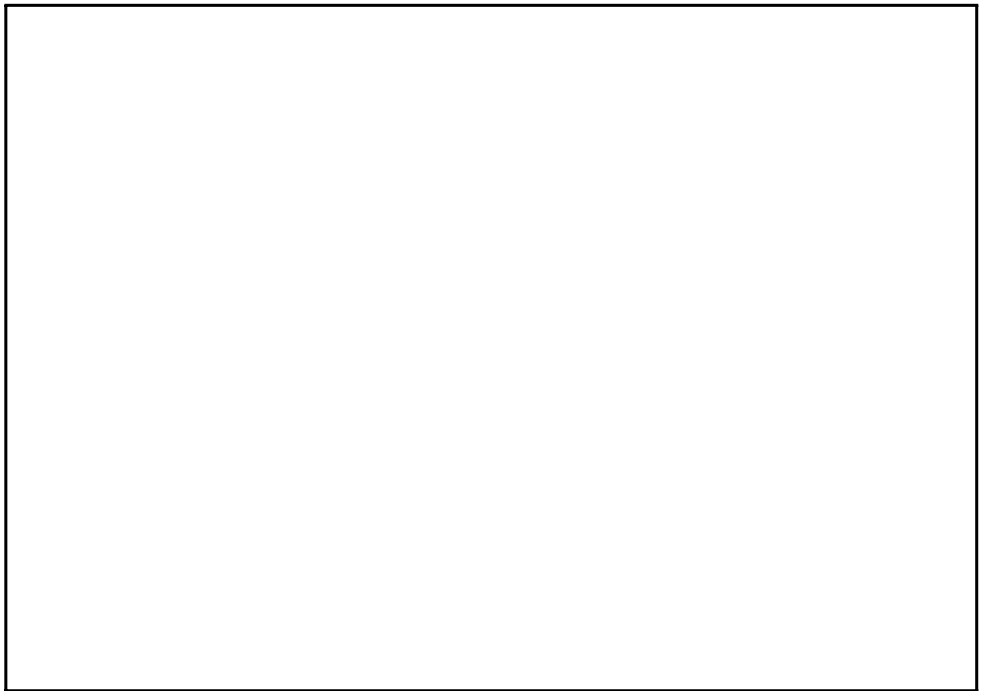
1월 12일 목요일**06:00 기상 토왕폭 정찰**

늦은 아침을 먹고, 텐트 하나를 철수하고, 텐트 정리를 다시 하고, 용훈이 짐챙기고 나서 서강, 송원팀과 함께 토왕폭으로 향했다. 소공원에서 용훈이랑 헤어졌다. 동계 들어와서 처음으로 같이 사진도 찍고 잘 가라고 악수를 하는데 서운하다.

토왕폭으로 향하는 계곡은 미끄러웠다. 한 번은 무릎을 대고 그대로 미끄러졌는데 너무 아파서 소리도 안 나오고 진짜 닭똥 같은 눈물만 나온다.

토왕폭에 도착하니 광주대 팀이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얼음이 고드름 투성이라서 어렵나 보다. 계속 슬립이다. 현성이 형과 송원 선배는 입산허가증을 끊으러 내려가고, 서강 환이 형은 톱을 서기로 했다. 노란 슬링이 걸린 곳까지 걸어서 올라간 형은 겁나는지 담배를 한 대 피우더니 하강을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우린 그냥 내려왔다.

저녁을 먹은 후에 학교 대표들이 회의를 하더니 조대공전, 조대, 순천지역, 우리학교가 함께 토왕폭을 1박 2일로 다녀온다. 1박은 당연히 비박이고. 이번 비박은 그리 걱정되지 않는다.



❖ 1월 12일 소공원 앞에서 ❖

1월 13일 금

05:00 기상, 토왕폭

토왕폭에선 높으신 선배님들이 너무 많아서 우린 아래쪽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동기들끼리 재미있게 보냈다. 조대 연속이는 낙빙을 맞았다며 이어밴드로 입술을 가리고 있었다.

순천대 정현이 형이 우리를 부르시더니 트래버스해서 상단까지 데리고 가셨다. 올라가는 길이 험했지만 서로 도와주며 올라가니 어쨌든 토왕폭에 올랐구나 하는 생각에 노래도 부르고 사진을 찍는 정현이 형 품이 더 멋있게 사진도 찍었다.

비박지를 향해 가는 길에 수도 없이 넘어졌다. 바위틈에서 모닥불을 피워도 추운 것은 여전했다.

1월 14일 토요일

울산암 구경

아침에는 이름 모를 조그만 빙벽을 창균이하고 나하고만 하고 내려오다 광주대 팀을 만났다. 명희언니가 오셨다 한다. ‘우리학교도 OB선배님이 오셨구나’ 하며 내려가는 길에 우리를 찾아 올라 오시는 명희언니를 만났다.

우리는 그냥 BC로 들어가기도 그래서 울산암에 갔다. 계단이 108개라 했던가, 바람이 참 많이 불었다.

저녁때는 전북대와 술을 마시는데 전주언니까지 오셨다. 창균이는 관동대 텐트에 가더니 술이 머리끝까지 올라서 돌아왔다. 그래도 전북대 정길이는 형은 시에라 컵에 술을 가득 따라 준다. 창균이가 걱정스럽다. 간밤에 쉬~

1월 15일 일요일

07:00 기상 10:00 출발 18:30 저항령 도착, 막영

오늘부터 북주능과 서북주능 종주를 해서 설악산을 떠난다. 텐트를 철수해서 짐을 싸는데 배낭은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올라만 간다. 배낭을 매려다 옆으로 넘어졌다. 출발할 때와 무게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매고도 갈 수 있을까?’ 하며 창균이를 앞세우고 우리는 그 동안 정들었던 Base를 떠났다.

어제 술 때문에 피로워하는 창균이는 그래도 잘만 간다. 작년인가 전북대 장정들이 저항령까지 1박 2일 걸렸다고 선배들이 농담 삼아 이야길 한다. 가다 보니 농담이 아닌 것 같다.

힘이 들다 보니 발 잘못 딛은 척 하고 굴러 떨어져 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저항령에 도착하니 한양대 팀이 텐트를 치고 있다. 오늘 계획은 마등령이었지만, 날이 어두워지니 우리도 거기서 막영하기로 했다. 하루 중 가장 즐겁고 편한 시간이다.

1월 16일 월요일

05:00 기상 → 마등령 → 청아봉(1275봉)

마등령까지는 너털지대도 있어서 힘이 들었다. 길이 험해서 미끄러졌다. 대장님이 화가 나서 뭉뚱이를 해오라 하신다. 뭐라뭐라 하시더니 잘 가자며 창균이에게 짐을 덜어 준다. 창균이에게 미안했지만 짐을 빼니 속도가 붙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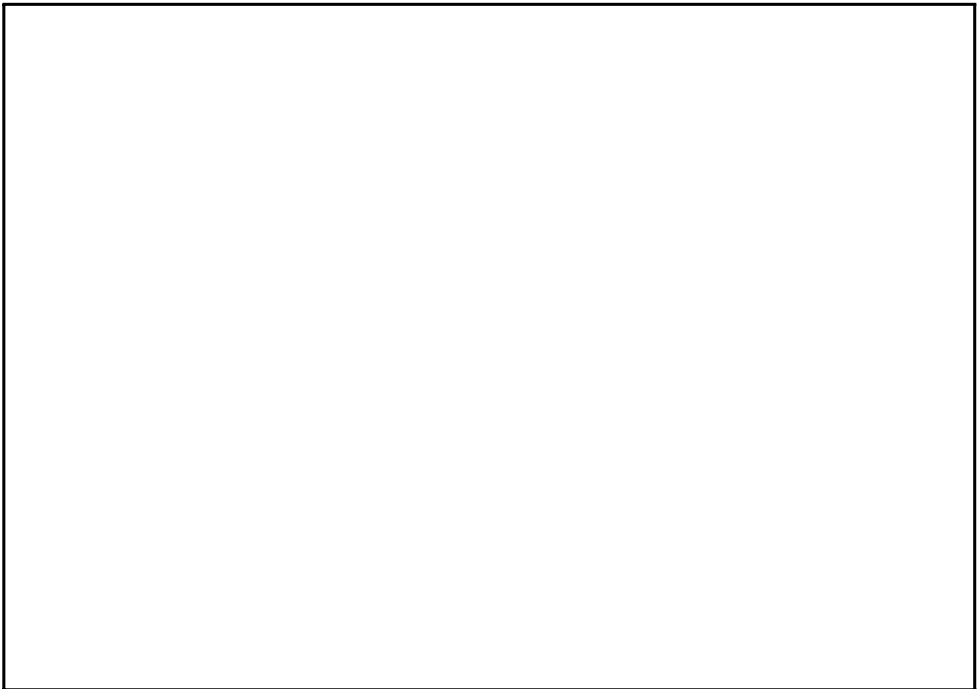
마등령에서는 천막치고 사는 아저씨 아줌마가 침낭을 햇빛에 널어놓고 있었다. 그 광경이 보기

좋아서 나도 이 다음에 저러고 살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점심을 먹고 전주 언니는 직장 때문에 내려가고 우린 공룡능선으로 산행을 계속했다. 내리막길은 참 힘들었다. 1275봉이 바로 보이는 내리막길에서 발이 불안하여 자세를 약간 바꿨다. “그래 그렇게 내려와” 하시는 선배님 말씀에 발을 떼는 순간 굴러 떨어졌다. 오랫동안 굴러간다는 생각에 ‘난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다행히 나무에 걸려서 아래로 떨어지진 않았다. 특별히 다친 데는 없었다. 참 많이 굴렀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다. 중요한 건 조금만 더 굴렀으면 절벽이었다는 것이다.

1275봉에서 막영을하기로 했다.

릿지를 하는 사람일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



❖ 마등령 가는 길 ❖

1월 17일 화요일

05:00 기상 → 희운각 중식 → 소청 → 중청 → 끝청지나 막영

오늘은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 희운각에서 이른 점심을 먹었다. 여름에 봤던 산장아저씨가 있나 봤더니 그 사람은 없고 다른 아저씨가 지키고 있었다. 조금은 섭섭했다. 소청까지는 올라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멀리 보이는 저곳이 대청봉이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막상 대청이 바로 보이는 소청에 오니 기분이 좋아진다.

1월 18일 수요일

05:00 기상 → 한계령 삼거리 → 귀때기청 → 대승령

오늘은 바람도 많이 불고 눈발도 날린다. 지금까지보다는 동계다운 날씨다.

귀때기청을 지나 덕성여대 팀을 만났는데 2시간만 가면 대승령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나오질 않는다. 처음으로 글리세딩을 했다. 출발하기 전 겨울산을 찾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광복이 형은 글리세딩을 하기 위해 그런다는 말을 듣고 무슨 말인가 했는데 재미있었다. 덕분에 옷이 젖긴 했지만.

야간산행을 1시간 정도 하다가 대승령을 조금 못 가 막영지를 정했다.

1월 19일 목요일

대승령 → 백담사 → 용대리 → 서울

마지막 날이다. 막영지에서 30분을 가니 대승령이다. 그곳에서 백담사까지는 참 멀기도 했다. 백담사 계곡에서 중식을 먹고 걸어서 용대리까지 와서 오후 5시 30분 차로 서울까지 왔다. 서울에서 다시 선주언니를 만났고, 잠시 후에 규성이 형까지 오셨다. 밤새 신나게 논 다음 여관에서 마지막 밤을 모냈다.

1월 20일 금요일

서울 → 광주, 회식

늦게 기상해서 고속버스로 광주에 도착, 회관에 들어오니 다섯 시가 넘었다. 그 동안 못 본 회원들, 그리고 성개 형, 두인이 형 등 OB선배님과 함께 회식을 했다.

재미있는 순간보다는 힘들었던 순간이 더 많았다. 하지만 지금껏 동기들과 이야기해도 정말 재미있었다고 말을 못했는데, 처음으로 진짜 재미있었고 좋은 산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산행이었다.

'95 춘계 훈련등반(A조)

- 기 간 : 95년 5월 4일 ~ 5월 7일 (3박 4일)
- 등반인원 : 2개조 19명
- 대 원 : 34기 김 현 성
 - 36기 이 현 조
 - 38기 한 창 균
 - 38기 천 옥 랑
 - 38기 이 수 연
 - 39기 김 성 석
 - 39기 함 경 준
 - 39기 임 도 균
 - 39기 박 아 미
 - 39기 김 현
- 대 상 : 해남 ~ 두륜산 북암(A조)

이상 A조

기록자 : 38기 천옥랑

1995년 5월 4일

광주(18:05) - 해남(20:10) - 갈두(21:30) - 토말탐(22:15) - 전망대(23:00)

땅끝으로 가는 막차를 놓칠까 염려했는데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해서 기분이 좋았다. 갈두에 도착하니 바람이 차갑다. 슈퍼마켓 뒤에서 물을 채우고 토말탐으로 향했다. 즐거워하는 1학년들 모습이 보기에도 흐뭇하다. 전망대까지 가는 길은 가파른데다 흙이 푸석푸석해서 미끄러웠다. 없는 듯한 길을 찾아서 올라가니 표지판이 보인다. 우리가 너무 왼쪽에서 올라온 듯 하다. 평평한곳에 텐트를 치고 훈련등반 첫날을 마감했다.

5월 5일

전망대(06:15) - 147봉(09:00) - 416봉(19:00)

6시 출발 예정이었지만 15분이나 늦어졌다.

뚫린 길을 따라서 5분 정도 내려가니 주차장이 나왔다. 곧바로 길을 따라서 가는데 너무 왼쪽으로 갔다며 오른쪽을 향해 가라고 하지만 길이 없다. 그래도 길을 뚫으면서 갔지만 계속 왼쪽으로 치우쳐진다. 방향을 바로잡고 가니 도로가 나왔다. 도로를 가로질러 산으로 가다 보니 등산로가 나와 좋아라 하며 가는데 마을로 떨어지는 길이다. back을 해서 길이 없고 가시가 많은 곳을 어렵사리 뚫고 나와 지형을 살펴보니 마을로 떨어지는 그 길이 봉우리 3개를 건너 뛰어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었다. 그곳에서 간식을 먹고 가는데 길은 점점 뚫기 어려워져 낮을 들고 창균이가 앞장서 간

다. 그런 동기가 듬직하게 느껴진다. 헬기장이 나오자 무덤 앞에서 점심을 먹었다. 다들 부족한 눈치다. 넉넉히 준비 못한 게 후회됐다.

점심을 먹고 난 후에 가는 길도 여전했다. 저녁이 되서야 군사도로를 만났고 10분쯤 올라가니 416봉 정상이다. 커다란 동굴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이에 창균이가 군사기지로 물을 구하러 갔지만 도로를 따라 2km를 내려가면 샘이 있다는 소식만 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도로 옆에다 텐트를 치기로 하고 창균이와 현조형은 아래로 물을 구하러 갔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텐트 치기가 어려운 데다가 이번에 폴대를 새로 맞춘 동계용 텐트는 폴대가 제대로 맞질 않았다. 출발하기 전에 창균이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확인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었다.

이렇게 산에서의 이틀째 날을 마감했다.

5월 6일, 7일

416봉(05:25) → 달마산(10:25) → 닭골재(14:00) → 진불암(24:00) → 대둔산(03:40) → 두륜산 구름다리(08:00) → 집결지도착(북암)(11:00)

5시 출발 예정이었으나 25분이나 늦어져서 대장님이 한 따까리를 하고 출발했다. 길이 매우 좋다. 25분쯤 가니 능선 아래에 야영을 한 흔적이 있는 터와 샘이 있었다. 이렇게 가까이에 샘이 있는 지도 모르고 어제 밤에 고생한 것이 억울했다. 그곳에서 30분을 휴식하고 산행시작. 길이 좋아서 다들 속도가 붙는다. cross-country처럼 뛰어 가자던 대장님이 속도가 맘에 안 들었는지 남자부 여자부로 나누어 가자며 1학년 애들을 몰고 먼저 출발했다. 힘이 쭉 빠진다. 왜 왔을까 하는 생각에 가기 싫어져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다가 이곳도 내가 부딪쳐야 할 것이라면 이겨내야지 하며 가는데 좀처럼 속도는 나지 않는다. 1학년 애들이 배낭을 받으러 왔지만 줄 수가 없었다. 그 상태로 속도가 나지 않자 빨리 못 가겠으면 배낭을 벗어 주라며 현조형이 핀잔을 준다. 나름대로 속도를 내서 올라간 달마산 정상에 있는 애들이 너무도 반가웠다. 몇 시간 안 봤다고. 동기 등반 때 왔던 곳이어서 인지 동기들 생각이 났다. 간식을 먹고 출발, 길이 평탄한 곳에서 40분 동안 하중훈련을 했다. 힘들었지만 산가를 부르는 목소리에 점점 악이, 또 깡이 묻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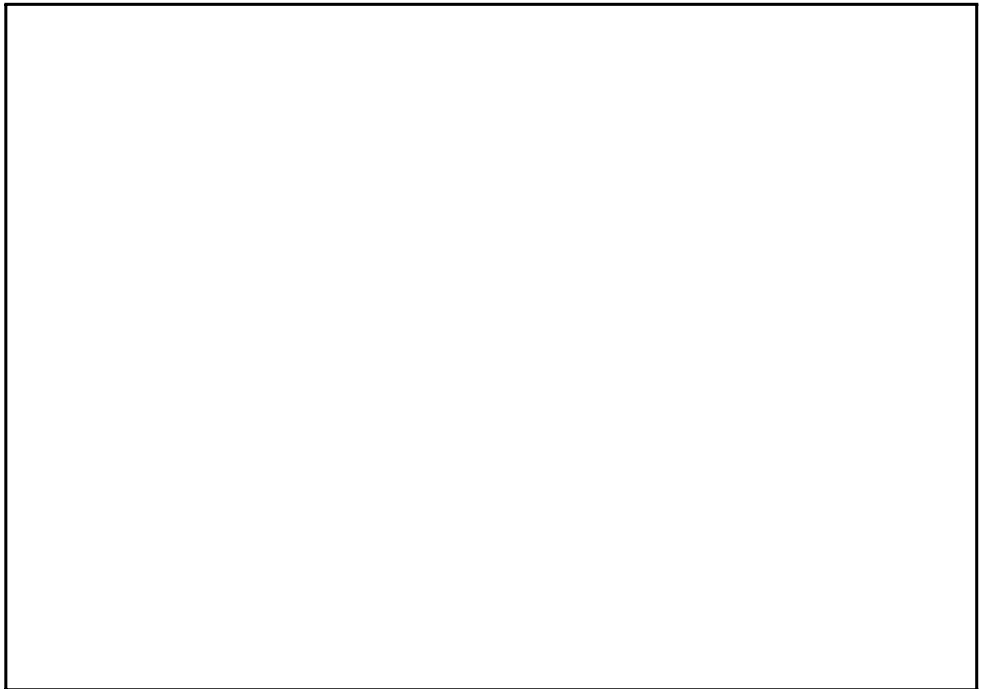
닭골재로 가는 길은 동네 뒷산임에도 앞서가는 창균이가 독도하기 힘들어한 듯하다. 그래도 무사히 닭골재에 도착해서 오랜만에 세수도 하고 하계기분을 내며 포식을 했다. 다시 대둔산을 향해 출발, 어제 하루 산행을 해서인지 방향을 잃지 않고 없는 길을 찾으며 가는데 트레버스하면 대둔산 바로 아래가 나올 것 같다며 창균이가 앞장서서 험한 길을 뚫으며 나간다. 2시간쯤 가다 능선위로 올라서니 바로 아래 태양사가 보인다. 도균이가 몰래 물을 먹으려는 것을 봤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만 했다. 그후로는 길이 좋아서 다시 속도가 붙는다. 1시간 30분쯤 왔는데 길이 애매해서 바로 위 능선으로 올라 쳤지만 그 사이에 해가 저서 길을 볼 수가 없었다. 정찰을 나간 후에 길을 찾아가는데 마을로 떨어지는 길이다. 우린 진불암을 찾기 위해 3시간을 그곳에서 갇혀 있다가 창균이와 현조형의 노력으로 밤 12시가 다 되서야 진불암에 도착했다.

매우 늦은 저녁을 먹고 1시간만 올라가면 대둔산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1시 30분에 출발했다. 처

음에는 길이 희미했지만 너덜지대를 만나 약1시간 동안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러다 오른쪽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전신주를 목표로 험한 길을 헤치면서 가는데 전선줄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거대한 요새처럼 보이는 건물 왼쪽으로 돌아가니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은 군사도로가 나온다. 통신탑을 돌아서 능선에 올라서려는데 그곳을 지키는 아저씨가 우릴 불러 새운다. 군사시설이니 민간인은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며 도로를 따라 3km만 가면 진흥사가 나오고 그곳에서 1시간만 올라가면 두륜산이라는 기쁜 소식을 알려준다. 하지만 그곳에서 잠시 의논을 하더니 그대로 밀고 나가기로 결정을 했다. 두륜산 가는 길은 매우 좋았다. 도중에 절벽이 나타나 오른쪽에 있는 트래버스길을 못 찾아 헤매긴 했지만 무사히 구름다리에 도착, 우린 길만 따라 갔는데 절벽이 나온다. 갈림길이 있던 곳까지 back을 해서 갔지만 계속해서 절벽이다. 바로 아래 보이는 헬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구름다리 오른쪽으로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지만 우린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하강했다.

도중에 배낭 싸는 훈련을 간략히 하고 11시에 집결지인 북암에 도착했다. 동기들과 1학년 애들 모습에 기분이 좋아진다. 점심을 먹고 따까리 전수식을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한 다음 하산했다.

참으로 뿌듯한 사흘을 보냈다.



❖ 해남 달마산에서 ❖

'95 춘계 훈련등반 (B조)

- 대 원 : 34기 최 지 환
 36기 문 준 연
 37기 정 양 숙
 38기 최 진 영
 38기 진 용 훈
 39기 노 원 기
 39기 방 경 환
 39기 김 현 준
 39기 김 천 중 이상 B조
- 대 상 : 강진 성전 314봉 ~ 해남 두륜산 북암

기록자 : 38기 최진영

5월 4일 (목)

19:00 성전 도착, 산행시작 03:00 비박

A조와 헤어져 성전에서 먼저 내렸다. 차에서 손을 흔들며 내리는데 묘한 기분이 든다. 3일 후에 만나게 될 A조. “잘 가라”는 인사말을 남기고 차는 떠났다. 어둑해진 밤길을 걸어 잡목을 뚫고 초입을 잡았다. 용훈이가 선두로 올라가다가 휴식을 취한 후 내가 선두로 가게 되었다. 독도법을 알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난감했다. 조장으로서 산행지식을 갖추지 못해 39기들에게 부끄럽고 선배들께 죄송했다. 다행히 준연형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능선을 따라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 올라가라는 형의 말씀. 속도가 느리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조마조마하며 마구 뚫고 가다 보니 후미와 거리차이가 많이 났다. 항상 선두는 뒤를 살피고 조원들에게 맞추어 가야 한다는 충고의 말을 들었다.

종주도 처음이고 야간산행도 처음인 39기들이 약간 지친 듯 싶었다. 배도 고프고 경환이가 배낭이 무겁다고 불평이다. 저녁으로 만들어 먹은 카레 맛이 일품이었다.

5월 5일 (금)

05:00 기상 → 서기산 → 석문산 근처 저수지 막영 → 02:30 막영

하늘을 지붕 삼아 잤지만 잠이 깊이 들었는지 일어나서도 개운했다. 기상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양숙연니가 깨워 일어났다. 따로 불리어 꾸중을 들었다. 배낭점검을 하고 산을 올랐다. 형들이 따분하게 가지 말고 산가도 부르고 구호도 외치며 가자고 하신다. 39기들에게 산악회가를 가르쳐 주었다. 1학년 때는 다 그러듯이 자작곡·작사다. 경환이가 불평을 한다. 자일 때문에 배낭이 무겁다는

등, 발바닥이 뜨겁다는 등.

‘올라가자’, ‘힘내자’를 외치면서 달래며 올라갔다.

중식을 먹으려고 라면 물을 올려놔는데 원기가 잘못해서 버너를 얹어 버렸다. 그렇게 코펠 손잡이를 잡고 있으라고 말했건만……. 모두들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정신 상태가 틀려먹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아찔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될 수 있으면 매를 들지 않도록 맘먹었는데…….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될 것 같았다. 점심 먹는 것을 포기하고 배낭을 다시 싸고 산행을 시작하는데 천중이가 빠져 버렸다. 형들은 천중이를 돌보러 가고 나머지 우리들은 내려왔다. 양숙언니가 한따까리를 했다. 39기들에게는 ‘믿는다’는 말과 함께 타이르기만 했다. 때려야겠다는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 서기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산가를 가르쳐 주었다. 원기, 경환이가 흥겹게 부르며 내려간다. 현준이의 등산화 밑창이 떨어져 청테이프로 감은 모양이 가관이다. 청테이프를 이럴 때 쓸 줄이야.

5월 6일 (토)

05:00 기상 → 석문산 → 새벽 02:30 북암도착

석문산 초입. 바위가 꽤 많은 산이다. 벨트를 차고 너털지대를 올랐다. 현준이가 발바닥에 물집이 크게 생겨서 제대로 오르지 못한다. 더구나 등산화까지 부실하고. 날씨는 찌는 듯하고 현준이 뒤를 쫓아가는 나까지 지친다.

39기들이 갈증을 느끼나 보다. 특히 원기가 물이 먹고 싶어 죽을상이다.

경환이는 여전히 불만이 많은 표정이다. 점심때 떡라면이 퍼져 현준이가 다 먹는 대신 수통의 물을 혼자 먹기로 했다. 위대한(위가 큰) 현준이가 꾸역꾸역 먹는 모습. 결국엔 다 먹진 못했지만 그 모습이 하도 가락해서 악속을 지키기로 했다. 원기, 경환, 천중이의 부러운 눈초리들. 현준이는 주는 대로 물을 다 받아 마신다. 오름 길에 천중이가 또 빠져 정신이 혼미해졌다. 2번씩이나 퍼지다니…….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었는데, 천중이의 짐을 분배해서 계획한대로 올라갔다. 또 한따까리를 했다. 이번엔 39기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쩔, 맞으니가 그렇게 잘 가는지! 현기증도 나고. 바위산을 지나 갈대 숲을 헤치며 야간산행이다. 잠오는 눈을 비비며 올라갔다. 헬기장에서의 갈대불은 잊을 수 없을 거다.

5월 7일 (일)

새벽 2시까지 북암에 집결하기로 했는데, 혹시 A조가 도착했을까 해서 ‘Alpine’을 외치며 북암을 향해 올랐다. 이제 다 왔다는 안도감. 그렇게 쏘아지던 잠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저 생각나는 건 북암뿐이었다. 오름 길에 ‘Alpine’을 외쳤지만 고요뿐이었다. 아침 10시쯤 되니 멀리서 들려오는 A조의 산가소리와 ‘Alpine’소리. 함께 외치면서 아침 식사 준비를 했다. 드디어 A조 도착. 찢겨진 옷과 굵힌 손목과 손등. 고생한 모습들이 눈에 선했다. 뽀루통한 아미의 얼굴표정, 헬썩해진 성적이, 목이 다 쉬어 버린 경준이, 유난히도 팔목에 상처가 많은 현이, 그 큰 눈이 더 튀어나오고

묵묵히 아무말이 없는 도균이.

A, B조가 한자리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지나온 산행이야기를 했다. 어찌나 재밌고 웃음이 터져 나오는지. 따까리 전수식을 하고, 39기들에게 산가를 여러 번 시켰더니 거의 목이 다 쉬어 버렸다. 39기들을 보고 있으려니 나오는 건 웃음과 흐뭇함뿐이다. 닭싸움에서 이겨서 A조가 사준 그 아이스크림 맛이 너무나 좋았다. 이 아이스크림 하나로 힘들었던 산행이 짝 가시는 듯 했다. 아이스크림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듯이 ….



◆ 집결지인 북암에서 전대원이 모여 ◆

'95 하계장기등반(A조)

- 등반기간 : 95년 7월 7일 ~ 7월 28일 (21박 22일)
- 등반인원 : 3개조 16명
- 명단(A조) : 34기 김 현 성
 36기 오 장 민
 37기 정 양 숙
 38기 진 용 훈
 39기 방 경 환
 39기 함 경 준 이상 A조 6명
- 코 스 : 진부령 ~ 두타산

기록 : 38기 진용훈, 39기 함경준

7월7일

16:00 회관출발 → 17:35 광주출발 → 18:40 전주도착

【조장 진용훈】

B조, C조를 먼저 떠나 보내고 부족한 장비를 보충한 후 4시에 회관을 출발했다. 1학년 2학기에 산악회에 입회한 나에겐 첫 하계였다. 설레는 가슴을 달래며 도착한 고속터미널엔 차가 늦어져 기다리는 C조를 만났다. 2시간 만의 해후였지만 어찌나 반가웠던지... 오늘 따라 동기 수연이가 너무도 사랑스러웠다.

산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이 약해진다. 5시35분에 버스에 오른 후 2시간쯤 지나 전주에 도착했다. 명희누나의 초모랑마 북동릉 원정대 발대식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다시는 못 먹을 곰탕을 먹고 서울로 출발.

새벽에 도착한 서울역에는 용욱이 형이 마중 나오셨다. 맛도 없는 콩나물 해장국으로 공복을 채운 우린 드디어 이 하계의 출발지인 진부령을 향해 출발했다. 속세여 안녕.

【39기 함경준】

회관에서 출발을 기다리며 왠지 마음이 허전하며 불안했다. 열 한시에 발대식을 했다. 오후 세시에 C조가 먼저 출발을 했다. 우리 조는 서서히 출발을 하려다가 명희누나 발대식에 간다고 갑자기 서둘러졌다. 배낭의 무게는 꽤 무거웠다.

다섯 시에 터미널에 갔는데 C조가 아직 출발하지 않아서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모두다 반가워했다. 우리 조는 다섯 시에 전주로 출발했다. B조는 점심먹고 바로 출발했다. 첫날부터 비가 와서 그런지 나는 기분이 너무나 좋았다. 앞으로 계속 비가 왔으면 했다.

전주에서 명희누나 발대식을 봤는데, 너무나 부러웠다. 나는 언제쯤 해외로 원정을 나가보나 그곳에서 술과 맛있는 음식도 먹었다. 그리고 밤열차로 서울로 향했다. 기차에서는 계속 졸았다.

7월8일

00:35 전주역 출발 → 12:10 진부령 도착 → 13:15 중식 → 18:00 대간령 막영

【조장 진용훈】

설렘과 미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도 못 잔 채 버스로 진부령에 도착. 사진을 찍고 나서 내 운명을 신에게 맡기고 백두대간, 진부령 ~ 두타산 구간의 첫 발을 내딛었다. 독도로 초입을 잡은 난 여태까지 몰랐던 배낭의 위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인데 ...

다행히 지나는 트럭을 잡아 알프스 스키장까지 직행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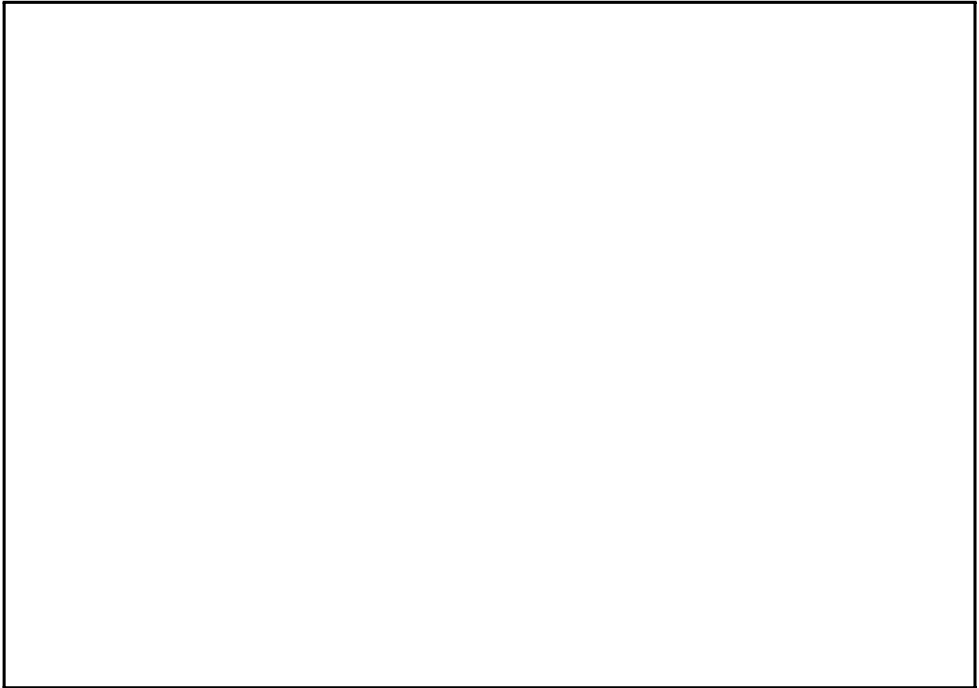
산속 길을 접어든 후 만난 계곡에서 라면으로 점심을 하고 오늘 목적지인 대간령(大幹嶺)(대관령이 아님)을 향해 눈빛도 퍼렇게 힘찬 발걸음으로 출발. 깡으로 노래를 부르고 악으로 발을 내딛던 우린 2시간 반만에 마산(1051.9m)에 올랐다. 비로소 뭔가 했다는 기쁨에 힘이 솟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 비가 하계 끝까지 우릴 괴롭힐 줄이야.

비에 훌쩍 젖어 쉬고 있는데 뒤에서 현성 형이 “빵(1학년 방경환의 별명), 너 눈에 빗물 들어갔다.” 하며 웃으시는 거였다. 나도 보곤 웃음을 참지 못했다. 우리 A조의 조가가 ‘다 포기하지마’에서 ‘빵 포기하지마’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몰려오는 추위를 참으며 6시에 드디어 대간령에 도착. 감격의 순간이었다. 이렇게 첫 스타트를 끊었다.

텐트를 치고 저녁을 먹은 후 우린 ‘쌀 퍼주기’ 포커를 하였다. 결국 현성 형이 빵의 쌀 하나를 받는 걸로 끝이 났다. 그때 빵의 표정이란. 역시 따까리 시절답다.

【39기 함경준】

시간을 기록하지 못했다. 서울에 새벽 다섯 시 정도에 도착했다. 서울에 있다는 선배님께서 나오셨다. 같이 아침밥을 먹었다. 그리고 서울에서 진부령까지 또 차를 타야 했다. 다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약 열두 시가 되서야 진부령에 도착했다. 사실 우리 조는 오늘부터 산행이 시작이었다. 진부령에 도착해서 처음 초입을 찾기 위해서 도로를 조금 걸었다.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트럭에 태워 줬다. 너무 좋았다. 알프스 스키장인가 하는 곳에서부터 산행이 시작되었다. 조금 걷다가 점심을 먹고 걸었다. 앞으로 계속 산행 시각을 쓰지 못할 것 같다.



◆ 진부령에서 ◆

7월9일

05:00 기상 → 07:40 산행시작 → 10:50 신선봉 → 14:00 점심 → 16:00 미시령 → 18:30 막영

【조장 진용훈】

5시 기상하기 위해 난 4시 이후엔 5번을 깨어나서 시계를 봐야 했다.

떨어지지 않는 발을 옮기며 신선봉을 지나 1239고지에 오르니 미시령 휴게소를 지나는 국도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때 잠깐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보이면서 바람에 밀린 안개가 능선을 가운데 두고 한쪽으로 휘돌고 있었다. 감동이 파노라마로 밀려왔다. 어찌 놓치리요 ‘찰칵’. 하루만에 본 사람들이지만 미시령의 그들은 너무 신기하기만 했다. 집에 전화했지만 안 받는다. 막영지에 가까워지자 갑자기 체력이 팍 떨어졌다. 미치는 줄 알았다.

【39기 함경준】

다섯 시에 기상했다. 아침에 일어나니 비가 오고 있었다. 나는 이상하게 비오는 날이 가장 컨디션이 좋다. 비가 오후에 그쳤다. 산행이 힘이 들었다. 처음 출발이 일곱 시 이십오분 정도였다. 한시간 가량 계속 걸어 올랐다. 경환이가 너무 힘들어 보였다. 나는 춘계 훈련 등반보다는 산행이 쉬운 편이었다. 갑자기 경환이가 너무 힘들다고 못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조금 쉬었다. 현성이형이 경환이에게 노래하나 하라고 하니 ‘포기하지마’라는 노래를 했다. 나는 그때 그 노래를 잊을 수 없다. 배낭이 너무 무거워서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도 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저녁밥이 너무 맛

있었다.

7월10월

05:00 기상 → 07:30 출발 → 12:15 저항령, 중식 → 20:10 황철봉 정상 → 21:00 마등령 막영

【조장 진용훈】

저항령 다음부터는 무시무시한 너덜지대다. 산 전체가 바위 덩어리들로 덮여 있다. 신의 장난이다. 그리고 몰아치는 바람. 이 너덜지대에서는 표식기가 별로 없는 관계로 중간중간 쌓아 놓은 케른을 보며 운행하면 된다.

너덜에서 해매느라 막영예정지인 마등령을 도착하기도 전에 날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고생 끝에 삼각점을 보고 1376.7고지를 확인한 나는 지도를 확인하고 마등령으로 하산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독도를 잘못해서 비전대쪽 가파른 하산 길을 택한 것이다. 이상이 생긴 것을 안 현성형은 다시 올라가 길을 찾더니, 금방 저쪽에서 찾았다는 외침이 들렸다. 춥고 배고팠던 우린 다시 힘을 내 back을 해 그 길까지 갔다. 내가 중간에 갈라지는 길을 어두워서 놓친 것이다. 이렇게 도착한 마등령에서 자정을 넘겨 겨우 잠을 청했다. 오늘은 기상이 악화되고 날도 어두워져 내 주위가 산만해져 예정대로 되지 못했다. 다음부터는 그럴수록 더욱더 신경 써야겠다.

【39기 함경준】

이날 기록을 하지 못하고 11일에 기록을 했다. 밤늦게까지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 버렸다. 이 날은 너무너무 힘들었다. 기록하기가 힘들 정도로 피곤하다. 그냥 그만 쓰고 싶다.

7월11일

05:15 기상→07:40 출발→11:00 1275봉(청아봉)→15:30 회운각 중식→18:00 중청→18:10 막영

【조장 진용훈】

5시기상을 위해 또 잠을 못 이뤘다. 4시부터 15분 간격으로 깨서 시계를 봐야만 했다. 아 고달픈 조장이여! 오늘은 아침부터 날씨가 우릴 도와주었다. 우리 빵이 좋아하는 햇빛 짹짹한 날이다.

오늘 코스인 공룡능선의 양 옆 경관은 날 황홀하게 만든다. 바위 능선이라 어려운 곳은 트래버스를 해가며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며 전진했다. 회운각을 향하여. 거기엔 이제 막 제대하신 장민이형이 합류하기 위해 와 계신 것이다. 따까리 애들이 좋아한다. 장민이형 뒤통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에코를 하면서 도착한 산장에서 형이 마중 나오셨다. 그 반가움이란!

5시에 산장을 출발하여 소청을 향해 오름짓을 시작했다. 겁나게 가파른 길이다. 끝청 조금 못미처 6시10분에 막영을 했다. 정말 소청 오를 땀 죽는 줄 알았다. 다른 조들은 뭐하고 있을까. 옥랑이수연이는 잘하고 있는지. 회관을 지키고 있을 진영이.

내일 한계령에서 예비일을 잡을지도 모르겠다는 대장님 말씀이 애들을 들뜨게 하나보다.

【39기 함경준】

오늘 산행도 매우 힘들었다. 경환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조금 퍼진 적 했다. 경환이는 그것도 모르고 아주 잘 갔다.

집에는 연락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 내가 너무 심했다. 집에는 그냥 산에 좀 갔다 오고 공부한다고 말하고 광주 와서는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설마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

점심을 회운각에서 먹었다. 나는 회운각이 절인줄 알았다. 그런데 그곳은 그냥 가게 정도였다. 조금 실망감도 없지 않았다. 그곳에서 장민이형을 만나고 중청까지 와서 막영을 했다. 하계 들어와서 두 번째로 피곤한 산행이었다.

7월 12일

05:00 기상→07:50 출발→11:30 한계령 삼거리→14:30 한계령, 중식→18:25 1157.6봉→19:15 막영

【조장 진용훈】

중청 다음부터는 길이 고속도로였다. 굴곡이 없어 신나게 운행할 수 있었다. 귀뚜기청봉 갈림길에서 한계령 쪽으로 틀어 1시간이나 지겨운 길을 내려가니 사람목소리가 들리는 한계령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애들은 많은 사람과 차들을 보곤 표정이 일그러진다. 한계루(寒溪樓)에 배낭을 부리고 집에 안부전화하기 위해 휴게소로 내려가는데 빵의 표정이 묘하다. 현성형과 도망가지 않겠다는 사나이끼리의 약속이란 걸 하고서야 휴게소로 내려가야 했다. 집에서 전화를 안 받아 동기 진영이에게 하니 바로 받는다.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반가워 말문이 막힌다. 보름 후를 기약하며 수화기를 놓는다. 예비비로 오랜만에 핫바와 만두로 포식을 한 우리는 하나같이 여기서 막영하길 바랬지만 대장님은 계속 가야 한단다. 한계령아 내 다시 오리니... 다음 1157.6봉 앞에서 바위길이 나타났다. 여기서는 표식기를 보며 진행하니 수월했다. 1157.6봉과 망대암산 사이의 안부에 우리의 하루살이 집을 지었다. (물은 좌측)

【39기 함경준】

날씨는 산행하기에 매우 좋았다. 허리와 어깨가 너무 아팠다. 오늘 산행은 쉬운 편이었다. 경환이에게 너무 미안했다. 중간에 내가 경환이에게 짜증을 냈다. 그때 왜 그랬는지 ...

오르막길에서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된다. 아무 생각없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정상에 가까워진다. 산행은 날이 갈수록 쉬워진다. 배낭 무게도 아주 가벼워진 것 같다. 오늘도 무사히. 내일은 생각하지 않기로 하자.

7월13일

05:10 기상 → 09:00 점봉산 → 14:00 오색국교 앞, 예비일

【조장 진용훈】

오늘은 설악을 벗어나는 역사적 날이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망대암산에 오르니 앞드리면 코가 점봉산과 부딪히겠다. 오늘도 여전히 흐리고 바람이 거세다. 거기다 간간이 내리는 비. 쉬면 추울 뿐이다. 이걸 겨울도 아니고 원, 열심히 발을 땀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키 작은 잡목만이 있는 점봉산을 오르니 안개가 시야를 막는다. 간식을 먹고 단목령을 향해 출발. 가파른 길을 내려오다 내 왼쪽 무릎에 이상이 생겼다. 다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다. 원인은 모르겠고 갑자기 그랬다. 하루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고 생각한 난 한쪽 다리만으로 걸음을 옮겼다. 애들의 설악가를 들으니 이제 설악을 벗어났다는 안도감보다 웬지 모를 아쉬움이 앞선다.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와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여기서부터는 독도에 특히 신경을 써야 했다. 백두대간 중 독도가 애매한 구간이 몇 군데 있는데 이 단목령 부근도 그 중의 하나이다. 다른 이의 보고서에 있는 트레버스 길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주능인지 구별이 안 가 표식기만 따라가다 끝내 오색으로 빠지고 말았다. 결국 삼겹살과 목욕이 있는 반나절 예비일이 되었다.

【39기 함경준】

피곤한 가운데 pen을 든다. 오늘은 휴식일이다. 반나절만……. 길을 잘못 들어서 오색이라는 마을로 떨어졌다. 실제로 오늘은 휴식일이 아니지만 마을로 떨어진 김에 휴식일로 하자는 대장님 말씀에 감히 누가 반대하겠는가. 휴식이라면 휴식 해야지 뭐.

가게에 가서 고기도 사 오고 맛있는 과자도 사 와서는 저녁밥을 너무 맛있게 먹었다. 노래에도 있지 않는가 ‘환상적인 산행’이라는 말이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 이것이 아닌가. 내려오면서 「설악가」와 「설악아 잘 있거라」라는 노래를 배웠다. 조용한 노래라서 듣기에 너무 좋았다. 그러나 노래를 배우는 과정이 힘들었다. 배가 불러온다. 슬슬 잠도 온다.

7월14일

05:15 기상 → 07:55 출발 → 09:50 단목령 → 18:30 조침령 → 19:30 쇠나드리 막영

【조장 진용훈】

7시55분. 또 하루의 산행이 시작됐다. 예비일 후라 아주 가기 싫다. 빨래로 깨끗해진 옷이 기분을 오지게 한다. 태양도 오랜만에 힘을 쓴다. 계곡을 타고 거미줄과 벌레와 더위와의 혈투 끝에 1시간 50분 후 단목령에 도착했다. 안부 한 쪽에 나무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이곳을 지나갔던 사람들의 자취가 남아 있다. 작년 우리학교 팀 것도 내동기 이름(창균, 수연)과 함께. 그 밑에 우리도 자취를 남기고 출발. 북암령에 도착하니 사거리가 나왔다. 여기서는 좌측위로 가면 된다. 어제 쉬어서 일까

애들이 너무 잘 간다. 짐이 가벼워진 이유도 있겠지만 워킹의 틀이 잡힌 것 같다. 눈들이 다들 힘이 있다. 그래서 1136봉 다음 안부에서 쉬려다 다음 봉까지 진도를 뺐더니 안 처지고 따라 붙는 것이 아닌가. 형들도 좋아라 한다. 굴곡이 적은 산이지만 애들이 너무 잘 따라 주어 기뻐다. 한참 가는데 형들이 안보여 대기하고 좀 기다리니 더덕을 췌다며 주는데 무슨 맛인지 원.. 나중에 더덕주로 먹으니 향기가 카~, 죽인다. 오늘의 막영지인 조침령에 도착하니 너무 빨리 와 이른 시간이어서 쇠나드리까지 가기로 하고 다시 출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서 능선이 군 도로로 인해 끊긴다는 것이다. 도로를 따라 조금만 내려가면 왼쪽으로 표식기가 있고 능선으로 붙을 수 있다. 할아버지 세 분만 계시는 쇠나드리에서 보급자리를 폈다. 저녁은 할아버지가 주신 달걀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39기 함경준】

오늘 산행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배낭이 가벼웠다. 밤의 고요함이 너무 좋다. 비가 오고 있지 않았다. 땀이 비오듯 했다.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난다. ‘잔잔한 산행’ 카 ...! 오늘 막영은 쇠나드리이다. 더덕이라는 게 많이 있었다. 맛은 씹쓸하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 왔다. 뭐 술 담그면 좋구나. 아침에 일어 나는 것이 너무 힘이 든다. 내가 만약 조장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 내년에 조장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

7월15일

05:00 기상 → 07:20 출발 → 13:30 점심 → 19:40 갈전곡봉 막영

【조장 진용훈】

아침에 쇠나드리 사거리까지 오르며 힘을 써서일까? 아침부터 왼쪽 무릎에 통증이 밀려왔다. 진통제를 먹었지만 1-2시간뿐이다. 이를 악물고 오른발로만 걷지만 역시 금방 지친다. 오르막길은 어떻게 가겠지만 내리막길에선 완전히 취약이다. 몇 번이나 신음소리를 삼키며 몰래 인상을 구겨야 했다. 속세에서 운동이나 하고 올걸. 겨우 배낭하나 못이기는 내 무릎. 이 다리로 남은 하계를 이겨낼 수 있을까? 1학년 때면 엄살이라도 부릴만 했지만, 조장의 신분이 그걸 거부한다.

갈전곡봉 아래 안부에서 타대 산악부를 만났다. 서울팀이다. 인사를 나누고 갈전곡봉을 향해 출발. 정상에 넘어설 때쯤 캄캄한 어둠과 번개와 함께 장대비가 우리를 잡는다. 내리막길이라 여러 번 굴러야 했고 끝내는 다시 back, 막영을 했다. 물이 없어 밥은 못하고 깨죽으로나마 허기를 채웠다. 애들은 더 이상 가지 않고 텐트 안에서 장대비소리를 들으며 밥도 안하니 좋은가 보다. 맨담(맨소래담의 준말)으로 무릎마사지를 했다. 시원한 게 내일이 기대가 된다. 내일은 OB규성이형이 오는 날. 구룡령에서 예비일이다.

【39기 함경준】

쇠나드리에서 갈전곡봉까지 산행이었다. 비가 와서는 컨디션이 매우 좋다. 비에 관한 나의 관심이 어느 때부터인가 고조되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그날은 별로 가고픈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때는 너무 힘이 들었다. 자기 전에 무조건 내일은 비가 오도록 빌고 또 빌고 한다. 내가 너무 낭만적이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없지 않다.

7월16일

09:00 기상 → 12:00 구룡령 막영(예비일)

【조장 진용훈】

예비일이라 9시 다되어 기상하여 출발. 조금 못미처에서 점심(라면)을 먹고 도착한 구룡령에는 휴게소는 없고 간이 매점만 북적였다. 가스가 밀려와 한치 앞도 안보이는 게 장관이다. 매점에서 동동주와 파전을 먹으며 들여다 본 신문에 놀라운 기사가 있었다. 현재형의 브로드피크 정상등정 후 실족사라는 기사다. 연맹에서 자주 본 형이 죽었다니 믿기지 않는다. 그래도 자신이 좋아한 하얀산에서 잠드셨으니 마음이야 행복하시겠지.

저녁에는 오랜만에 속세의 음식(수박, 음료수, 고기)으로 위가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39기 함경준】

이날은 기록장에 기록을 안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가없다. 그냥 구룡령이라고만 적어 뒀을 뿐이다. 그러니까 막영을 구룡령에서 했다는 말이겠지. 지금쯤 다른 조들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우리 동기들이 보고 싶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하계 내내 생각을 해보고 싶다. 그냥 심심하니까. 그것은 아니겠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7월17일

06:00 기상 → 07:00 출발 → 12:30 응복산 → 17:30 신배령 막영

【조장 진용훈】

엄청나다. 동계다. 출발부터 길을 뚫으며 젖은 몸 위로 가공할 한파가 몰아친다. 하계 중 가장 추운 날씨다. 약수산 넘어서부터는 앞도 안보고 오직 발길만 재촉했다. 가다 평탄한 곳에서 휘발유로 불을 피우려 했지만 조금 불다가 꺼진다. 오히려 휴식하는 동안 몸이 더 얼어붙어 빨리 출발해야만 했다.

12시 30분 정상에 삼각점이 있는 응복산(鷹伏山)에 도착했다. 이 산은 진드기로 유명한 산이라 겁먹은 양숙이 누나를 선두로 뒤도 안돌아 보고 돌파. 날은 점점 추워지고 현성 형은 더 이상의 윤행은 안된다 생각하시고 막영을 지시하신다.

정말 여름에도 얼어죽는다는 말이 실감나는 하루였다.

【39기 함경준】

저녁에 장민이형의 사고가 났다.

7월18일

05:00 기상 → 07:30 출발 → 13:30 동대산 → 14:00 진고개(예비일)

【조장 진용훈】

어제 추위는 온데간데없고 맑은 날씨다. 땀흘리며 도착한 동대산에서 강릉대팀을 만났다. 진고개에서 시작해 설악으로 들어간단다. 94학번이 두 명이나 있어 무척 반갑다. 다시 만날 것 기약하며 30분만에 진고개 도착. 또 예비일을 가졌다. 여태 3번 가졌는데 그때마다 맑은 날씨다. 너무 행운이 따른다. 현성이 형은 대장이 덕이 있어 그렇다지만 난 조장이 덕이 많아 그럴 거라 속으로 생각한 다.

【39기 함경준】

막영지를 기록하려고 하는 데도 여기가 어디쯤인가 알지 못하여 기록이 힘들다. 오대산 근처가 아닌가 한다. 오랜만에 집에 전화했다. 처음부터 불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하고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데 정말이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아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할까 정말로 망설여진다. 그냥 말하고 집에 갈까. 그래 꼭 집에 가야겠다. 꼭 가야지. 아니다. 오늘 막영지가 진고개이다. 내일 갈 곳이 대관령이니까 집에 가기 쉽겠지. 그럼 내일을 위해. 집에 가는 날을 위해 자야지.

7월19일

04:00 기상 → 06:00 출발 → 08:00 노인봉 정상 → 10:00 점심 → 12:00 소항병산 → 18:030 막영

【조장 진용훈】

현성형이 오늘 대관령에 도착하면 내일 하루 또 예비일 한단다. 애들이 너무 좋아라 하지만 과연 갈 수 있을까 거리도 있지만 독도가 어렵기로 소문난 대관령목장인데, 여태 쌓아 온 내 독도실력으로 멋지게 돌파해 봐야지.

하지만 처음부터 독도에 차질이 생겼다. 지도가 애매해 노인봉 정상 너머 소금강으로 내려갈 뻔했다. 한참 헤매다 겨우 노인봉산장 도착. 말로만 듣던 성량수씨를 뵈 수 있었다. 수염이 멋있다. 나도 나이 먹으면 아담한 산장하나 짓고 산장지기나 해봤으면... 11시 점심을 먹고 판초를 뒤집어쓰고 출발(아! 부러운 오버 트라우저).

추워서 무작정 길 따라 오르다 보니 소항병산이라는 뜻말이 보인다. 입이 떡 벌어진다. 정상에

길이 있고 너무 완만해 산이 아니라 평지 같다. 개스 때문에 위치파악도 안된다. 도대체 어느 능선이 주능선인지 끝내 길을 잃고 삼양1목장이라는 곳에 들어가 길을 묻고 차가운 몸을 녹이고 3시 다시 출발. 이번엔 단단히 마음먹고 방위각을 맞춰 나아갔다. 30분간 나침반에 의지해 나아가니 다시 목장이 보인다. 어 이상하다. 2목장인가? 이런.... 가까이 가서 보니 아까 출발한 1목장이다. 방위각이 조금씩 틀려진 것이다. 어이하나? 그래도 삼양목장은 아름다웠다. 커다란 눈을 더 키우고 이방인을 맞이하는 젖소들과 동화 같은 목장들 푸른 초원. 물론 천지에 널려 있는 소똥까지도. 찰칵하고 다시 출발.

대관령 휴게소는 보이지 않고 어둠은 우리를 붙들여 맨다. 빈집에서 막영.

【39기 함경준】

원래 진고개부터 대관령까지 이들이 걸리는 예정이었는데, 빨리 가서 쉬는 쪽으로 기울어져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 기상시간이 네시, 출발시간이 여섯시였다. 노인봉을 거쳐서 열심히 걸었다. 노인봉 산장에 도착하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예 점심을 먹고 출발하려고 했다. 출발하려니까 다른대학 팀이 왔다. 그들 말로는 자기들은 길이 많아서 찾기 힘들다고 했다. 우리는 그들이 멍청하다고 하며 출발했다. 막상 가보니 길이 많아서 길 찾기가 쉽지 않았다. 계속 열심히 걸었다. 가도 가도 허허벌판으로 목장이라는 게 실감이 났다. 대관령 목장에서 쉬다가 아예 그곳에서 자려고 했는데 그곳 사람이 잘 수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출발했다. 빨리 대관령에 도착해야 집에 전화라도 할텐데 걱정이 태산이다. 길을 못찾아서 폐가를 발견해서 그곳에서 자기로 했다. 잠자리는 너무 좋다. 바람도 안 불고 따뜻했지만 걱정이 너무 된다. 장작을 태워서 옷을 말리고, 편안한 밤이다. 빨리 대관령까지 갔으면 한다.

7월20일

05:20 기상 → 08:20 출발 → 14:00 대관령(大關嶺), 예비일

【조장 진용훈】

아침부터 길을 못 찾아 해맸다. 표식기를 따라 가다 또 back을 해야 했다. 역시 나의 지도와 컴퍼스를 믿어야겠다. 5번이나 back을 해서야 길목에 있는 초지를 찾을 수 있었다. 한참 가니 통신기지가 보이고 대관령이 저 멀리에서 반긴다. 반나절 길을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허비해서야 겨우 벗어난 것이다. 뭔가 해냈다는 것에 너무 기쁘고. 힘이 솟았다. 대관령 휴게소 도착. 또 반나절 예비일. 현성형과 양숙이누나가 강릉으로 나간 사이 우린 과자를 먹고 낮잠을 아주 기분 좋게 청했다.

지도를 보니 집결지인 두타산이 코앞이다.(물론 지도가 앞에 있으니). 몸살에 걸린 것 같다.

【39기 함경준】

몇 시간을 해냈는지 모른다. 온 길을 또 가고 한 것이 한 세 번은 될까. 길이 많고 현위치 파악이

힘들었다. 그러다가 열 한시 경에 드디어 길을 찾았다. 와! 너무 기뻐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대관령까지 가기만 하면 오늘은 휴식이라고 해서 더욱 열심히 걸었다. 이런 드디어 대관령이 보였다. 그 희열, 그 기쁨을 누가 알까? 두시 반쯤 되었다.

막영은 준공기념비 앞에서 했다. 잔디라서 폭신평신했다. 집에서는 아버지가 괜찮다고 해서 안심이었다.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는 조마조마 했는데 다행이다.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다. 배가 불렀다. 집에 가고픈데 뭐 핑계 거리가 없다. 집에 가고 싶다. 따뜻한 방에서 편한 밤을 보내고 싶다.

7월21일

05:05 기상 → 08:20 출발 → 14:30 고루포기산 → 18:15 닭목재 막영

【조장 진용훈】

산행준비가 늦어서 한따까리하고 출발. 어제의 몸살 때문에 몸이 영 아니다. 능경봉을 지나 무거운 발을 들어 도착한 고루포기산(1238m)산에서는 개의 소리가 우릴 반기고 있었다. 어이가 없다. 갓은 고생하여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기는커녕, 여기까지 사람이 올라와 살고 있는 것이다.

오후가 되자 또 무릎의 통증이 밀려온다. 하루도 안 거르고 3시만 되면 아파오는 통증에 거의 미칠 것 같다. 오직 전진뿐이다. 매지분교에서 모닥불에 감자도 구워 먹고 무사히 하루를 마감한다.

【39기 함경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대장님이 일출을 본다고 설쳐댔다. 잠이 와서 죽겠는데. 일출은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달랐다. 그냥 환해지고 바로 떠 버렸다. 일출 직전 시간이 안가는데 문제지만. 별로 멋을 느끼지 못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벌써 며칠 켜인가. 산행이 익숙해져서 그다지 힘들지는 않았다. 단지 조장님이 무릎이 조금 아파서 걱정이다. 닭목재에서 막영을 했는데 조장님이 피곤하다고 먼저 잠을 잤다. 폐교가 된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막영했는데 아담하고 마치 내가 다니던 섬에 있는 학교와 같았다. 날씨는 더웠다. 그리고 감자를 파 와서 삶아 먹었다. 굉장히 맛있었다. 감자를 많이 캐서 가져가자고 하는 의견도 있다. 아! 내 삶에 회의가 느껴진다.

7월22일

05:00 기상 → 07:30 출발 → 09:30 화란봉 → 11:00 점심 → 20:10 삼답령 막영

【조장 진용훈】

일어나니 땀에 몸이 폭 젖어 있다. 어제 일찍 잔 덕분에 몸살은 다 나았다. 날씨도 맑고 상쾌한 날이다. 화란봉길을 물어 물어 올라갔지만 처음부터 뚫기만 했다. 겨우 도착했다고 생각한 봉은 표식만 있지 삼각점은 없었다. 그 뒤부터는 또 애매한 능선이다. 뽀까뽀까한 능선이 사방에 있다. 사

방에 미로처럼 표식기가 하나둘 있고 능선자체가 너무 애매해 back과 길 뚫기를 예사로 해야 했다. 지도를 보면 현 위치인 왕산리봉은 정상이 정사각형으로 정상부분이 너무 완만하고 넓은 희안한 봉이다. 해마다 치쳐 11시에 점심을 먹고 2시까지 낮잠을 잤다. 나무 위에서 본 마을로 떨어지기로 결정하고 난 방위각으로 직선으로 뚫고 내려갔다. 고랭지 채소를 주업으로 하는 가르쟁이라는 마을이다. 몰래 당근을 캐 먹으며 2시간 마을길을 걸어 다시 능선으로 붙었다. 그리고 삼당령에 도착하니 8시10분. 도로 따라 200m밖에 있는 기도원에서 막영. 오랜만에 방바닥에서 이불 덮고 자니 다들 좋아 죽는다.

【39기 함경준】

속세에 관한 모든 것을 잊어 버렸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 이제는 신경쓰지 않는다. 아침부터 비가 올 뻔했는데 끝내는 비가 오지 않았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오늘도 점심을 먹고 나니 벌써 막영을 했다. 밤에 감자를 삶아 먹고, 이제는 산행을 시작하면 아무 느낌이 들이 않는다. 이런 말은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내년에 조장이 된다면 절대로 후배에게 미움을 받지 않게 노력에 노력을 할 것이다.

삼당령에서 막영을 했다. 여덟 시 이십분경. 교회 수련원에서 그것도 방안에서 너무 편하다. 역시 대장을 하려면은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오늘 절실히 느꼈다. back을 하려면 확실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나도 그러한 결단력을 가졌으면 ….

7월23일

05:10 기상 → 07:30 출발 → 11:00 석병산 → 12:00 점심 → 18:30 피원마을 막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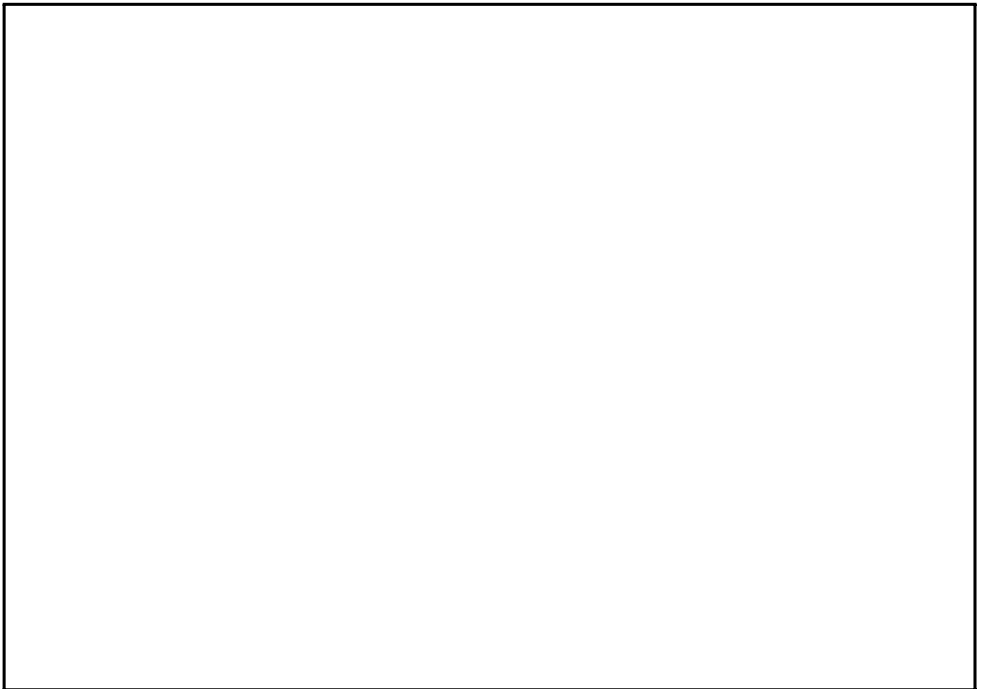
【조장 진용훈】

오랜만에 계곡물에 세수를 했다. 9일만이다. 산행이 이틀 남아서인지 애들이 점점 생기가 돌고 힘을 낸다. 나도 몸이 가벼워 금방이라도 앞에 있는 두리봉에 도착할 것 같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1시간이나 피약벌에 땀으로 목욕해서 도착했다. 다시 11시50분 석병산에 도착. 40분 가량 내려온 안부에서 점심 준비하는데 한 때의 아저씨들이 반대방향에서 몰려왔다. 부산 금오산악회인데 백두대간을 구간종주중이란단다. 그때 아저씨가 준 반쪽의 단팥빵의 맛에 기절. 아저씨들이 내일 코스인 자병산으로 가지 마라고 한다. 그 도중에 물이 능선을 끊는 곳이 있다고 하며, 그 밑에 있는 작은 능선으로 가야 진짜 물을 안 건너는 대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사실인지는 내일 알 수 있겠지.

900고지 다음부터는 엄청난 잡목과 가시나무지대였다. 생계령 앞 고지에서 길을 찾는데 갑자기 굵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결국 아래에 있는 큰피원마을로 떨어져 막영. 현성형이 4년 전에도 여기로 떨어졌다나. 우린 마을에서 과자를 사다가 포식할 수 있었다. 특히 맛동산은 우리 조원 모두가 환장하는 과자다. 단 경환이만 빼고.(‘산’자가 들어가 싫단다) 폐가의 따뜻한 온돌방에서 두타산에서 만날 B조, C조 애들을 생각해 본다..

【39기 함경준】

원래는 백봉령 막영을 하려다가 피원에서 막영을 했다.오늘은 비가오지 않았다. 경환이는 좋다고 열심히 갔다. 하계를 같이 오게 된 계기로 해서 경환이하고 많이 친해졌다. 너무 재미있는 친구다. 우리조의 웃음을 가져다주는 좋은 역할을 한다. 배낭이 아침에는 너무 무거웠다. 짐을 많이 넣어서 완전히 퍼져 버리는 줄 알았다. 점심을 먹고 나니 배낭이 굉장히 가벼워짐을 느꼈다.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 오늘도 하루가 가는군.



⊕ 산행 중 만난 금오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

7월24일

05:30 기상 → 07:40 출발 → 16:00 점심 → 19:00 원방재 막영

【조장 진용훈】

5시에 기상했지만 현성형 지시로 30분 더 잤다. 마을을 벗어나 42번 국도로 나서니 공사중인 백봉령 휴게소가 있고 구멍가게가 있다. 또 과자로 포식하고 국도를 따라 출발 1시간 가니 간이매점이 줄지어 있다. 참새조원들이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라. 막걸리와 고기안주를 집어넣으니 배가 빵빵하다. 날씨가 좋다고 했더니 아줌마가 어제 태풍이 왔단다. 어제는 소나기만 왔는데. 훨씬 남쪽에 있는 다른 조 애들이 걱정된다. 덕분에 4시가 되어서야 점심을 먹었다.

백봉령까지 도로 구보를 하고 올라가니 애들이 일그러진다. 987봉 다음부터는 심한 잡목과 초지

가 우릴 가로막는다. 몇 번 back을 하며 7시 원방재 도착. 내일이면 두타산이다. 애들아 힘내자 A조 화이팅!

【39기 함경준】

원방재에서 막영. 여섯 시경에 출발.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도로를 조금 건다가 막걸리와 옥수수를 아주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그렇게 먹여 놓고는 도로 구보를 시키는 것이었다. 힘들었다. 외로움이 앞을 가린다. 외로움…. 나만의 고민이 너무도 많다. 여러 가지로. 우리 가족들이 보고 싶다. 지금쯤 고생하시고 계시는 부모님, 동생, 형, 누나. 특히 누나가 보고 싶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확실히 고생을 해야지 사람이 된다고 했다. 나도 사람이 되려나.

아! 재미없는 산행이 계속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먹고 가고 또 점심먹고 가고, 재미없어. 그나저나 내일이면 산행이 끝나는데 우리 동기들은 도망이나 가지 않았는지. 빨리 만나 봐야지. 내일은 더욱 열심히 가야지

7월25일

05:00 기상 → 07:10 출발 → 11:40 이기령 점심 → 18:00 고적대 → 19:30 청옥산 → 21:00 두타산

【조장 진용훈】

원방재부터 이기령까지는 도로가 있지만 우린 능선을 고집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길을 잃었다. 여러 번 back과 길을 뚫어 지도상으로 1시간 거리를 3시간 반이 걸려서야 이기령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끝내는 도로로 떨어져 걸었다.

점심과 낮잠 후, 2시30분 이기령 출발. 1142봉은 계속 옆으로 트래버스하다 능선을 타면 된다. 1시간 가량 정신없이 오르니 갑자기 눈앞이 환해진다. 순간 고적대임을 안 나는 얼른 정치를 하여 저 멀리 청옥산과 두타산이 보인다. 감격의 순간이었다. 고적대 다음부터는 조금 위험한 릿지길이 나타나지만 문제없다. 연철성령에 도착하니 도립공원답게 이정표가 세워져 있다. 신나게 걸어 청옥산에 도착하니 뒤의 형들이 안 보인다. 우리가 너무 빨리 올라온 것이다. 요것들이 얼른 두타산에 가고 싶은가 보다. 여기서 만난 등산객이 우리에게 전대 팀이냐고 물어 왔다. 두타산 정상에서 다른 전대 팀이 먼저 와 있단다. 머리 긴 여자가 있다 하니 수연이 조가 분명하다. 그리곤 우린 1시간 30분 후, 그리운 에코와 함께 C조와 포옹을 했다.

순간순간 너무 고통스런 산행이었지만 끝나고 난 지금 생각하면 지금까지 산행 중 가장 멋진 추억에 남는 산행이었다.

【39기 함경준】

점심을 일찍 먹었다. 이기령에서 길을 잃어 버려서 한시간을 헤맸다. 독도를 잘못해서였다. 독도의 중요성을 알았다. 마지막이라서인지 마음이 편했다. 웬지 허전함이 감도는 하루다.

청옥산을 올라 체는데 한 이십 분이나 걸렸다. 경환이가 완전히 정신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 너무 잘 올랐다. 밤늦게 도착했다. 두타산 정상 하늘의 별이 잡힐 것 같은 아쉬움과 함께. 벌써 끝났나? 앞으로 산행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다. 한 여름이었지만 쌀쌀한 날씨였다.

밤에 잠자는데 텐트가 아주 말뽕이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내일부터는 조금 쉽겠지. 그런데 동기들을 만났는데 반갑다고 해야 하는데 별로 그러한 느낌이 없다. 앞으로 동기산행을 해서 동기들과 친해지고 싶다.

7월 26일

【조장 진용훈】

BC 첫 날이다. 덕분에 아침부터 원없이 잠을 잤다. 일출을 배경으로 사진찍고, 또 자고. 나중에는 잠이 안와도 누워 있었다. 지난 이십여 일이 이미 현재가 아닌 과거가 되버렸다. 더 지나면 추억이 될 것이다. 내게 별 의미가 없던 「백두대간」이라는 단어가 직접 종주하며 부대끼니 미운정 고은정 다 들어버렸다. 언젠가는 남은 구간을 마저 채워야지.

아직 C조가 도착하지 않아 먼저 무릉계곡으로 BC를 옮겼다. 내일의 망상해수욕장을 생각하니 힘이 솟는다.

밤 아홉 시가 넘어 C조가 도착해 반가운 해후를 했다.

7월 27일

【조장 진용훈】

망상해수욕장의 꿈이 깨졌다. 어제부터 뜨거운 날이 계속되 무릉계곡에서 그냥 놀자는 것이다. 하계동안의 계속된 추위와 싸우면서 오랜만에 아름다운 날씨가 되니 계곡에 뛰어들어 혹시 몸에 아직까지 붙어있을 지도 모르는 진드기를 다 씻어버리고 싶다.

7월 28일

【조장 진용훈】

드디어 하산이다. 내가 조장으로서 잘했다기 보다는 우리 39기들(똥, 경준)이 말 잘 듣고, 열심히 해 준 것 같다. 고맙다 애들아.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현성이 형, 장민이 형, 양숙이 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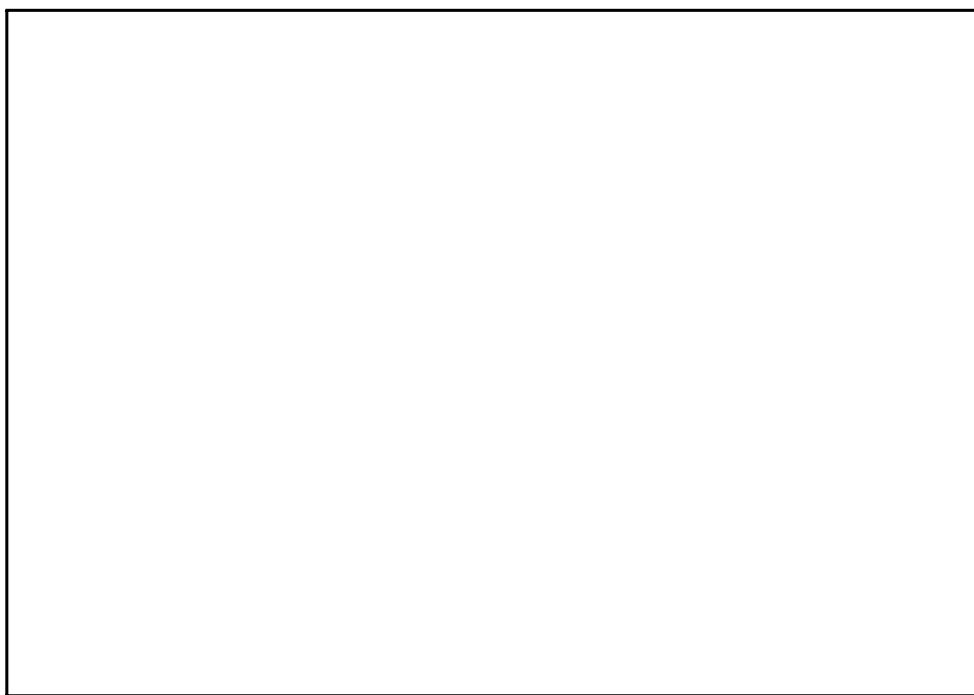
A조 화이팅!

【39기 함경준】

하계 보고서를 마쳤다. 뭐라고 할까 지금도 허전함 그 자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기억

이 많이 떠오른다. 어떤 선배님 말씀이 하계 하나만 가지고 십 년은 우려먹을 것이라고 하계 뒤풀이 때 말씀 하신 것이 생각이 난다. 맞는 말씀이다. 누구는 그때 어땠다고 하면서 지금 동기들을 만나면 하계 말을 꺼낸다. 재미있는 산행이었다.

집에 오니까 좋았다. 와 편안하다. 텐트도 안치고 아침에 밥도 안하고 너무 좋다. 하계 때 일출을 두 번 보았다. 그 중 두타산에서의 일출이 기억에 남는다. 정상에서의 일출은 내가 이세상의 중심이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했다. 정상을 중심으로 하늘 전체가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또 커다란 원이 하늘에 있었다. 이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직접 봐야지. 하계가 나에게 준 것이 있다면 자신감이라고 할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은 별로지만 그 느낌은 잊을 수 없지만... 하계를 또 한번 가보고 싶다.



◆ 김결지인 두타산 무릉계곡에서 모두 모여서 ◆

'95 하계장기등반(B조)

- 대 원 : 34기 최 지 환
 38기 천 옥 량
 39기 임 도 균
 39기 김 현 준
 39기 이 형 관 이상 5명
- 코 스 : 속리산 ~ 두타산

기록자 : 38기 천옥량, 39기 임도균, 김현준, 이형관

7월 7일 금요일 비

발대식(11:00) → 광주 출발(14:40) → 청주(17:40) → 괴산(19:30) → 음성(20:05) → 충주(20:45)

【조장 천옥량】

하계 첫날을 텐트가 아닌 곳에서 보내니 기분이 좋다. 일 학년 애들은 말을 참 잘 듣는다. 산행을 아직 안해서 그런가 보다. C조의 천중이가 걱정돼서 전화연락을 해보는데 행방이 묘연하다. 하루종일 차만 댔는데도 피곤하다. 청주 사람들은 귀빈래라는 마을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단다. 놀재라는 곳도.

【39기 임도균】

버스를 많이 타고 잤다. 청주에서 괴산으로, 괴산에서 음성으로 다시 충주로. 여관에서 잤다. 계속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집에 전화했는데 그렇게 야단치지 않았다. 신체검사가 걱정된다.

7월 8일 토요일 계속 비

기상(06:00) → 출발(09:05) → 가은(10:50) → 벌바위(14:00) → 장성봉 초입에서 막영(16:00)

【조장 천옥량】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텐트를 그리워하며 일찍 잠에서 깼다. 1학년들은 수가 다른 조보다 한 명 더 많아서인지 알아서들 잘 한다.

일찍 가은으로 갔지만 거기선 2시간 30분이나 기다려야 했다. 벌바위로 와서 약 3Km도로를 타고 올라와서 장성봉 초입에 막영을 했다. 지금까지는 이틀째인데도 산이 멀리 있는 것만 같아서 조금은 불안했는데 이제야 편해진다.

7월 9일 일요일 맑다가 밤에 비

기상(06:00) → 출발(07:45) → 장성봉(10:00) → 점심(13:30) → 계곡막영(18:00)

【조장 전옥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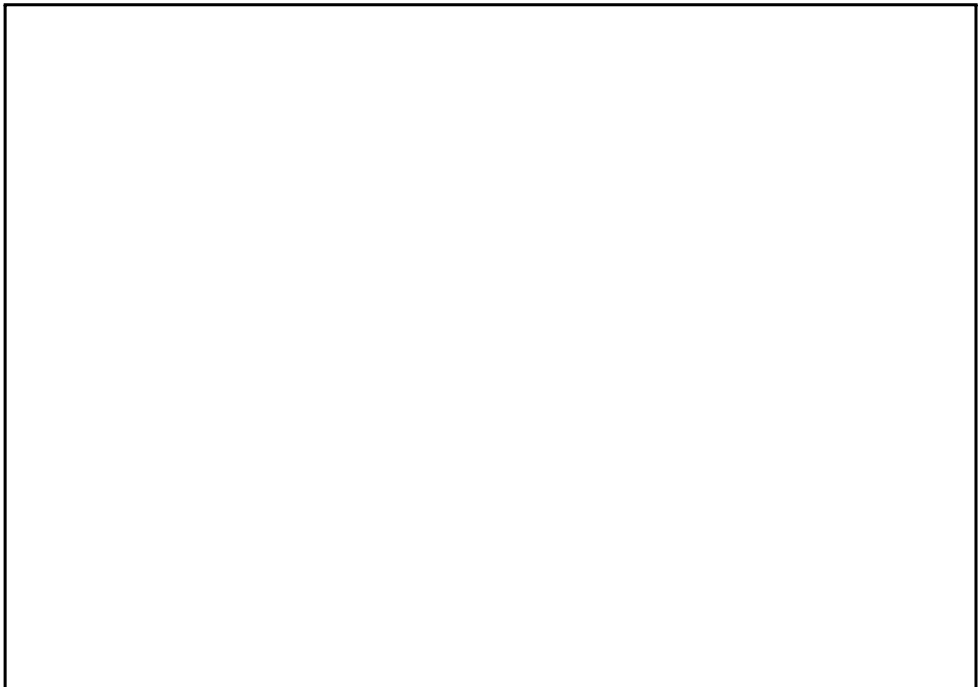
산에서의 처음 아침이지만 애들은 생각보다 준비를 빨리 한다. 올라가는 길이 힘들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도균이의 속도가 늦어진다. 장성봉에서 은치재까지 가는 도중에 길이 약간 회미해진다. 그래도 길이 꺾어진 곳을 지났으니 방위각이 맞다고 생각하며 갔는데, 지환형은 아직 꺾어지기 전이라 길이 틀렸다고 한다.

나무가 없는 곳으로 나오니 아래쪽에 지도에도 없는 암자가 보인다. 거기를 목표로 갔는데, 훨씬 오른쪽 계곡으로 떨어졌다. 계곡을 타고 내려가니 암자가 나온다. 스님이 한 분 계셨다. 우리에게 커피도 끓여 주고 과자도 주신다. 근데 말을 하질 않는다. 도균이 말로는 그런 기간이 있단다. 계곡이 만나는 곳에서 올라가면 은치재인데 난 긴가민가해서 계곡을 건너갔다. 뒤에 오는 지환형이 한참 가서야 그걸 말해 준다. 결국 우리는 은치재 오른쪽에서 막영을 했다.

【39기 임도균】

날짜가 진짜 안 간다. 너무너무 힘든 하루였다., 처음에 올라갈 때 넘어올 것 같아서 엄청 힘들었다. 내 것을 많이 빼도 너무 힘들다. 앞으로 남은 날이 막막하다. 어떻게 지낼 것인지. 어떤 암자에서 스님을 만났다. 말이 없었다. 목욕을 했다. 시원했다. 그리고 몰래 물을 훔쳐먹었지만 안 들키려고 너무 빨리 먹는 틈에 물맛도 음미하지 못하고 물을 먹어 버렸다.

현준이가 고맙다. 쏘가리도 그렇다. 현준이가 간다고 한다. 걱정이 된다. 괜히 왔다. 지리도 모르니 도망칠 수도 없고.



7월10일 월요일 엄청난 비

출발(10:00) - 은치마을(13:00) - 이화령(18:00)

【조장 전옥량】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온다.

백화산을 지나기엔 날씨 때문에 더욱 위험하니 마을로 떨어지자고 지환형을 꼬셨다. 지환형은 꼭 백화산을 가보고 싶다고 하며 비를 맞으며 출발 준비를 시킨다. 출발을 하니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번개도 친다. 능선에 도착. 갑자기 지환형이 아래쪽으로 막 내려오더니 “그냥 반대편으로 넘어가자”고 한다. 바로 옆으로 벼락이 떨어졌단다. 위험하니 내려가서 이화령으로 가잔다. 그때 우리들 표정이 월드컵에서 한 골 넣은 사람 같았다.

마을로 떨어졌지만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발바닥이 너무 아프다. 마을에서 도로로 올라채기 위해 길을 뚫으면서 가니 풀독이 올랐는지 뭐가 막 난다. 도균이는 길가에 누워 버린다. 차가 지나가니 이제까지 과묵하던 형관이 막 달려나간다. 우린 이화령 도로 옆에서 막영을 했다.

【39기 임도균】

비가 엄청 왔다.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원래는 출발을 안하려고 했지만 지환이 형이 출발하자고 했다. 정말 가기 싫었으나 어쩔 수 없었다. 올라가는 데는 엄청나게 힘들었다. 비가 와서 물걱정은 없었지만 능선에 올라서는 순간 벼락이 쳤기 때문에 그냥 이화령으로 향했다. 고추도 따고, 산딸기도 먹고, 오이도 먹었다.

엄청 걸어서 길을 뚫고 나서 도로에 도착해서 몇 번의 실패 끝에 트럭을 타고 이화령에 도착했다. 정말 고마웠다. 이화령에 도착해서 Tent를 쳤는데, 맞은편 군 초소에서 군인들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다. 훈련 중이니 Tent를 걷으라고. 못 들은 체 했더니 끝내는 우리 있는데 까지 와서 말했다. 결국은 자리를 딴 데로 옮겼다.

휴게소에서 따까리를 하면서 형관이 음료수를 훔쳐서 맛있게 먹었다. 형관이 실력을 썩히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내일 조령산 올라갈 일을 생각하니 너무나 끔찍하다. 아! 집도 그림고, 가족도 그림고, TV도 그림다.

7월 11일 화요일 여전히 비

기상(05:00) - 출발(07:30) - 조령산(10:00) - 조령삼관문(18:15) - 야영장 막영(19:00)

【조장 전옥량】

오늘은 무척이나 살벌한 날이다. 철없는 조장인 나도 거기에 한 몫을 더했으니 지환형만 심각하다. 조령산에 올라가니 고도가 1000이 넘어가서인지 조금만 앉아 있었는데 춥다. 일 학년들도 빨리 가잔다. 조령삼관문(鳥嶺三關門)까지는 길이 몹시 험하다. 그래서 지루하기까지 했다.

조령삼관문은 작년하고 달라진 게 없었다. 약수물의 시원함도 여전하다. 발을 담그니 오늘 하루의 긴장이 풀어지는 듯 하다.

【95 임도군】

비가 계속 온다. 가기가 싫다. 꾸물거리다 출발시간이 30분이나 늦었다. 지환이 형이 엄청 화가 난 것 같다. 지환이 형은 조장이 여자여서 우리가 조장을 무시한다며 두고 보자고 했다. 오늘은 자기가 조장을 한다고 했다. 지환이형, 다음에 나, 현준이, 쏘가리, 옥랑이 누나 순으로 뒤따라오라고 했다. 5m만 떨어져도 작살낸다고 했다. 처음 계단만 올라가도 미쳐 버릴 것 같았다. 계속 쳐졌다. 올라가는 중에 허리를 굽히고 많이 쉬었다. 엄청나게 쉬지도 않고 올라가서 나는 이제는 쉴 줄 알았지만 쉬지도 않고 그냥 계속 갔다. 힘들었다. 지환이형은 말이 없다.

조령산 정상에 도착해서 이제 조령3관문까지는 내리막 길에 대부분이겠구나 생각했으나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곧 느낄 수 있었다. 완전히 깎아지른 절벽에 거의 90도 가까운 경사 때문에 고생했다. 오르막길 오를 때는 정말 미쳐 버릴 것 같았다. 현준이가 내리막길 때 바위에서 너무 겁을 먹어서 지환이 형에게 야단을 많이 들었다. 현준이의 표정이 너무도 불쌍하다. 괜히 나 때문에 와서 고생하는 것 같다.

지환이 형은 오후 간식을 먹을 때까지 말이 없다.

내리막길에서 잡목에 걸려서 현준이와 쏘가리의 휘발유통1개가 각각 떨어져서 절벽으로 굴러 버렸지만 내 것은 이상이 없었다. 무려 1-2kg에 육박하는 무게를 떨어 버린 그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갔는지도 모른다. 이제 조령3관문이란다. 지환이형이 한참을 돌아다니더니 배낭을 다시 매라고 했다. 순간 쓰러져 버릴 것 같았다. 그러나 조금 내려가서 야영장 야외무대에 텐트를 쳤다. 지환이 형이 만원을 주면서 마을에 내려가서 고기를 사 오라고 했다. 한참을 내려가서야 휴게소가 나왔다. 비싸기만 오지게 비쌌다. 돌아와 보니 이미 깜깜했다. 내일은 예비일이다. 날씨가 맑아야 하루종일 쉼텐데 날씨가 제발 맑아 나오!

그런데 조령산 내리막길에 현준이를 잡으려다 미끄러져서 다리를 조금 많이 다쳤다. 쓰립다. 집에 가고 싶다. 한 마리의 파리가 되어 굶이쳐진 능선을 날아가고 싶다.

7월12일 수요일 흐림

출발(16:00) - 마역봉(18:00) - 성터막영(20:00)

【조장 전옥랑】

아침에 일어나서 빨래하고, 잠자고.... 예비일이다.

오후에 관리공단 아저씨가 우리가 텐트 친 장소는 야외무대라며 철수를 하란다. 그래서 그냥 마역봉까지 산행을 하기로 했다. 마역봉을 지나 조금 내려가니 성터가 나온다. 돌을 1시간이 넘게 평평하게 고르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깔고 막영을 했다. 울퉁불퉁하지만 그것도 재미있다.

[39기 입도균]

예비일 하다가 성적이 낮은 문경새재(鳥嶺) 관리공단 아저씨가 와서 텐트를 걷으라고 해서 한참 후에 철거하고 마역봉을 향해 올라갔다. 그런데 누가 마역봉이 아닌데도 표지판을 붙여 놔서 잠시 착각을 했다. 쌀1개, 소금1봉지, 김치1개를 몰래, 그야말로 동기들도 모르게 버렸다. 배낭을 매 보니 엄청나게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었다. 쌀 1개, 김치 1개가 나갔으니 배낭은 더욱 가벼워질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배낭싸는 게 엄청나게 귀찮다. 현준이가 불쌍하다. 표정도 그렇고. 내가 잘못해서 데려온 느낌이 든다.

7월 13일 목요일 소나기

출발(08:00) → 부봉(09:00) → 하늘재(13:30) → 막영(15:00)

[조장 전옥량]

부봉을 트래버스해서 하늘재까지 가는 길은 재미있었다. 그곳에서 점심을 먹고 포암산을 올라 채느냐 마느냐로 지환형은 고민이시다. 그러다 포암산을 올라 채면 막영지가 적당치 않을 것 같으며 하늘재에서 막영하자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신다. 39기 두 명을 마을에 심부름을 보냈다. 도균이가 집에 전화를 했는지 신검 때문에 18일까지 내려가야 한단다.

상지대 팀을 만났다. 둘이서 백두대간 종주를 하는데 일 학년 애들이 대단하다는 듯한 눈빛이다.

[39기 입도균]

마역봉 성터에서 막영을 하고 포암산을 향하여 출발했다. 짐을 버려서 그런지 배낭이 무척 가볍게 느껴졌다.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지만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무척 힘들었다. 도중에 옥량이 누나가 길을 잘못 들어서 back을 했는데 힘도 들고 화도 났다. 다리의 상처가 군데군데 고름이 들어서 나뭇가지를 거칠 때마다 엄청 아프다.

하늘재에서 라면을 먹고 바로 포암산으로 출발하려 했지만, 그냥 하늘재에서 막영을 했다. 마을에 내려가서 고기와 통조림 등을 사 와서 먹었다. 전화를 거니까 신체검사를 받으려면 늦어도 18일까지 와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16일 죽령에서 먼저 광주로 내려가게 될 것 같다. 지환이 형도 보내 준다고 했으나 진짜로 순순히 보내 줄 지 의문이다. 그러나 나는 가야만 한다. 대신 현준이가 인질로 잡혀 있게 된다. 집에 가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것이 뻔하다. 아니 아마 맞아 죽을 지도 모른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나와 쏘가리가 저서 설거지하러 가는데 또 미끄러져서 상처가 또 났다. 내 몸은 완전히 상처투성이다.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할 것 같다. 어쨌든 나는 16일 저녁이나 17일 아침에 가서 22일 날 태백산으로 들어오면 된다. 너무도 기쁘다.

7월 14일 금요일 맑음

출발(10:00) → 포암산(13:00) → 대미산아래 안부(20:00)막영

【조장 전옥량】

또 늦장을 부렸다. 녹차를 끓이는 것을 봤는데 녹차가 다 식어 있었다.

한참 막영할 생각으로 부풀어 있어야 할 시간에 우리는 야간산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대머리가 아름다운 산(大美山)은 가까워지질 않는다.

내일부터는 제시간에 운행해야지 하는 생각뿐이다.

【39기 임도균】

하늘재에서 일하는 아저씨와 기념촬영을 마치고 포암산을 향하여 출발했다. 경사가 급했지만 올라가는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그러나 조금 지나서는 엄청 어려웠다. 라면을 끓일 물이 없어서 물을 뜨려고 내려갔다. 가기 싫었으나 지환이 형이 나를 지목해서 할 수 없이 내려갔다. 억지로 천천히 내려갔다. 조금이라도 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내 마음을 알았는지 형은 빨리 내려오라고 난리다. 그런 능선상에 어떻게 물이 흐르는지 이해가 안 간다.

물백을 들고 올라오니 그렇지 않아도 거지같은 옷이 옷이 완전 걸레가 되버렸다. 라면을 먹고 출발했다. 엄청나게 간 것 같다고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얼마 가지도 못했다. 지환이 형이 앞에 서더니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 조령산의 망령이 되살아나려고 했다. 몇 번 쉬지도 않고 물도 잘 주지도 않을 뿐더러 감시도 심하다.

한참 가서 어두워져서야 텐트를 치고 지환이 형과 쏘가리가 물을 뜨러 갔다. 기다리고 있는 중에 지환이 형이 영영 안 와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애석하게도 한시간 반쯤 지나서 예코소리가 들려 왔다. 목이 터져라 예코를 외쳤다. 헌데 지환이 형이 한 명 내려오라고 해서 현준이와 내가 내려가려는데 현준이가 안 내려가려 해서 나만 내려갔다. 현준이가 이제는 더 이상 불쌍하지도 않고 밉다. 가스등도 내가 나무에서 내렸다. 내일 먹을 물까지 계산해서 오늘밤은 밥도 못 먹고 수프와 간식만 먹었다.

지금은 대미산 기슭이다. 내일은 대미산을 올라 찬다. 걱정된다. 내일도 김치 한 개는 꾸준히 빠지겠지. 이 맛에 지금까지 버텨온 것 같다.

7월 15일 토요일 흐림

07:30 기상 → 10:30 출발 → 11:00 대미산 → 19:00 옥수동 계곡 막영

【조장 전옥량】

어제의 피곤함에 눈이 더욱 떠지지 않았다. 대미산 올라가는 길은 무척이나 지루했다. 차가자로 가기로 했지만 도중 809봉 못 미쳐 “마을로 떨어질까?” 하는 지환형 말에 며칠간의 고생은 잊은 듯 좋아서 “당연하죠!” 그랬다가 또 힘들게 고생만 했다. 이럴 줄 알았다면 그냥 계속 갈 걸 하는 생각

만 앞섰지만 이왕 갈 거 하며 천천히 달리니 조금은 나은 것 같다.

휴식시간에 카메라가 이상하다며 이리저리 만지는데 웬지 불안하다. 날은 어두워지는데 끝은 보이지 않고 형도 답답했는지 나한테 일정을 상의하신다.

그곳에서 막영하기로 하니 일 학년들만 환호성이다.

【39기 임도균】

D-day 2일이다. 오늘과 내일만 지나면 나는 광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지환이 형이 보내 줄 지 의문이다. 아침에 지환이 형이 18일보다 먼저 가도 좋으냐고 물어 본 걸로 봐서는 내일 보내 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영 아니다. 10시 30분에 출발해서 대미산에서 휴식을 취한 뒤 우리는 또 산행을 시작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것 같다.

지환이 형이 오늘은 속도가 안 난다고 했다. 그래도 잘만 갔다. 길에 풀이 많이 나 있어서 다리의 상처를 건드려서 많이 아팠다.

헬기장을 조금 지나 또 한 번의 휴식을 취한 뒤, 갑자기 차갓재를 안가고 수미봉을 향해서 우리는 또 떠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바로 아래로 길을 뚫었다. 한참을 뚫어서야 길이 나왔다. 계곡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마을을 지나가는데, 들어오는 차는 있어도 나가는 차는 한 대도 없었다. 카메라도 필름이 고물이라 한 통을 버렸다. 아까운 우리 사진….

한참을 걷다가 갑자기 지환이 형과 옥랑이 누나가 이야기를 하더니 텐트자리를 찾았다. 계곡 옆에 텐트를 치고 우리는 목욕을 했다. 현준이가 또 늦게 해서 먼저 가려고 했지만 같이 가자고 해서 기다렸다가 같이 왔다. 욕을 얻어먹을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안했다. 옥랑이 누나가 뭔일로 밥을 다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현준이가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미안한 생각이 들고 불쌍하게 느껴진다.

지환이형 기분도 좋지 않은 것 같다. 말없이 지도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다. 내일은 또 엄청나게 힘든 산행이 되겠구나. 그러나 나는 내일 하루만 하면 만사 땡이다. 헌데 진짜 보내 줄지 의문이다. 형이 막판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나 나는 가야만 한다. 집에 가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것이지만 그래도 집이 그림다.

아! 광주! 광주! 광주! 우리는 광주를 사랑합니다. 광주 MBC집중문화 캠페인…………….

7월 16일 일요일 지겨운 비

05:00 기상 → 07:30 출발 → 단양 → 죽령 → 16:00 막영

【조장 전옥랑】

도균이가 나가는 날이다. 어제 형 말도 있고 해서 나도 마음을 다시 바로 잡았다. 예비일 비슷한 날이지만 우리는 제시간에 기상했다.

도균이가 나가고 나니 허전하다.

죽령에 도착하니 비도 오고 몹시 춥다. 뜻밖에도 영필이 형을 만났다. 계획서를 보시고 일부러 찾아오셨다 한다. 형 덕분에 푸짐하게 먹었다.

【39기 김현준】

도균이가 신검을 받기 위해 광주로 내려갔다. 오늘 따라 도균이의 얼굴빛이 유난히도 밝은데 난 왜 이리도 찌뿌둥한지 ... 그제 도균이가 부럽기만 하다. 나도 하루 빨리 지옥 같은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사정이 허락지 않으니 차라리 미쳐 버리고 싶다. 거의 매일 물에 빠진 생쥐 꼴로 까마득한 정상을 향하여 보이지도 않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만 하니 나의 지랄 같은 깡다구도, 인내도 이젠 지쳤다. 오직 모든 일을 초월해 버린 중처럼 하루하루를 “해가 났으니 가자. 해가 지는구나. 이제 자자.”하면 되는 것이다.

아마 산악회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진리는 영원할 것이다.

7월 17일 월요일 맑음

05:00 기상 → 10:30 출발 → 14:00 비로봉 → 16:45 국망봉 → 19:00 막영

【조장 전옥량】

오늘은 새로이 하계를 시작한 날인 듯하다. 빠듯이 운행을 하니 기분이 좋다. 아침에 영필이 형차가 밧데리가 나가서 출발이 늦어지긴 했지만 다들 새로운 마음가짐이어서 인지 분위기가 다르다.

소백산은 길이 뽕 뚫린 대로였고 처음으로 능선을 조망할 수 있는 날씨여서 더욱 좋았으나 표지판은 제멋대로 박혀 헛갈리게 했다.

【39기 김현준】

어제 오후에 영필이 형(32기)이 찾아 오셨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그제께부터 우리를 찾아 헤매셨다고 한다.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금쪽같은 휴가를 쪼개서 3일간을 우리를 보기 위해 허비하다니. 우리가 무엇이 대단한지 ...

선배님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선배님이 우리에게 향한 애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산행은 선배님의 호의(닭도리탕, 백숙)에 힘입어 따따불로 갔다. 소백산 국망봉이 막영 예정지인데 소백산 국립공원을 벗어나 버린 것이다.

선배님의 호의만 계속 있다면 이까짓 산행쯤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7월 18일 화요일 구름 속에서 해만 날

05:00 기상 → 08:00 출발 → 12:45 고치령, 중식 → 14:30 고치령 출발 → 17:50 마구령, 막영

【조장 전옥량】

물이 부족할 것 같아 현준이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켰는데 한시간이나 걸렸다.

오늘따라 구름이 가득 끼었다. 독도라는 건 나에겐 아예 개념이 안 서는지 꺾어야 할 지점을 찾을 수 없다. 고치령에서 점심을 먹고 잠깐 나온 햇빛에 옷을 말렸다. 마구령까지는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다.

두 시간 동안 쉬질 않고 걸었더니 일 학년 애들의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다.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아 빨래를 밖에 널어놓고 왔는데 밤에 또 쏟아 부었다.

【39기 김현준】

동생이 그림다. 부모님도, 친구도. 산행에 있어서 오늘처럼 젖은 적은 없었다.

부모님, 친구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없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나를 자꾸 그리움에 휩싸이게 한다. 지금 마음으로는 부모님과 친구들을 만나면 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주고 싶은 심정이다. 이 기분이 언제까지 같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부모님과 친구들을 대하면 좀 더 솔직한 모습으로, 더 진실된 마음으로 행할 것이다.

7월 19일 수요일 무지무지한 비

05:00 기상 → 13:30 출발 → 16:30 늦은목이, 막영

【조장 전옥량】

아침부터 비가 엄청 쏟아진다. 오후에 출발하기로 결정하고 잠을 더 잤다.

산행을 시작하는데도 비는 계속해서 내린다. 너무도 춥다. 현준이는 춥다며 휴식시간에도 배낭을 내려놓지 않는다.

늦은목이에 아주 좋은 막영지가 있기에 형에게 말을 꺼냈더니 선달산을 넘어가잔다. 나까지 세 명에서 도저히 추워서 못 가겠다고 버티니, 그곳에서 막영을 하기로 했지만 분위기가 살벌하다.

【39기 김현준】

오늘은 예전의 산행보다 3시간이나 더 빨리 산행이 끝났다. 왜냐면 거의 휴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휴식을 왜 안했는지. 따까리 주제에 까라면 까고, 구르라면 구르면 그만이니까. 오늘 따라 유난히도 분위기가 험악하다.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잔소리(?)를 듣지 않아서 참 좋은데, 꼭 망치는 놈이 있다. 쏘가리(이형관)이다. 꼭 툭툭 쏜다. 자숙이 분위기만 잘 파악하면 멋진 놈인데 말이야.

하여튼 산행이 빨리 끝나서 참 좋다.

7월 20일 목요일 비

05:15 기상 → 09:00 기상 → 12:00 박달령 → 13:00 옥돌봉 → 16:00 도래기재, 막영

【조장 전옥량】

4시에 기상할 계획이었는데 너무 캄캄해서 5시가 넘어서 일어났다.

배탈이 났는지 배가 아파서 속도가 느려진다. 선달산 정상에서 배탈 때문에 휴식시간에 일을 보는데 밑에서 현주형과 지형이 형이 구세주를 만난 듯한 표정으로 올라오신다. A조로 간다고 그러더니 이런데서 만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옥돌봉에서 도래기재로 내려올 땐 길을 잘못 들어서 뚫어야만 했다. 헬기장이 옥돌봉이라 생각했는데 더 가야 했나 보다. 오랜만에 목욕과 빨래를 했다.

【39기 김현준】

으~, 아침부터 성질 난다. 오늘이 벌써 세 번째다. 5시에 기상하자마자 또 나보고 수통에 물을 떠오라는 것이다. 꼭 「응아」를 누려고 하면 시키는 것이다. 나오기 일보직전이다. 수통에 물은 채워야겠고, 예라이 모르겠다, 수통을 계곡에 내팽개치고 바로 옆 나무 하나를 붙잡고 시원하다.

쏘가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열받는다. 제발 큰 거 마려울 때는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형관이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푸짐하게 먹었다. 산행 도중에 30기 현주 형과 34기 지형이 형을 만났기 때문이다. 영필이 형처럼 단지 우리가 보고 싶고 산이 그리워서. 배가 뜨뜻하니 내일을 위해 잠 좀 자야겠다.

7월 21일 금요일 짜증나는 비

05:00 기상 → 07:30 출발 → 14:30 고직령, 중식 → 19:40 태백산 정상 막영

【조장 전옥량】

구룡산이 고비일거라 생각하며 가는데 985.5봉 앞에서 산판길이 나온다. 선배들이 둘러보더니 그 길로 갈까 고민이다. 행여나 차를 타게 될 줄 알고 우리도 함께 꼬셨지만 능선으로 갔으면 3시간이면 갔을 거리를 아래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 채야만 했다.

휴식 시간에 간식을 빼라고 하니 서로 귀찮아서 빼질 않는다. 짐이 가벼워서 그러나? 그래서 난에 머리통 만한 돌들을 2~3개씩 집어넣으니 몸이 괴로운 표정들이다. 약해지지 말자

중식 때가 되어서야 돌을 빼서 케른을 쌓으며 내년에 꼭 다시 와서 확인하겠다고 다짐들을 한다.

태백산까지는 길이 아주 완만해서 대부분을 뛰어서 갔다. 정상에는 내 키보다 훨씬 큰 비석이 있었고, 제단이 있었고, 개스가 끼어서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다. 정상에다가 비바람을 이겨 가며 텐트를 쳤고 밤새 내내 자칭 도사라는 사람의 트립소리를 들으며 자야 했다.

【39기 김현준】

도균이하고 만나기 하루 전날, 과연 도균이가 올까? 하는 의구심을 품고 산행시작. 지금까지 산행 중 가장 많이 걸었고, 매우 힘든 산행이었다. 다름이 아니라 산행 중 어찌어찌해서 짱돌을 큰 것으로 세 개나 넣는데, 나 혼자 힘으로는 배낭을 땔 수 없었다. 그래도 50분 산행, 10분 휴식이면 숨 좀 쉬겠는데 한 번은 두 시간, 그것도 오르막길을 그랬으니 퍼지기 일보직전까지 가는 거였다. 돌아 버리지, 비만 오지 않았으면 바로 여기가 내방이다 하고 뺨을 텐데 말이야.

다행히도 중간에 돌을 빼 줘서 겨우 힘든 산행을 면했다.



◈ 함백산 앞 어평재에서 지나가는 여자 둘과 ◈

7월 22일 토요일 오랜만에 맑음

예비일

【조장 전옥량】

일출을 보고 싶어 네 시 반에 일어났는데, 개스가 가득하다.

현주 형과 현준이가 내려가기로 한 날이다. 섭섭하다. 현준이에게 아무 것도 가르쳐 준 게 없는 듯해서 더욱 그렇다.

낮에 도균이는 가져갔던 식량을 메고 다시 우리에게로 왔다. 근데 아버지에게 쇠파이프로 두들겨 맞았다며 식량만 주고 다시 할아버지 제사 때문에 내려오기로 하고 왔다고 내려간다고 한다. 저녁에 형들이 술을 먹이면서 뭐라뭐라하니 아버지께 편지를 쓰기로 하고 계속 산행을 하기로 했다.

그건 그렇고 태백산 물이 이상한지 계속해서 설사이다.

【39기 이형관】

구름 속에 파묻혀 흐린 것 같았으나 오후에는 맑아졌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일출을 못보기를 기대했다. 다시 여섯 시에 기상해서 아침을 먹고 나서 현준이와 현주 형이 그리운 속세로 갔다. 보기 싫은 놈이 없어져서 좋을 줄 알았는데 가고 나니 왠지 서운해서 담배만 계속해서 피워 댔다.

계속 지루한 시간을 보내다가 12시 30분 경에 도균이가 왔다. 정말 기쁘고 반가웠다. 문수봉까지 가서 도균이 배낭의 짐을 나눠 가지고 왔다. 무려 7km가 넘는 거리를 갔다 왔어도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기쁘기만 했다. 그러나 도균이는 제사 때문에 다시 가야 한다고 하니 힘이 쭉 빠지고 기분이 더러웠다.

그러다가 저녁에 술을 먹으면서 선배들의 꼬임에 넘어가 계속 산행을하기로 했다. 또다시 선배들이 내 산행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고 싸가지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귀에 잘 들어왔다. 고쳐야지!

7월 23일 일요일 태풍

05:00 기상 → 07:20 출발 → 12:15 점심 → 14:40 함백산 → 16:30 싸리재, 막영

【조장 전옥량】

몸상태가 매우 안 좋다. 피곤한 하루이다. 어평재엔 오랜만의 햇빛과 일요일이라서 인지 사람들이 많다. 함백산은 정상에 통신시설 때문에 갈 수 있으려나 하며 시멘트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경찰차가 멈춘다. 우린 손도 들지 않고 그저 뒤를 돌아봤을 뿐인데. 덕분에 일반인은 못 간다는 정상도 쉽게 다녀올 수 있었다.

다시 헤어져서 싸리재에 거의 도착했다 싶을 즈음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 싸리재가 보이기에 좋아 하려 하며 막 내려가다 쭈욱 미끄러졌다. 아파 죽겠다. 거기 있는 가게에 들어갔는데 TV에서 태풍 소식을 전한다. 우리는 다른 조 생각을 했다. 아마 태풍이 부는 줄도 모르고, “오늘은 바람이 좀 세다”라고 말하며 산행을 할거라고….

【39기 이형관】

오랜만에 햇빛을 맘껏 느낄 수 있었다. 함백산 가는 길에 미군부대에서 지형이 형이 말도 안되는 영어실력으로 물과 담배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점심까지는 되지 않았다. 거기서 약 300m정도 가니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많이 와서 떡, 고기, 김치, 노가리, 수박까지 푸짐하게 얻어먹었다. 그러면서 점심점 해서 2시간을 편하게 보냈다.

함백산까지 가고 있는데 백차가 나타나 정상까지 쉽게 갈 수 있었다. 정상에는 통신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능선을 타고 산행을 했다. 그 후에 산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얼마 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무지 추웠다. 싸릿재 근처에서 옥랑이 누나가 신나게 달려가다가 넘어졌다. 좋아서 죽는 줄 알았다.

싸릿재에서 오뎅, 음료수, 계란 등을 먹고 있는데 TV에서는 태풍소식이 들리고 지금 여기도 엄청나게 바람불고 비오니 산행이 제발 여기서 끝나기를 바랐다. 비야, 제발 내일 저녁까지만 계속 와라. 부탁이다.

7월 24일 월요일 점심부터 맑음

05:00 기상 → 14:00 출발 → 15:30 금태봉 → 18:00 매봉산, 막영

【조장 전옥랑】

아침에 태풍으로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분다.

비가 그친 듯하여 밖에 나가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늘이 너무 푸르다. 짐을 말리고 챙기는 데 지도가 없다. 그것도 둘 다. 황당하다. 그래도 우린 곳곳이 대충 방위각을 맞춰서 갔다. 고랭지 채소밭이 나온다. 거기서 광복 50주년 기념 백두대간 종주를 한다는 사진작가 신태수씨를 만나 푸 집한 밤을 보냈다. 종주 팀에게 지원을 해주고 사진을 찍기 위해 그곳에 왔다 한다.

【39기 이형관】

5시에 기상했으나 태풍 때문인지 계속 비가 와 바람이 거세다. 그래서 밥을 먹고 다시 대기, 11시 30분에 일어나 점심을 먹고 준비를 하는데 날씨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싸릿재를 오후 2시 10분에 출발해서 금태봉을 지나 매봉산을 지나고 있는데 두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한 명은 사진작가고 한 명은 조수로 서울공대 산악회라 했다. 그 사람과 함께 조금 더 가서 막영을 했다. 그들은 따로 백두대간종주를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앞서가면서 촬영하는 팀이었다. 차를 가지고 다녀서인지 반찬이 많았다. 장조림에 새우, 깻잎, 매운탕까지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또 사진작가가 광주출신이라 특히 잘 대해 주었다. 오늘 산행도 즐겁게 끝났다. 계속 산행이 이렇게 쉽게 풀리기를 바랄 뿐이다.

7월 25일 화요일 맑음

05:00 기상, 광동댐 이주단지의 고랭지 채소밭 막영

【조장 전옥랑】

오늘은 한 일이 없는 듯하다. 신태수 아저씨와 같이 움직였다. 미리 땃재도 가보고, 덕항산에도 올라가 보고…. 나중에 광동댐 이주단지까지 차로 태워 주고 헤어졌다.

고랭지 배추밭이 참 멋지게 보여 밭 사이에서 막영지를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또 비가 온다.

【39기 이형관】

아침에는 비가 내렸으나 맑다가 소나기가 쏟아졌다. 아침에 기상했는데 또 다시 내가 늦게 일어나 지환이 형한테 얼굴을 한 대 맞았다. 또 설악시를 외우라고 했는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엄청 두들겨 맞을 뻔하기도 했다. 옥랑이 누나는 1시까지 외우라고 하고 지환이 형은 6시까지 외우라고 해서 6시까지 외우려고 차분히 읽어 갔는데 2시 30분에 확인하는 바람에 덕항산까지 오리걸음을 했다.

차에 배낭을 두고 썩만 메고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사진 찍을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고 그냥 내려왔다. 쪽 차를 타고 땃재까지 갔다가 다시 광동댐 이주단지로 가서 막영을 했다. 그곳에서 촬영팀과 헤어졌다. 민박을 할 뻔했으나, 형이 그냥 가자고 하는 바람에 배추밭에서 잤다.

7월 26일 수요일 아주 맑음

05:00 기상 → 13:00 땃재 → 18:30 두타산 → 20:30 무릉계곡 집결지 도착, 막영

【조장 전옥랑】

지환이 형이 오후 3시까지 가면 된다며 넉넉히 4시간이면 가겠다고 10시에 출발하잔다. 여유로움을 즐기려는 순간 차가 올라왔다. 오늘 배추밭에 농약하는 날이라 한다. 그 넓은 밭에서 하필 여기냐... 바로 출발하려고 짐을 싸는데, 주인이 일 좀 해주라고 해서 농약 줄을 잡아 주며 때아닌 농활을 하게 됐다.

끝나고 주인집에서 식사 후 땃재까지 차로 이동했다. 혹시나 C조가 지나갈까 하여 써 놓은 글이 그대로 있다.

두타산까지 올라가는데 벌써 긴장이 풀리는지 몹시 힘이 들었다. 집결지를 정상에서 무릉계곡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야간산행으로 내려가야 했다.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이 든다.

【39기 이형관】

아침에 자고 있는데 배추밭에 농약 치러 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배낭을 썼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을 도와 같이 농약을 했다. 그 사람들은 1년에 4개월만 일하면 1년벌이를 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걱정이 없는 듯했다. 트럭을 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농약을 쳐주었다. 점심을 얻어먹고 땃재까지 트럭으로 갔다.

땃재에서 두타산까지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형이 노래를 시켰다. 부르기는 싫었지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불렀다. 두타산 정상에 가니 현성이 형과 양숙이 누나가 내려왔다. 두타산 정상에서 이상 없음을 보고하고 바로 무릉계곡으로 하산했다. 모두들 반가워하는 것 같았다. 빵하고 준연이 형이 술을 사 와서 먹는데 만철이 형하고 장민이 형 사이에 끼어서 바로 취해 똥아 떨어졌다.

7월 27일 목요일 맑음

비상

【조장 전옥량】

끝난 게 아니었나 보다. 새벽에 갑자기 비상을 걸었다. 기상인줄 알았는데 비상이었다. 덕분에 우리는 줄뺏다를 맞았다.

오늘 하루는 무릉계곡에서 노는 날이다. 잠만 많이 잤다.

【39기 이형관】

새벽에 갑자기 비상이라고 해서 나갔더니 준비를 제대로 안했다고 줄뺏다를 맞았다. 그러나 술기운 때문인지 아픈 줄도 몰랐다. 괜히 얻어맞고 잤다. 정말 미친놈들만 모인 곳이다.

아침 8시에 기상해서 2학년들이 밥을 하기에 설거지도 할 줄 알았더니 우리보고 설거지를 하라고 했다. 늦게 해왔다고 또 두들기는데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 11시 30분에 계곡에 가서 수영도 하고 낮잠도 잤는데 정말 기분좋았다. 오늘만 지나면 이 지긋지긋한 생활도 끝이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7월 28일 금요일 맑음

무릉계곡 → 동해 → 서울 → 광주

차시간에 맞추기 위해 재빨리 짐을 싸서 무릉계곡을 빠져 나왔다. 차를 타고 동해시로 나왔는데 하계 내내 도균이가 그리워하던 도시는 하나도 안반갑다.

서울에 도착하니 용욱이 형이 나와 계신다. 만철이 형과 나란히 서 있어서인지 더 하얗게 보였다. 광주에 도착해서 엄마에게 전화를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신다. 삼겹살을 무려 31만원 어치나 먹었다.

조장을 하면서 참 소홀히 한 것이 많았던 것 같다. 지환이 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준이, 형관이, 도균이도….

'95하계 장기 등반(C조)

- 대 원 : 34기 정 만 철
36기 문 준 연
38기 이 수 연
39기 김 성 석
39기 김 천 중 이상 5명
- 코 스 : 주왕산 ~ 두타산(낙동정맥)

기록자 : 38기 이수연

7월 8일

대구 - 안동(7:53) - 청송(9:35) - 이면(11:40) - 점심(12:00) - 주산저수지(13:40) - 18:00 막영

시골 간이역과 같은 조그만 대합실에 앉아 있다. 내룅과 이면을 가야 피나무재에 당도할 수 있는데 내룅가는 차는 하루에 두 번밖에 없고, 이면은 자주 있지만 피나무재에서 내려주질 않는다. 곧 바로 이면에서 올라채기로 하고 이면에 당도하니 길옆에 우리랑 똑같지만 조금 더 지저분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웃는다. 부산대 낙동정맥 종주팀이라 한다. 40일 예정에 20일째인데 745.4봉 근처에서 1학년이 사고가 나서 부산으로 보내고, 나머지 두명만 일정을 다한다고 한다. 함께 마을 회관에서 밥을 먹고 출발했다.

오후 4시부터 천중이가 이상하다. 앞에 보이는 745.4봉이 너무 위험하고 천중이의 상태도 있고 해서 하계의 첫 막영을 했다.

7월 9일

05:00 기상 - 06:50 주산재 갈림길 - 11:50 주당산계곡 점심 - 17:15 영양 - 19:10 발리

주산재부터 이어진 능선이 뾰죽 않다. 모두 다 토막토막이다. 위치 파악이 안된다. 정식산행 첫날부터 이상타. 그 누군가 우리나라의 산맥은 모두 이어져 있다고 했던고 ...

7월10일

05:00 기상 - 06:20 산행시작 - 13:00 점심 - 15:30 612.1고지 - 18:00 두번째 헬기장 막영

많은 지도를 뛰어 넘어 발리의 뒷산에서 새로운 느낌으로(마음가짐으로)출발했다. 동네 뒷산인데 발으로 가는길이 있고 잡목지대가 우릴 반긴다. 곳곳에 덧 천지이다. 처음엔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니. 10개체의 덧이 발에 걸릴 무렵에는 무감각해졌다.

12시 40분 우마차 도로에 도착했다. 마지막 부분에는 독도를 주의해야 하는데 도로 前 갈림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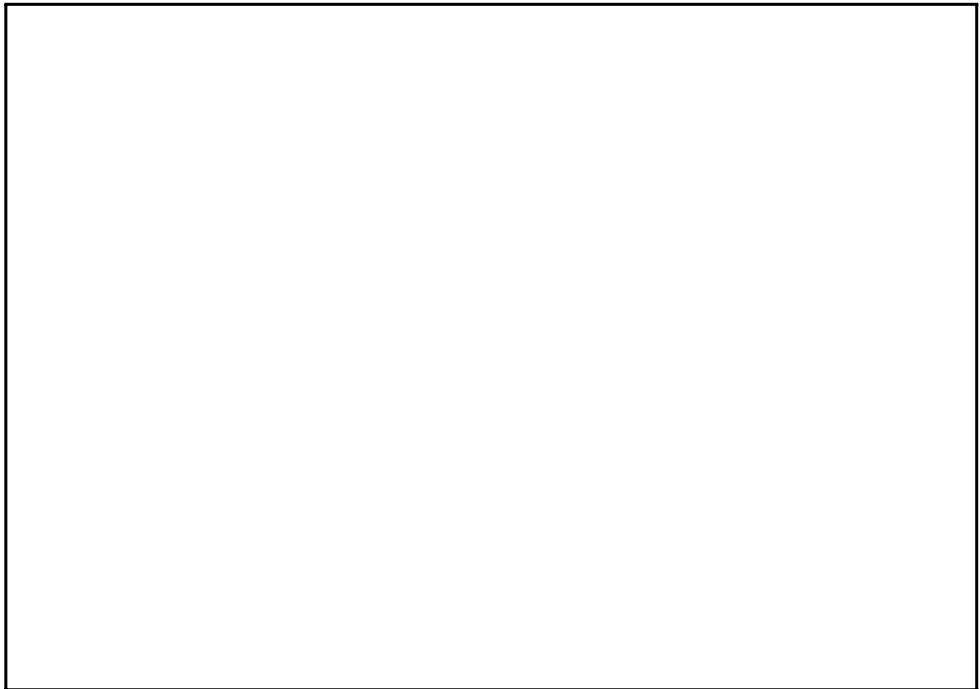
서 왼쪽이다. 612.1고지는 주의해서 찾으면 삼각점이 보인다. 두번째 헬기장에서 막영을 했는데 헬기장인지 묘 이장한 터인지 미심쩍었다. 기왕에 편안한 마음을 갖고저 헬기장이라 믿으며 잤다.

7월11일

04:00 기상 - 05:30 산행시작 - 08:00 850고지 전위봉 - 13:45 점심 - 844고지(삼각점없음:나는 못찾음) - 16:00 헬기장 - 17:45 842고지 아래안부 - 18:00 막영

8시부터 장대비가 온다. 비가 오고, 춥고, 바람은 매섭지만, 그래도 재미있었다. 성석이가 그러한 내 마음을 아는듯이 “누나는 재미있죠?”하고 물었다. 씩 웃어주었다.

850고지는 들릴 필요가 없다. 그 후 죽 무리없이 갈 수 있는데, 1시간정도 가면 큰 소나무 2그루 (너무 커서 구별할수 있음)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방위각을 잘 살피고 주의해야 한다. 100m정도 가면 방위각이 크게 오른쪽으로 꺾이는 부분에 묘를 이장한 터가 굳게 자리잡고 있다. 842고지아래 안부에 텐트 자리가 있다. 길하고 만나는 지점 왼쪽으로 20분쯤 내려가면 물이 있다.



7월 10일

7월 12일

04:40 기상 - 06:10 산행시작 - 11:00 (두번째 봉우리)헬기장 - 12:00 점심 - 막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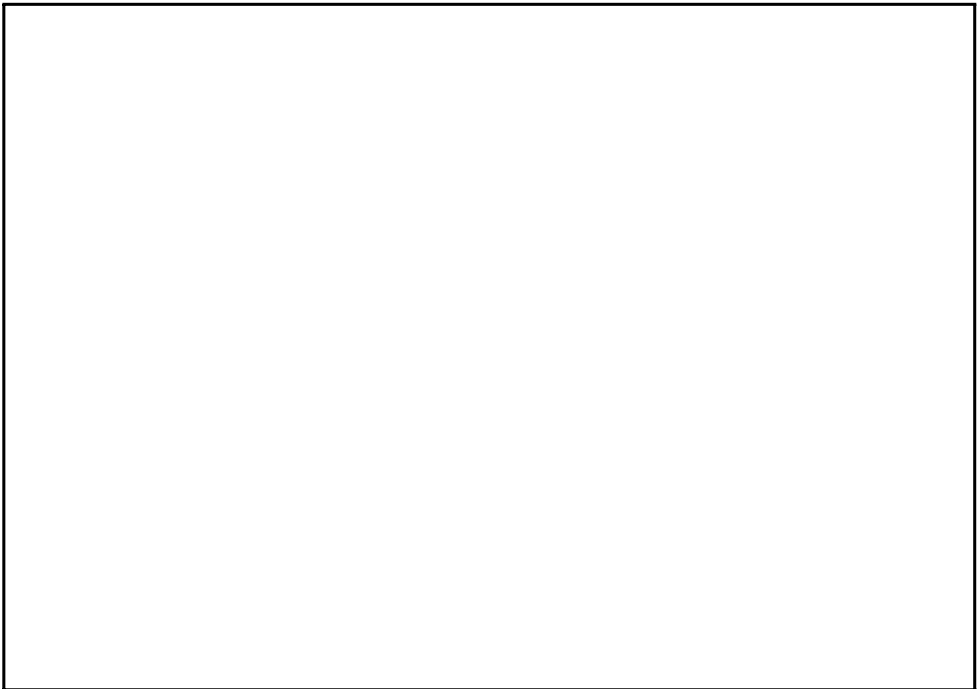
아침부터 천중이가 옷 보따리를 굴려서 한따까리를 하고 출발했다. 여전히 나에게는 독도가 어렵지만 실력이 향상되었는지, 상황에 익숙해져 인지, 그것도 아님 동물적 본능이 살아나서인지 겨

우겨우 찾아가고 있다. 헬기장을(독도주의 45°방향으로 확 들어야함. 표식기 있으나 잘 보이지 않는다) 지나 낮밥을 먹고 해마다가 7시 30분 겨우 현위치 파악을 했다. 무엇에 홀린 기분이다. 점심을 먹은 자리이다. 이곳을 우리 조원이 평균 3번 최다 5번이나 온 장소였는데 …, 얼떨떨하고 묘한 기분이다. 날씨는 여전히 나쁘다.

7월13일

06:00 기상 - 08:55 산행시작

저녁에 산중의 집을 발견했다. 빙빙 둘러 산인데 그속에서 외로이 살아간다고 한다. 노을이 아빠의 젊었을 때 꿈이라며 …, 노을이라는 여자아이와 부모님이 사는곳인데, 꼭 동화속의 나라에 온 듯하다. 삼계탕도 먹고, 말끔이 씻고 난 후 마당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잔다.



7월 13일

7월15일

06:00 기상 - 08:00 출발 - 옥방위 임계도로

노을이네 집에서 아침을 실컷 먹고, 다시 산으로 향한다. 저녁 무렵 이상한 우마차 길로 들어섰는데, 위로 올라가 보니 마을과 이어져 있지 않은 도로이다. 지도에도 나와있지 않는데 옥방과 이어지는 도로로써 공사차량만이 간간히 드나들고 있었다. 계곡과 죽 이어져 길이 나있는데, 하단부 다리에서 양갈래로 길이 나뉘어 반대편으로는 청소년 야영장으로 향하는 길이고, 다른길은 마을과

이어져 있다.

다리위에서 막영준비를 시작했는데 다리사이의 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쌀도 씻어서 밥을 해먹는다. 만철형께서 마을 정찰길에 가지고 오신 배추가 저녁상을 푸짐하게 한다. 옆에서 준연형, 만철형, 성석, 천중이의 화투소릴 들으며 잠을 청한다.

7월16일(절반 예비일)

12:00 산행시작 - 13:40 옥방터 - 17:00 송신탑 - 18:00막영

엽서를 쓰며 한나절의 예비일을 맞이했다. 12시에 같은 비이지만 상쾌한 느낌이 드는 비를 맞으며 답운치를 향해 도로를 걷는다. 옥방터를 지날때 폐광촌의 실상이 내리는 비와 함께 추적추적한 기분에 감싸이게 한다.

답운치에 못 이르러 작은 길을 따라 능선에 올라왔다. 오늘은 유난히 비가 좋았다.

7월17일

04:00 기상 - 06:00 산행시작 - 12:00 진조산 앞우마차도로 - 14:00 막영

나침반만 보며 끝없이 전진이다. 여전히 비는 계속되고 안개까지 가세하여 100m앞도 보이지 않는다. 겨우 진조산 앞 우마차 도로 진입을 성공했지만 도로에서 능선으로 올라쳐 진조산을 찾으려니 능선이 하나도 안보인다.

도로에서 본 산의 모습은 하얀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섬마냥, 곳곳에서 머리꼭지만 보여주고 있다. 2시부터 안개가 걷힐 때까지 대기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이 막영이 되어버렸다.

7월18일

04:10 기상 - 05:40 산행시작 - 11:20 평전 - 12:00 점심 - 15:00 934.5고지 - 19:00 막영

진조산을 포기하고 우마차도로를 타고 평전으로 떨어졌다. 평전 뒷산을 타고 934.5고지에 이르렀다(삼각점 있음). 너무나 시원스럽다. 능선도 보이고 길도 뚫려 있다. 눈물이 날 것 같다. 주능과 지능의 구분이 뚜렷하다.

7월19일

04:00 기상 - 06:00 산행시작 - 08:00 1136.3고지 - 막영

눈을 뜨니 비소리가 먼저 들린다. 무의식적으로 애들을 깨우고 산행준비를 시작했다. 1136.3고지를 넘어 동쪽으로 트는 지점에 긴 트레버스길이 있다. 트레버스길(시작과 끝에 모두 표식기가 있다) 위는 암릉지대인데 트레버스 길을 지나서도 약간은 덜 위험한 듯한 암릉지대가 계속된다.

세상에 또 길을 잃어버렸다. 정말 미치고 싶다. 계속되는 산죽(山竹)지대를 지나왔는데, 그속에서 어디선가 잘못된 것 같다.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진다. 애들이랑 판초를 뒤집어 쓰고 덜덜 떨었다. 앞으로 갈수도 없고,

back할수도 없을 만큼 날씨는 최악이다. 아주 힘이 센(?) 만철이형이랑 준연형께서 아쉬운 대로 땅을 골라서 텐트를 쳤다. 텐트가 기우뚱 이상하다. 밖은 여전히 비다.

7월20일

05:00 기상 - 06:30 산행시작 - 12:00 111.9고지(삿갓봉) 앞 우마차도로 - 15:00 111.9고지 - 18:00 막영

back이다. 1시간 정도 지나온 길을 다시 되돌아 가는 기분이 정말 떨더름하다. 111.9고지 앞 지도에 없는 도로가 나 있다. 능선과 거의 일치하는 도로인데 왼쪽 길을 따라 2Km정도 걷다보면 다시 능선으로 붙을 수 있고 샘터로 떨어지는 오솔길도 볼 수 있다. 우마차도로를 따라 죽 가면 광산과 만나게 된다.

7월21일

05:00 기상 - 12:00 997봉 - 14:00 1124봉 - 13:00 국유임도 - 16:00 샘터

1124봉을 지나서 길을 잃었다. 하도 자주 잃어버리는 일이라 무감각하다. 산죽(山竹)이 다리에 필사적으로 엉겨붙는 것이 이젠 귀찮기만 하다. 만철 형이 앞장서서 무대포로 뚫고 내려오니 도로와 만나는 비포장 도로다.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고민고민했는데, 결국 아래로 떨어져 샘터에 도착했다. 너무나 허망하다. 수퍼도 없고 10채 남짓한 집들이 엉성하게 흩어져 있는데 산수는 참 좋아 보인다.

계곡옆에 대낮부터 텐트치고 젖은 옷을 말리고, 밀린 빨래도 하고, 부정하고 싶은 날 씻어내고 난후, 준연형이랑 성석이가 읍내에 가서 사온 술이며 과자를 실컷 먹는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익숙할 대로 익숙한 얼굴들을 보며 오랫동안 여유를 가져본다. 하늘에 별이 유달리 많고 밝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좋으려나 보다.

7월22일

09:00 기상 - 예비일 - 18:00 석개재로 툄발 - 21:00 석개재 - 막영

성석이를 보냈다. 아껴두었던 옷이며 양말들을 꺼내 입은 성석이의 모습은 너무나 깨끗해서 낯설다. 배웅하러 다녀온 천중이가 힘이 없어 보인다. 모두들 그렇다. 해가지고 노는것도 귀찮을 무렵 석개재를 향해 도로로 들어섰다. 옆에서 노래도 부르고 무협지 강의도 잘하던 성석이가 없으니 산행은 조용하기만 하다. 석개재에 다다르니 작은 비석하나가 위치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국유임도 (샘터-석개재) 1993년완공. 7.3km』

7월23일

04:00 기상 - 06:00 출발 - 12:00 면산 - 14:00 점심 - 16:00 1071.6고지 - 18:00 토산령 막영 (1245고지)연산까지 가는길은 오르막의 연속이다. 낙동정맥에서 두번째로 높은 봉우리여서 능선

을 모두 내려다 볼 수 있기를 바랬는데 ... 정상과 정상부근은 모두 산죽(山竹)밭이고, 무슨 파리와 벌레가 그리 많은지 웅웅거리는 소리에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삼각점은 산죽(山竹) 속에 교묘히 숨겨져있다. 정상에서 내려가는 길이 없다. 말이 되는가? 다른 팀도 우리와 비슷했는지 여기저기 길은 천지이지만 이어지는 길이 안된다. 점심도 못먹고 2시간 동안 헤매니 그때서야 정상에서 북쪽방향으로 8부능선을 끼고 가는 길이 보인다. 면산에서 능선을 두개 넘으면 아담한 텐트 사이트가 있다.

몰인정하게도 내리는 비를 맞고 토산령에 도착했다. 겨우 텐트1동이나 들어설 수 있는 작은 공간인데 양옆에 오솔길이 나있다. 비는 미웠지만 안개에 싸인 산의 모습이 무척이나 신비스럽게 느껴지는 하루였다.

7월24일

08:00 기상 - 10:00 산행 - 12:00 백병산 - 16:00 통리 - 막영

밖의 소리가 엄청나다.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거세다. 나중에 들으니 태풍이 온날이다. 하지만 막상 나서는 감만하다. 오전에는 무슨 일인지 속도가 붙어서 신났는데, 점심까지 생략한 탓인지 점점 힘이 빠진다.

격동적이었던 오전의 날씨와 반대로,지금은 너무나 화창하다. 하늘이 보이고 능선이 보인다. 오랏만에 낙동의 본 모습을 본것 같다. 백병산에 이르니 삼각점이 보이고 그리웠던 도시의 모습(통리, 태백)도 보인다. 가까이서 들리는 기차소리처럼 힘차게 산을 내려왔다. 낙동이 잘가라고 인사를 하는지 너무도 파랗고 푸른 자태에 자꾸만 고개가 돌려진다. 이제 지긋지긋한 하계의 끝인데 하나도 후련하지가 않다. 왜일까?

7월25일

동해 두타산으로 이동

등산학교 정규반

38기 이수연

하계를 마치고 도시로 돌아온 후 산이 보고 싶었다. 작년에도 그러해서 동기들이랑 월출산을 갔었는데, 올해에도 참 산에 가고 싶어서 등산학교 정규반에 참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등산학교는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전의 산행은 즉 산에서의 기억은 언제나 기쁘고 또 힘들었지만 보람된 것이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산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해 버렸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리라 믿었던 것에 대한 일탈은 사람을 힘들게 한다. 등산학교 정규반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것이 참 힘들었다. 그래서 미루다 미루다 이제서야 펜을 들고 생각을 정리해 본다.

정규반을 다녀와서 한참동안 산악회에 대해 회의를 느꼈었다. 한달 여 동안 회관에 발길을 끊었고, 형들이나 후배를 만나기를 피했고, 동기들은 만났지만 늘 미안했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어서 알 수 있듯이 현재는 산악회에 정을 두고 여전히 산에 다니고 있다.

이제 등산학교의 이야기를 기억에 남는 사건대로 정리해 보겠다.

피아골로 향했다. 한국에서 아름다운 길로는 두손가락 안에 든다는 도로(구례에서 섬진강을 휘감아 도는)의 차안에서 2학년이지만 처음 입교하는 등산학교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에 잠겨 있었다. 옆자리의 용훈이는 차안에서의 잠이 그러하듯 약간의 불편한 자세로 자고 있다.

집결장소인 피아골 입구 외곡분교에 도착하니 입교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 있었다. 배낭을 급히 벗어 놓고 강의실로 들어갔다. 정신없이 1교시가 지나고 쉬는 시간이었다. 낮선 사람들 속에 학교 선배가 보였다. 어찌나 반가웠는지 …. 하지만 선배는 왜 이리 늦게 왔냐며 호통이다. 선배님은 모르셨을 거다. 호통마저 따뜻한 배려로 느껴졌음을 ….

암시하듯 몇 시간 후 지도부장에게 늦게 입교한 별로 신나게 혼났다 별로써 옆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또 혼나고 있다. 운동장에서 뛰어다니지 않았다며, ‘또 한가지를 배웠구나 걸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다. 참 단순해질 수 밖에 없었다. 시키는 대로 실천함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고, 어긋남에 대한 책임은 나만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선배를 비난하되 들키지 않아야 하고, 반항하되 우리가 없어야 함에 명민해져 공동체 생활에 익숙해져 갈 무렵에 암벽실습을 하러 나갔다. 점통 같고 딱딱한 바닥의 강의실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모두들 충분히 흥겨워했으며 나 또한 신이 났다. 좁은 암장에서 매듭법이며, 여러 가지 등반 기술에 대한 것을 배운 뒤 실습에 들어갔다. 그때까지도 분임 토의에서 잠깐 마주할 뿐, 친근치 못했던 조원들과도 훨씬 가까워질 수 있었고, 기합으로서 흙 위를 뒹굴거나 바위에 오를 땐 차라리 쾌감이었다.

암벽실습을 끝내고 버스를 끝내고 다시 외곡분교로 돌아왔다.

“편했지? 어디 한 번 혼나 바라”

이것이 이유였다. 띄약별 아래에서 달궈질 대로 달궈진 아스팔트를 무릎으로 기는 이유가 ...
“이유없는 별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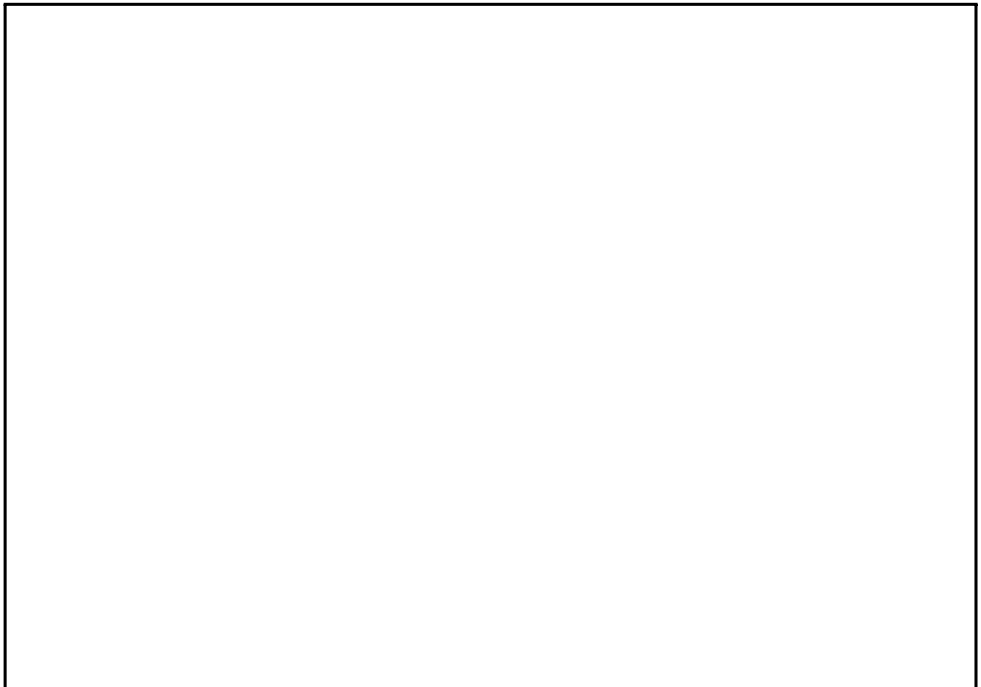
나는 이러한 논리에 새삼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작은 실례이다. 등산학교 기간 중 순간적으로 배낭을 매고 뛰쳐나가고픈 충동에 여러 번 가슴이 뛰었지만, 버텨내고 종합훈련을 마친 뒤 수료식을 끝내고 피아골을 떠나왔다.

계곡에서 땀을 씻어 냈던 기억이며, 종합훈련 때 비박했던 일 등 인상적이었고 참 좋았던 기억은 남아 있어 지금은 가끔 나를 웃음 짓게 한다.

하지만 무엇이 나를 그토록 주춤하게 했는지는 스스로도 정리가 안된다. 누구나가 산악회에서의 이러한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반항하려 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이러한 느낌이 너무 늦게 찾아왔고(실상은 1학년 때 체험하고 뛰어넘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극복하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고백이 창피하기도 하다. 산에 미쳐서 열심히 생활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온 산행이 2년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철없던 1학년 생활을 보내고, 조장으로서 2학년 생활을 하고, 지금은 11월 말, 3학년이 되어 간다. 이제 선배의 위치에 오르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라도 꼭 써야 했다.

산보다는 산악회를 더욱 사랑하는 나는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다.

“니가 맘에 안 들면 니가 선배 되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은 선배 말 들어”라고 하던 나의 동기의 말을 떠올리며 등산학교 정규반에 대한 보고서도 아닌 느낌을 정리해 본다.



등산학교 암벽반

- 기 간 : 95년 9월 30일 ~ 10월 3일
- 장 소 : 월출산 일원

39기 김연정

그저 지금은 아쉬움만이 가득한 추억의 한 장으로 남아 있는 등산학교.

첫 산행 월출산에 이어 또다시 월출산으로 가야 한다는 아쉬움은 약간 있었지만, 웬지 그곳에 가면 무언가 커다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부푼 기대감이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사실 산행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로서는 약간 걱정이 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믿음직한 선배들과 당찬 동기들이 곁에서 많이 도와줄 거라는 생각에 많은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었다.

짐을 싸는 동안 이일 저일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다. 주로 그곳 생활의 상상들이었지만, 뒤에 남기고 가는 못다 처리한 일들도 많이 마음속에 걸렸던 것이다. 이런 잡다한 생각에 젖어 이것저것 하나하나 배낭 속에 집어넣다 보니 어느새 출발시간이 되었다.

배낭을 매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놓던 나는 배낭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다(물론 배낭을 싼 때부터 그랬지만……). 비록 선배님은 나에게 이 배낭의 무게가 널 4박5일 동안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 거라 했지만 내게는 너무 무겁게만 느껴졌다.

버스가 한참을 내달리고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어둠이 그득히 내려앉은 늦은 저녁이었다. 한참을 걸어 목적지에 도착하니 먼저 온 다른 일행들이 반갑게 우리를 맞아 주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난 뒤 서투른 손놀림으로 배낭을 풀고 텐트를 치다 보니 어느새 마음 한 구석이 주위풍경과 같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꼭 미지의 세계에 온 것처럼 익숙지 않은 야경에 눈이 갓고, 낮선 풀벌레 소리에 온 정신이 뿡뿡 떠가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누가 그랬나? 방심은 금물이라고…….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선배들을 통해 이곳은 내가 생각하는 미지의 세계도 상상의 세계도 아니라는 것을 외부적인 충격을 통해 깨닫게 된 나는 약간의 의구심과 함께 현재의 내 위치를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이곳은 내가 잠시 생각해 온 미지의 세계도 상상의 세계도 아닌 오직 현실세계라는 것을 말이다.

이러한 생각들로 마음이 조금씩 자리잡고 있을 무렵 아쉽게도 서운한 새벽녘이 되었다. 구보와 함께 출발한 첫 날, 학습이라는 목적 아래 강사님들의 열띤 강의가 시작되었다. 물론 날 너무 과대평가하신 강사님들의 성급한 판단으로 지금 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건 거의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을 위해 그렇게 몇 시간씩 애쓰셨던 강사님들에게는 지금도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럭저럭 아쉬운 대로 그날 해는 서쪽으로 넘어가 주었고 대망의 둘째 날이 밝았다. 지금도 생각

해 보면 너무나 아찔했던 그 형제봉……, 난 이날 제일 끝 조인 9조가 되어 조원 중 유일한 여성으로서 맹활약을 펼쳤다. 조원들에게서 조금이라도 힘든 기색이 보이면 즉시 퍼져 주고, 진행이 빠르다 싶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버텼던 것이다. 물론 나도 이 역할을 담당하기는 싫었지만 영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듯 내 몸은 움직여 주질 않았다. 그러는 도중 순간순간 약간의 시비가 엇갈렸다. 이곳에 와서 여러 선배님들과 동기들을 만나 이렇게 서로 도우며 공감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건 너무 좋았지만 이렇게 내 인내심을 너무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을 내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느꼈던 것이다.

매번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갈 무렵 우리는 해와 더불어 등반을 마치고 하산을 했다. 불쌍한 우리 조원들은 날 끌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내일은 나랑 같은 조가 안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했을까?. 나쁜 녀석들, 미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하다니 고안….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애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 다음날 우리는 아침구보를 마친 뒤 다시 천만근이나 되어 보이는 발을 이끌고 우리는 시루봉으로 향하였다. 내가 언제부터 갖게 된 생각일까? 우리의 목적은 암벽을 하는 것인데 난 교장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축축 뒤통지는 것이었다. 이런 내가 과연 암벽을 할 자격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다. 시루봉 뒷벽은 너무 어려웠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나로서는 너무 힘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더욱 오르지 못한 코스가 많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저럭 시루봉을 마치고 난 뒤, 하산을 했다. 이날 밤은 종합훈련을 하는 날이자 마지막 밤이기도 한 날이라 영 기분이 뒤숭숭했다. 생각 같아서는 모두들 모여서 여러 날 못한 서로간의 이야기를 빙 둘러앉아 나누었으면 했는데 그냥 미지근하게 넘겨 버리고 가려니까 영 기분이 내키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야간산행이라면 첫 산행 때 힘들었던 생각에 겁부터 나는 터라 영 발걸음을 옮기고 싶지 않았다. 멀고도 멀게만 느껴지는 사자봉, 38기 선배 중에는 사자봉을 온통 눈물로 뒤덮으며 올랐다고 하는데 난 어찌란 말인지 정말 짜증이었다.

그러나 출발은 하였고 늦어 버린 시간에 즐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한 피치 한 피치 올라가던 우리는 안개 낀 자욱한 하늘 끝이 붉으렇게 바래던 무렵 사자봉 정상에 다다랐다. 저 멀리 둥그런 해가 불쑥이 올라오던 안개 낀 그 장면, 너무나도 황홀한 장면이었다. 그곳에서 하강하여 밑으로 내려갈 때 너무나도 오르기 어려웠던 만큼이나 더 오래 머물고 싶었다. 내려갈 때 한 동기(땡!)의 아찔한 사건만 아니면 그래도 그 날 산행은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산행이었다.

천황봉에 오르는 길은 너무도 힘들었지만 올라서서 바라보는 세상이 너무나 드넓고 아름다웠기에 모든 시름을 떨쳐 버릴 수 있었다. 그 곳에서 하산할 때 너무 빠르게 내려가다 보니 주위의 산경을 바라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그래도 뿌듯한 생각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었다.

이렇게 어느덧 4박5일이라는 일정을 지내다 보니 힘들었던 생각은 모두다 어디로 가 버리고 그냥 서운한 생각만이 앞섰다. 그 동안 정들었던 동기들과 이젠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서글웠다. 죽어도 산행은 더 하기 싫었지만 동기들과 함께 더 있고 싶은 생각이 이곳에 내가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처음과는 반대로 텐트를 걷고 짐을 싸는 동안은 정말로 눈물이 나올

만큼 서운했다.

수료식을 마치고 그곳을 나오던 길, 그 동안의 일들이 가로수처럼 옹은 미소와 함께 머릿속을 스쳐 지나 갔다.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해 짜증을 부리고 투정을 부렸던 일, 뱀대가리에서 쪼그려 뛰기를 했던 일, 험하게 웃음이 나올 만큼 모두 지금은 내 기억 속의 커다란 추억으로 영원히 간직되겠지만 너무나도 아쉬웠던 점이 많았던 산행이었다. 그 때 내 곁에서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었던 내 동기들과 조대공전 애들이 지금 보고 싶다.

등산학교 암벽반

39기 방경환

어린 나이에 나에게 처음으로 죽음을 가르쳐 줄 뻔한 사건이 있었던 등산학교 암벽반 마지막 날 ‘종합 훈련’에 대해 쓰고자 한다.

처음부터 이번 암벽반 들어가는 것을 별로 내키지 않게 생각했었다. 첫 번째 이유는 Cross Country를 대비한 무리한 훈련으로 인한 발목부상이고, 두 번째는 통계학 출석의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암벽반 첫째 날은 이론이고 둘째 날은 형제봉 암벽을, 셋째 날은 시루봉 앞·뒷벽을 하고 밤에 운명의 종합훈련을 떠났다. 종합훈련을 앞두고 가벼운 이론수업과 각 반끼리의 필승을 다졌다. 나는 3반으로서 아미와 연정이가 있었다. 우리 학교 여자 동기가 다 내 반이었는데, 나는 복이 터졌다는 생각보단 이 애들을 어떻게 챙겨 주고 무사히 타 학교 선배들로부터(특히 조대공전 조장) 종합훈련을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같은 학교 남자 동기로서 책임감이 막중했다. 결국은 애들이 나를 챙겨 주었지만 말이다.

우리 반 종합훈련코스는 사자봉 릿지다. 형제봉 릿지는 해봤지만 사자봉은 처음이다. 그리고 사자봉이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결코 겁은 나진 않았지만, 그냥 웬지 가기가 싫었었다. 우리들은 사자봉 능선으로 불기 위해 한참 오르막길을 가야만 했다. 연정이는 잘 가는데, 아미는 곧 똥 쌀 것 같은 얼굴로 매우 힘들어했다. 이윽고 사자봉 능선 앞에서 각자 랜턴과 벨트 점검을 했다. 내 벨트는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들은 두 조로 나누어 안자일렌으로 올라갔다.

한참 릿지를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레이백 코스에서 머리에 있던 랜턴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분명 앞으로 일어날 무서운 사고의 복선인 것 같다. 우리들은 잠도 자지 않고 정상이 나올 때까지 계속 등반을 해야만 했다. 잠오고 배고픈 것은 둘째치고, 내가 가장 견디기 힘든 추위까지 나를 마구잡이 괴롭혔다. 그러나 연정이와 아미는 그런 고통을 잊으려는 듯 노래를 곧잘 불렀다. 나는 사고를 예견이라도 하듯 바람이 안부는 구석에서 침묵을 지켰다.

어떻게 정상을 왔는지 모르게 우리들은 사자봉 정상에 올랐다. 드디어 사자를 잡고 말았던 것이다. 형클어진 구름에서는 해가 나오려고 몸을 잡고 있었다. 잠은 못 잤지만 기분은 말할 수 없이 상쾌했다. 정상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바로 역사적인 하강이 시작됐다. 사자봉 하강은 세 번씩 나누어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 하강은 두 자일을 내리고 양쪽에서 두 명씩 하강을 했다. 아미와 나는 마지막으로 하강하게 됐고 그래서 정상에 남은 사람은 환이(90학번)형까지 셋이었다. 연정이가 내 자일로 하강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확보만 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옆에 있는 아미도 마찬가지로였다.

나는 힘들게 올라온 사자봉 정상을 만끽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그래서 확보에 의지하며 몸을 뒤로 젖혀 보았다. 순간 나는 ‘튀’하는 소리와 함께 밑으로 사라져 버렸다. (테이프 매듭이 풀렸던

것이다) 아무런 장비도 대책도 없이 공중 낙하쇼를 했다. 아미는 위에서, 연정이는 밑에서 멋진 광경을 구경할 수 있었다. 떨어질 때 암벽에 허벅지가 살짝 부딪혔다. 그 때 나는 산악인들이 암벽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았다. 아니 살아야만 한다. 나이가 아깝지 …. 솔직히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냥 무엇인가 잡고만 싶었다. 그래서 손을 뻗었는데 자일이 잡혔다. 하늘에서 착한 사람에게만 내려 주는 동아줄 같았다. 나는 죽어도 그 줄만은 놓고 싶지 않았다. 자일과 손과의 마찰력에 의해서 첫 번째 하강 부분을 5m정도 남겨 두고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신이 너무 멋있는 것 같다. 손이 너무 뜨거웠다. 나 같이 뜨거운 자일의 정을 느낀 사람은 드물 것이다. 밑에서는 연정이가 하강하다가 “괜찮아 뽕?” 하고 외쳤다. ‘너 같으면 괜찮겠냐?’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참아야만 했다. 연정이는 나 때문에 하강을 못하고 있었다. 연정이가 하강하고 있는 자일을 내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를 올려다보니 환이 형 얼굴이 보였다. 나보다 더 당황한 모습이었다. 환이 형은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했다. 점점 손이 더 뜨겁고 허벌라게 아파왔다. 그리고 내 다리는 떨고 있었다. 신속히 환이 형이 주마를 가지고 왔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 그리고 내 몸 뒤로 와서는 주마로 먼저 확보를 해 주었고 또 다른 확보를 두개 더 해 주었다. 그러고는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다리는 떨고 있었다. 좀처럼 멈춰지지 않았다. 아래서 광기(88학번)형의 도움으로 첫 번째 하강부분에 안착했다. 거기서도 내 다리는 계속 떨었다. 그래서 광기형이 담배를 하나 물려주면서 진정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풀린 슬링을 내 던져 버렸다. 불에 태워 버리고 싶었다. 그런데 우리 동기(홍관) 한 명이 슬링 하나 주웠다며 버렸던 슬링을 다시 주워 왔다.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이윽고 무사히 나는 선배님들에 의해 모든 하강을 마쳤다. 이렇게 해서 사자봉 릿지는 끝났지만 내 인생까지 끝날 뻔했던 이 사건은 나에게 이상한 의문점을 남겨 두었다. 한밤중에 사자봉 릿지를 할 때 자기 확보에 의지하며 그 많은 확보를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날이 밝은 다음 첫 확보에 의지하자 마자 그런 일이 생기니 나는 진짜 운이 좋다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만약 한밤중에 누구 한 명 더 확보를 봐 주었다면 나는 그 때는 죽음을 불렀을 지도 모른다. 그러면 산악회 들어오자고 했던 만도를 원망했을 것이다.(농담이다) 이 사고로 인해 하강에는 약간의 콤플렉스가 있겠지만 톱(선등)에 대한 자신감은 생길 것 같다. 아니 문제없을 것 같다. 그리고 테이프 매듭을 잘못된 것은 전적인 내 잘못이지만 내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또 내년에 40기가 들어오면 입회원서 쓴 날부터 테이프 매듭을 가르칠 것이다. 못하면 쪼그려 뛰기를 시킬 것이다. (진짜) 마지막으로 환이 형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고맙습니다. 형!

추계 훈련 등반(A조)

(추계훈련등반은 1학년 조장훈련을 시킨 관계로 1학년 보고서를 씁니다)

- 기 간 : 95년 11월 3일 ~ 11월 5일
- 인 원 : 2개조 11명
- 명단(A조) : 34기 김 현 성
 36기 오 장 민
 38기 진 용 훈
 39기 노 원 기
 39기 이 형 관 이상 5명
- 대 상 : 월출산 종주 및 시루봉, 매봉암벽등반

39기 이형관

추계 훈련등반, 참으로 재미있었다고 기억된다.

사실 우리들한테 조장을 시켜 준다가에 내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조장을 맡아보니 그냥 따라다닐 때와는 달리 쉬고 싶어도 쉬어야 할 때인지 판단해 봐야 하고, 독도해야 하고, 속도를 맞춰야 하는 등 상당히 힘든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나는 제대로 된 조장을 해보지 못하고 군에 간다는 게 서운할 따름이다.

저녁에 영암에 도착해서 지형이형한테 곱창 전골을 얻어먹고 버스를 타고 더 골짜기로 가서 A조와 B조로 나누어졌다. 나는 그저 그랬으나 다른 놈들은 상당히 서운했던 것 같았다. 할 줄도 모르는 독도를 하는 척 하며 선두에서 계속 걸어갔다. 그러다 능선 하나를 잡아 올라 쳤다. 길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지만 그냥 뚫고 갔기 때문에 상관없었다. 길을 뚫고 가서인지 진도는 얼마 나아가지 않았다. 능선까지 올라가서 쉬었다. 그리 힘들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얼마쯤 가서는 현성이 형이 자자고 해서 비박을 했다. 6시에 기상이었으나 너무 추워서 7시에 일어났다. 밤에는 추운 줄 몰랐는데 새벽에는 상당히 추웠다. 또 다시 신나게 걸었다. 얼마 가다가 에코 소리가 들렸다. B조가 앞에 있었다. 30분 거리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서둘러 쫓아갔다. B조는 조금 더 가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도 서둘러 라면을 같이 끓였다. 먹고 바로 천황봉까지 빠르게 갔다.

이정표의 거리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거리였고 힘들었다. 천황봉까지 힘겹게 올라가서 잠시 쉬고 바람폭포로 향했다. 거기서 물을 받는데 폭포라서 물이 많을 줄 알았는데 시냇물보다도 더 못했다. 한참동안 물을 받다 보니 비 맞은 것 같이 몸이 전부 젖고 추웠다.

물을 수통에 채우고 시루봉으로 갔다. 창균이 형이 먼저와 기다리고 있었다. 도착해서 나와 원기, 장민이 형은 검정슬라브에 붙었다. 그날은 웬지 자신이 있어서 어렵게 느껴졌던 슬라브를 아무 무리 없이 오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시루봉 공전길을 톱을 서서 오르는데, 볼트 2개까지는 무난했으나 마지막 부분에서 많이 헤매고 말았다. 전에는 잘 올라갔는데 선등을 한다는 것과 후등을 한다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서 장민이 형이 대신 톱을 썼는데 나와 마찬가지로였다. 위에서 지켜보던 지환이형과 뽕이 엄청 웃어댔다.

실패하고 정리하는데 지형이형이 오셨다. 사가지고 온 닭고기를 먹고 조금 내려와서 막영을 했다. 밥을 먹고 술을 사러 3명을 보냈는데, 나와 뽕, 용훈이 형이 갔다. 재수없이 걸려서 고생을 해야 했다. 어렵게 사오니 모두들 자고 있었다. 짜증이 났지만 담배를 피우며 달랬다.

아침 6시 기상해서 매봉으로 향했다. 말로 듣기에는 우리는 인공등반이 아니고서는 올라가기 힘들다고 해서 톱을 안시킬 줄 알았더니 성석이와 뽕에게 톱을 시켰다. 나는 현조 형과 장민이 형이랑 같이 했다. 현조 형이 톱을 썼고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갔다. 키크로우를 잡고 올라가서인지 상당히 쉽게 올라갔다. 그런데 그 피치에서는 나보고 서라고 해서 볼트를 하나 걸고 올라갔는데 볼트2개를 걸때까지가 상당히 멀었다. 천천히 올라가는데 절대 떨어질 곳이 아닌데도 갑자기 미끄러져 8m 정도 떨어졌다. 순간 앞이 안보이더니 한참 후 내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정신 차리고 확보지점까지 올라갔다.

그때 벨트를 보니 벨트 끝부분 끈이 2cm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떨어질 때도 몰랐던 두려움이 밀려왔다. 다시는 톱으로 올라가기가 싫어졌다. 또한 장민이 형은 떨어질 때 나한테 맞아서 발이 붓고 피가 나서 하강했다. 나도 현성이 형이 올라온 후 내려왔다. 다시는 암벽이 하기 싫어졌다. 그 후 그곳을 또 하려니까 올라갔던 부분도 떨어져서 못 올라가고 내려왔다. 다시는 암벽이 하기 싫어졌다. 그 후 그곳을 또 하려니까 올라갔던 부분도 떨어져서 못 올라가고 내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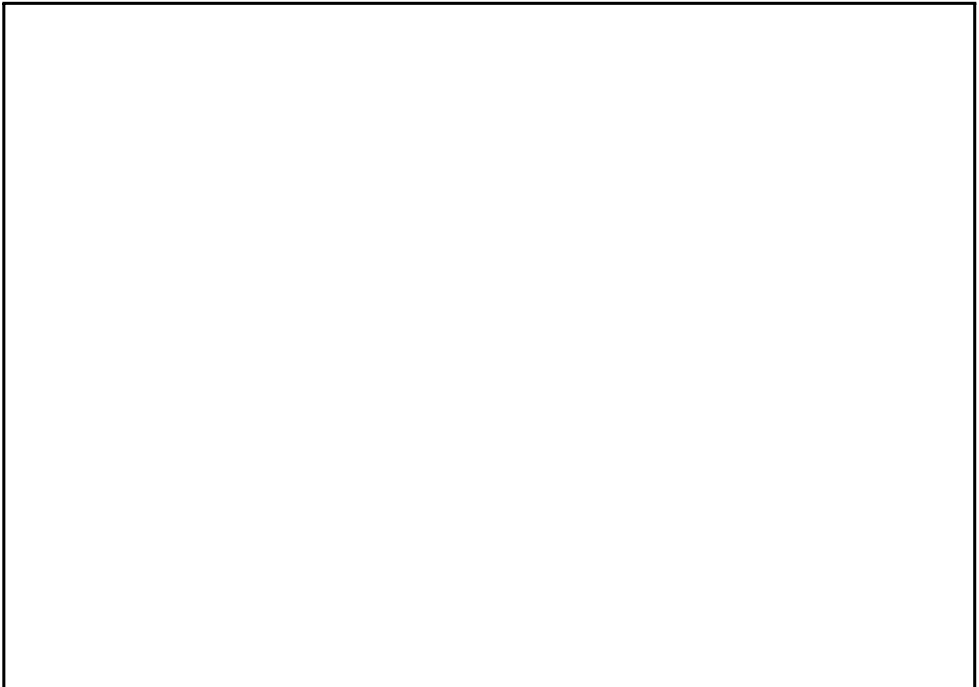
창피해서 돌아 버리는 줄 알았다. 조금 있다가 바로 옆 암벽을 올라갔다. 그곳도 키크로우와 후랜드를 잡고 올라갔다. 올라가서 다행이었다. 올라가면서 벨트가 풀어질까 봐 조마조마했다. 내려와서 대충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하산했다. 확보지점에서 벨트를 보았을 때는 죽었다 살아난 기분이었다. 조금만 더 떨어졌더라면 나는 세상 하직할 뻔 했던 것이다. 휴 ...

야영장까지는 천천히 걸어갔으나 차타는 곳까지는 구보를 해야만 했다. 그런데 현성이 형이 나보고 선두에 서라고 하며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었다. 선두에서 뛰면서 동기들에게 노래를 시키기도 하고 전부 남도산행가를 시키기도 했다. 동기들은 천천히 가라느니 걸어가자느니 했지만 웬지 그럴 수가 없었다. 내가 선두가 아니고 그냥 따라가는 처지였다면 나 또한 그런 생각을 가졌을 테지만 조장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천천히 뛰며 목적지까지 갔다. 역시 조장이 되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눈치껏 잘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다.

주유소에서 얼마 기다리지 않고 차가 와서 광주로 향했다. 버스 짐칸에 배낭을 싣지 못해서 갖고 탔다. 조금 자다가 문득 비상식이 생각났다. 별로 먹을 것은 없었지만 모두와 맛있게 나누어 먹었

다. 광주에 도착해서는 오리탕 집에 가서 뒷풀이를 하고 헤어졌다.」

내 머리 속에서는 마냥 즐거웠던 기억들만이 머리 속을 맴돌고 있을 뿐이다.



❖ 갈대밭에서 전 대원이 만나 ❖

추계훈련등반(B조)

39기 방경환

추계 훈련등반 전날에 나의 동기인 만도와 준연이 형이 군대라는 새로운 대학에 입학하게 됐다. 만도와 준연이 형이 둘 다 안가는 산행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항상 산행전의 예비모임 때 있어야 할 사람이 없으니깐 왠지 회관이 낯설고 멀게만 느껴진다. 그렇지만 곳곳하게 나에게 주어진 길만 걸겠다.

본격적으로 추계 이야기를 하겠다. 나는 B조로서, 어떤 무리한 운행을 해서라도 목표를 이루고 마는 저돌적인 성격인 지환이 형과, 이에 버금가는 성격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몽둥이를 겸비한 현조 형과 39기들을 갈구는 대표적인 인물 중의 한 명 수연이 누나와, 나하고는 그리 산행이 많지 않았던 sexy. 이렇게 5명이 한 조가 되어 행동을 같이하게 됐다.

쏘가리와 원기는 내가 걱정된다고 했지만 비가 와 가지고 날씨가 춥지만 않는다면 체력에 자신 있는 나로서는 전혀 긴장조차 되지 않았다. 마을에서 물을 뜨고 바로 산으로 붙었다. 능선으로 가기 위해 정상까지 길을 뚫었다. 항상 조장이 뚫은 길만 가다가 막상 내가 길을 뚫고 가보니 조장의 힘든 마음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나에게서는 너무 재밌고 이제야 산행다운 산행을 한 것 같았다. (배낭이 나뭇가지에 걸리는 것만 빼고) 내 자신이 힘이 남아돌았는지 희미한 길이 옆에 있어도 나는 무조건 뚫어 버렸다. 뒤에서 sexy는 곧 죽을 표정으로 따라오고 있었다. 한참 가다가 sexy가 눈이 풀린 눈으로 나를 보며 “빵아! 10분간 휴식하자.”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느덧 내가 진짜 조장이 된 기분으로 더욱 힘이 나 계속 가버렸다. sexy한테 너무 미안했다.

시간은 계속 가고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선배님들이 잠깐 길을 찾는데 sexy가 옆에서 서서 눈을 감고 있었다. 내가 “sexy야 자지마.” 하니깐 sexy는 안자겠다고 계속 우겼다. 내가 다 봤는데 거짓말을 하는 sexy가 너무 불쌍했다. 하계 때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우리들은 점점 피곤함이 몰려왔다. 아침 9시까지 천황봉에 가기 위해 오늘 자는 것은 포기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지환이 형께서 먼 일인지 두 시간만 자고 가자고 했다. 나는 별로 담담한 표정인데, sexy는 옆에서 좋아서 죽을려고 한다. 이때 시각은 새벽 5시 30분, 7시 30분에 기상이다. 차라리 잠을 재우지 말 것이지. 아침에 일어나는데 미칠 것 같았다.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천황봉을 향하여 또 걸었다. 지금 나의 컨디션은 맑은 공기와 함께 최상이다. 종주가 이렇게 재미 있는 줄은 몰랐다. 특히 오르막길도 힘들지만 재밌다.

갑자기 뒤에서 어설픈 에코우소리가 들렸다. A조인 것 같았다. 우리는 진작 간 줄만 알고 있었는데 역시 우리보다 늦었다. 헤어진지 몇 시간 안됐는데 동기들을 보니 반가웠다. 우리들은 아침 점심을 먹고 또 걸었다. 천황봉을 0.3Km 남겨 놓고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정상을 눈앞에 두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와 쏘가리와 용훈이 형이 먼저 1차로 도착했다. 아주 마음이 상쾌했

다.

그런데 갑자기 불쾌했다. 용훈이 형이 쏘가리와 나보고 밑에 내려가서 선배님 배낭을 받아 올라 오라고 했다. 여기서 욕이 안 나오면 인격자다. 쏘가리와 나는 불만스러운 투로 내려갔다. 마음은 빨리 내려가서 받아 주고 싶은데 몸이 따라 주지 않았다. (거짓말 같지만 진짜다.) 현조 형, 현성이 형이 올라오고 계셨다. 배낭을 주라고 했는데 됐다고 하셨다. 아주 좋으신 선배님들이시다. 우리들은 정상에서 약간의 휴식을 취한 뒤 암벽을 하기 위해 시루봉으로 향했다.

시루봉에 도착해서 조를 나누어 암벽을 시작했다. 나는 현조 형과 둘이만 한 조였다. 코스는 중앙길이다. 1피치 톱은 쉬었지만 2피치 인공등반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나한테도 안되는 바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조 형이 대신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현조 형은 될 때까지 계속하셨다. 슬립 당하면서 겁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바위가 재밌다고 하셨다. 나는 같은 곳에서 슬립 세 번 정도 당하면 겁부터 나는데.

이윽고 어둠이 찾아와 우리 모두 하강했다. 34기 OB 지형이 형이 통닭을 사 오셨다. 산에서 통닭을 먹어 본 것은 머리털 나고 처음인 것 같다. 그만큼 더 맛있었다. 우리는 시루봉 근처에 막영을 했다. 저녁을 먹고 술을 사러 가는 동시에 물을 떠오라고 했다. 쏘가리와 나는 그만 운명의 가위 바위 보에서 져서 또 내려가야만 했다. 피곤해 죽겠는데 기분 더러웠다. 이것보다 더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용훈이 형과 쏘가리, 나는 힘들게 갔다 왔는데 모두들 자고 있었다. 허무함보다는 배신감이 들었다. 나에게는 아무런 힘과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참았다. 쿨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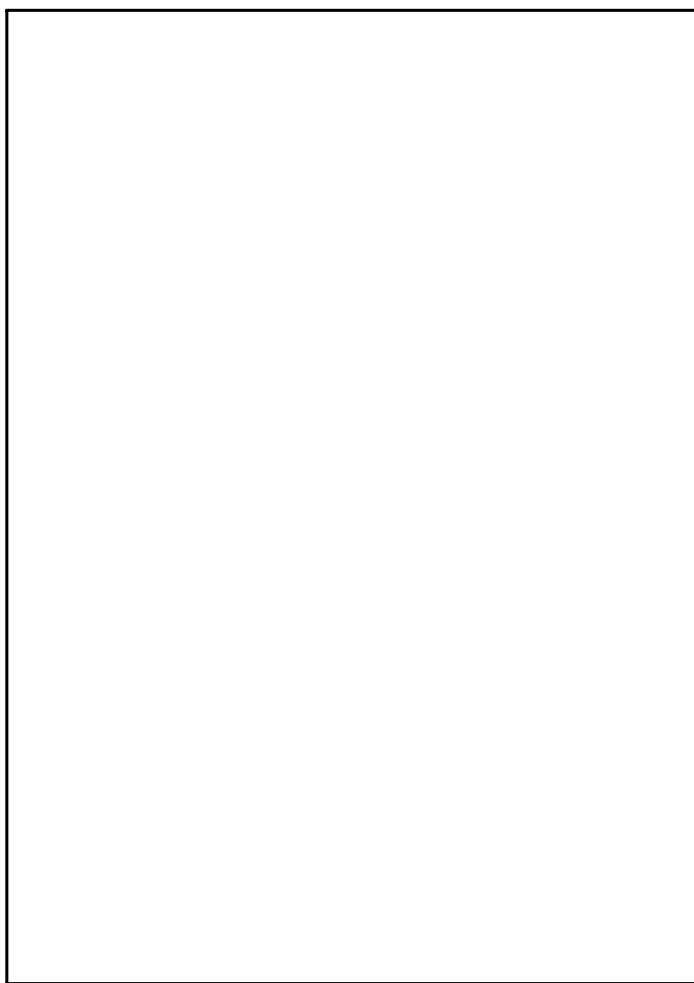
아침을 먹고 우리는 매봉에 도착했다. 또 조를 나누어 각자 헤어졌다. 지환이형과 용훈이 형, 나 이렇게 한 조였다. 먼저 용훈이 형이 톱을 섰다. 볼트 두 개 다음부터서 계속 슬립을 먹었다. 그것도 좀 많이 떨어지는 슬립이었다. 나는 겁이 났다. 그래서 나는 용훈이 형보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하였다. 속도 모르는 용훈이 형은 끝까지 했다. 그래서 나는 밑에서 지환이 형과 옆코스에서 쏘가리가 2피치 톱서는 것을 보고 있었다. 용훈이 형이 슬립 먹는 동시에 쏘가리도 슬립 먹었다. 용훈이 형은 괜찮은데 쏘가리는 많이 떨어지면서 뒤로 가까졌다. 지환이 형과 나는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다. 그 상황에서 쏘가리는 벨트가 거의 다 풀어졌다고 한다. 정말 아슬아슬 했다. 쏘가리가 죽었으면 나는 누굴 가지고 놀겠는가? 정말 큰일날 뻔했다.(심심할 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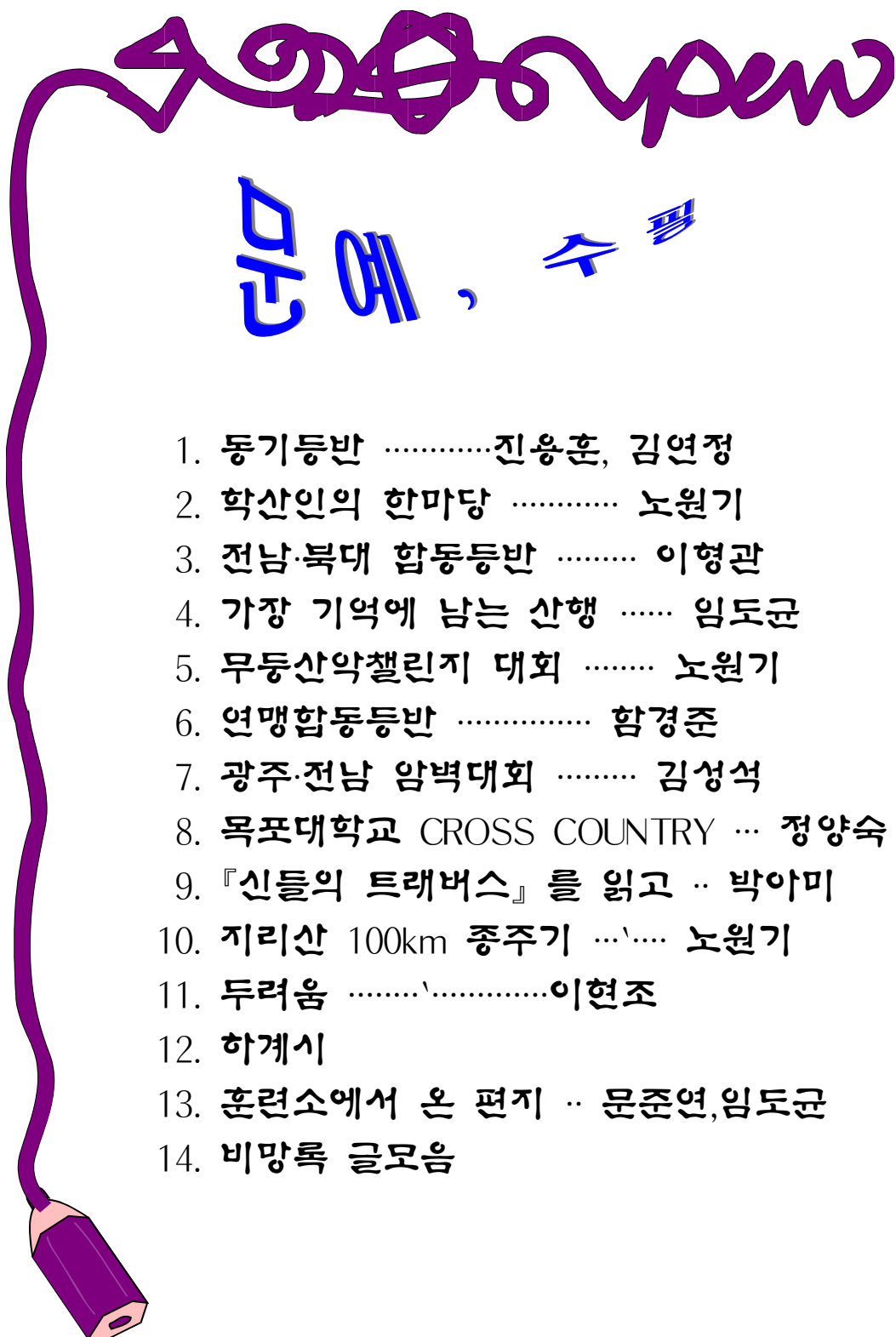
우리 조 코스는 용훈이 형이 포기하고 내가 도전하기로 했다. 용훈이 형이 슬립 먹은 곳은 내가 자신 있는 레이백 코스였다. 레이백을 뜯으니 팔에 힘이 없었다. 잡을 곳도 많이 있고 힘을 많이 쓰면 더 올라갈 수도 있었다. 그런데 좀 더 올라가서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떨어져 버렸다. 역시 나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좀 쉬고 있는데 현성이 형이 인공등반 코스를 하라고 해서 그쪽으로 갔다. 먼저 선등이 아니니깐 부담이 되지 않고 겁도 하나도 나지 않았다. 이 코스는 sexy가 프랜드를 끼우면서 선등으로 올라갔다. 후등으로 가기도 힘든데 역시 sexy는 대단하다. sexy는 끼우는데 남다른 재능이 있는 것 같다. sexy가 나의 확보를 봤다. 나는 빨리 올라갔다. 이제는 내가 확보를 보는 차례다. 확보 볼 때가 차라리 제일 좋다. 하지만 확보 볼 상대는 원기였다. 완전히 나는 죽는 줄 알았다. 원기를 조금이라도

끌어 주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원기가 거의 다 올라왔는데 더 끌어 주기는 커녕 자일이 점점 밑으로 내려갔다. 원기는 줄이 점점 내려간다고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더 이상 원기도 힘이 없었는지 포기했다. 그 대신 쪼그려 뛰기 100개를 하고 다시 다른 코스를 하기로 했다. 오랜만에 쪼그려 뛰기를 하는 원기를 보니 옛 생각이 나서 보기 좋았다.

이윽고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짐을 챙기고 하산했다. 야영장에서부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구보를 했다. 우리들은 곧 먹게 될 오리탕을 생각하면서 힘든 줄도 모르고 뛰었다. 드디어 광주에 도착했다. 맛있는 오리탕을 먹고 각자의 길로 갔다. 이번 훈련등반을 통해서 내가 가장 약했던 종주를 확실히 굳히게 됐고, 조장의 길은 가깝고도 험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것 같다.





4월 4주

문예, 수필

1. 동기등반진용훈, 김연정
2. 학산인의 한마당 노원기
3. 전남·북대 합동등반 이형관
4. 가장 기억에 남는 산행 임도균
5. 무등산악챌린지 대회 노원기
6. 연맹합동등반 함경준
7. 광주·전남 암벽대회 김성석
8. 목포대학교 CROSS COUNTRY ... 정양숙
9. 『신들의 트래버스』를 읽고 .. 박아미
10. 지리산 100km 종주기 ...'\.... 노원기
11. 두려움'\.....이현조
12. 하계시
13. 훈련소에서 온 편지 .. 문준연,임도균
14. 비망록 글모음

동기등반 (38기, 해남 달마산)

38기 진용훈

4월 22일. 모이기로 한 8시를 조금 넘겨 도착하니 창균이를 뺀 현주, 옥랑, 수연, 진영이가 먼저 와 있었다. 이번 춘계훈련등반 코스인 땅끝기맥을 답사할 겸해서 대상지를 해남 달마산으로 잡았다. 하지만 달마대사하고는 어림반푼어치도 관계없는 산임을 밝혀둔다.

1시간을 기다렸다. 지각에는 이골이 난 실베스타 스텔론과는 전혀 닮지않은 Mr. 한이 또 늦은 것이다. 전화를 하니 자고 있다. 10시에 나타난 창균이의 모습을 시계탑을 배경으로 하여 몰래 찍었다. 나중에 놀려먹기 위해서다. 이렇게 우리의 동기등반은 대책없이 시작됐다.

초입인 포장도로를 가며 우린 마냥즐거웠다. 수동적인 산행인 아닌 우리들의 의지로 하는 한없이 자유로운 산행이기 때문이다. 이윽고 달마산 중턱에 위치한 미황산에 도착했다. 고풍스럽고 아담한 절은 흐리고 안개가 차있는 날씨가 양념이 되어 우리에게 크나큰 감동을 주었다. 여기서 물을 뜬 후 10분정도 올라서니 좋은 텐트자리가 있어 여기에서 막영을 하기로 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들 세상이었다. 가져온 고기와 라면을 먹고 치운 우리는 세찬 빗소리를 빗삼아 침낭속에서 둥글게 앉아 온갖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산이야기도 하고 온갖 선배들을 씹기도 하고(이 때가 가장 신났다) 정말 시간가는 줄 몰랐다. 평소 산행에서는 저녁을 먹고 반성을 하고 바로 잠을 들기 일쑤였는데 여기선 아무렇게나 누워 장난치며 놀고 욕을 해도 누가 뭐라 하리요. 형들이 동기등반이 너무너무 기억에 남고 재미있을 것이라는 말이 맞긴 맞다.

이윽고 자리를 정리하고 잠을 청했다. 어느덧 비는 멎고 바람 소리와 낙엽소리를 들으니 얼마전에 있었던 ‘뽕 귀신사건’이 생각나 애들에게 말하니 여인들이 기겁을 한다. 그 걸 보고 한바탕 웃고 내일의 산행을 기약하며 zzzzzz

눈을 뜨니 밖이 환하다. 시계를 보니 9시. 의견일치로 더 자기로 하고 다시 누우니 10시가 넘어 기상. 밖은 너무 화창했다. 어제의 비는 흔적도 없다. 다들 신났다. 텐트파와 산행파의 대결에서 산행파 승리, 달마산 정상상을 향해 출발했다. 도중에 선두인 창균이가 보이지 않아 나머지 5명은 따로 올라 능선을 올라섰다. 정상은 멀리 보이고 거기에서 창균이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너무 엇갈린 것이다.

정상까지의 능선은 험한 릿지라 트래버스해서 달마산 정상 봉화대에 도착했다. 동쪽으로 바다가 보이고 서로는 숲속에 파묻힌 미황사가 아스라히 보였다. 그냥 넘어갈수 있나. 우리는 한 컷 찰각. 어어 안찍히네 건전지약이 떨어진것. 하지만 불굴의 산악회. 정상에 모여있던 일반산악회아저씨에게 사정애기를 하고 건전지를 빌리는데 성공. 서로 온갖 개품 잡으며 사진을 박았다. 그중 근엄상을 받은 현주품이 압권이었다. 점심으로 라면을 먹은 후 아쉬움을 불들어 매고 암릉을 지나 송촌일제계곡으로 하산해 해남 터미널로 향했다.

항상 긴장된 산행도 좋지만 동기 등반같이 자유롭고 능동적인 산행을 하니 산에 대한 사랑과 열

정이 남달라지는 느낌이다. 특히 동기들끼리 서로의 생각이나 불만들을 나누고 공유하니 더욱더 그들에 대한 사랑이 커감을 느낀다.

애들아 우린 그동안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그 밑에는 서로간의 똘똘 뭉친 동기애가 고요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안다. 앞으로 힘들어도 같이 한 산행과 뺏다(?)와 웃음을 생각하며 힘을 합해 잘하자꾸나. 38기 화이팅!

동기등반(39기, 고창 선운산)

39기 김연정

오전 내내 짝 내키지 않던 날씨가 오후 되어서도 여전하다. 고놈 참 그렇게 맑아 달라고 빌었건만, 끝내 나의 마음을 외면해 버리다니 …. 여차 하면 한바탕 쏟아지려는 날씨였다.

그러나 많지 않은 나의 짐을 담고 가볍게 배낭을 매는 순간, 아! 생각의 자유로움. 세상의 그 어떤 자유가 부럽지 않을 정도다. 떠난다는 그 자체, 해방이라는 그 자체가 잠시 머릿속을 해매었다. 생각해 보면 이제껏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이런 해방감을 맛보았던가 …. 손가락에 핏을 정도로 그리 많지 않았으리라. 아! 사랑한다 나의 자유야. 이렇게 외쳐 보고픈 마음이었다.

줄을 맞추어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자유로움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인지 “야, 줄 맞춰!” 해본다. 그리곤 “자식” 하면서 서로 웃는다. 괜히 형들 하던 대로 해보면서도 영 어색한 모양이다. 자식들 훗하다. 보나마나 후배들 들어오면 자기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놈 저놈 해 가면서 갈구겠지. 생각만 해도 웃기다.

이런저런 이야기해 가다 보니 어느 새 목적지에 도착했다. 여럿이 품잡고 사진 몇 장 찍은 다음 선운사 뒤쪽으로 올라가 텐트를 치고 짐을 풀었다. 서로가 부지런히들 그 동안 배운 거 서로 써먹으면서 즐거운 모양이었다. 서로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가져온 술로 한잔씩 마신 다음, 각자 이야기도 하고 게임도 즐기며 우리는 밤을 밝혔다.

소주 P.E.T병 세 개째 딸 무렵, 동기 중 한 명은 얼큰하게 취해 대장 노릇을 하고, 다른 동기 한 명은 짝사랑 이야기를 하며 각자가 얼마나 웃겼는지 모른다. 난 그리 많은 술을 마시지 않은 이유로 맑은 정신으로 술이 얼큰하게 취한 동기들을 보고 있노라니 얼마나 정이 가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른다. 생각해 보면 난 동기들을 위해 술을 마시지 않았었고, 동기들은 날 위해 술을 마셔 주었던 게 아닌가 싶다. 술에 취한 동기들 이것저것 챙겨 주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었다. “자식, 많이 마시더라니” 해 가면서 등도 한 대씩 치고 할 말 못할 말 다하고 말이다.

밤이 깊어 하나 둘 쓰러지고 눈을 뜨니 어느새 아침이었다. 밤새 마셔서 그런지 모두들 일어날 줄을 모른다. 피곤했다. 미적미적거리다 하나 둘 깨우고 일어나 밖에 나오니 너무나 눈이 부셨다. 하느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 걸까.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너무나도 맑은 하늘이었다. 빨리 출발하고 싶었다. 부지런히 아침 챙겨 먹고 출발준비를 마쳤다. 형관이와 경환이는 남아서 텐트를 지키기로 하고 나머지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였다.

처음부터 순조로운 시작이었다. 그리 힘이 들지도 않았고 주위 신경도 때에 찬 단풍 빛을 마음껏 발하며 우리를 반겨 주는 듯 했다. 대장 아닌 대장의 지시를 받으며 한 걸음씩 떼어놓던 우리는 과연 이것이 진짜 산행이 아닌가 하고 여러 번 감탄의 말을 토했다.

그런데 그런 도중 이게 웬일인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길을 잘못 지나온 것이었다. 아차! 하는 순간 뼈뼉하게 시작한 길은 어떻게 고쳐 볼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하

는 수 없이 우리는 큰길로 내려와 갈 길을 정하기로 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바로 앞에 투구바위라는 암벽이 보였다. 현준이의 제안에 의해 우리는 그곳으로 가기로 했고, 길이 없다고 생각한 우리는 길을 뚫기로 했다. 좁은 틈을 뚫고 헤쳐 가는 기분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가끔 가시에 찔리기도 했지만 별로 아프지도 않고 즐겁기만 했다. 오르고 또 올라 드디어 정상에 도달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아니 이런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 너무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멋있는 경치였다. 동굴같이 두 바위 사이로 아늑하게 반사되어 들어오는 햇빛, 그 햇빛이 다시 단풍에 반사되어 그곳이 온통 붉고 노란빛으로 반사되는 것이었다. 정말 너무너무 올라오기 좋했다는 생각과 동시에 자연을 찾아 아니 산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혹시 이런 것을 찾아 나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가져온 카메라에 문제가 생겨 그 아름다운 곳에서 사진을 찍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정말로 그 광경이 너무나 아쉬웠다. 그래서 동기들과 제각기 다짐했다. 다음에 꼭 다시 한 번 올라와 보겠다고 말이다. 정말 이렇게 적은 수만이 이런 경치를 즐기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아까웠다. 그리고 뛰어 내려가 형관이와 경환이를 데리고 올라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 데리고 올라오지 못한 게 못내 아쉬웠다.

잠시 코펠과 라면을 꺼내 점심을 그곳에서 때운 다음, 떠나기 싫은 그곳을 내려와 정기코스를 돌아본 다음, 오후 4시 30분 경이 지나 애들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비록 정기코스를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 투구바위를 다녀왔다는 생각이 날 너무 기쁘게 만들었다. 형관이와 경환이도 나름대로 우리를 찾아 산행을 했단니까 그런 대로 아쉬운 점은 없었다. 산을 내려오면서 다음에 꼭 다시 한 번 오겠다고 다짐을 하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그곳을 떠나왔다. 나의 일생에 있어 잊지 못할 산행으로 기억될 것이다. 산행 경험으로나 동기에에서나 말이다. 정말 떠나기 싫은 마음으로 나선 그곳, 언제쯤 다시 그곳에 서 있을지 ….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고 느끼게 한 나의 소중한 산행이었다.

학산인의 한마당

39기 노원기

『학산인의 한마당』 생각하기 싫은 것 중의 하나이다.

학산인의 한마당은 호남대 제2캠퍼스에서 열렸다. 조금 늦게 호남대에 도착하여 옷을 갈아입고 밥을 지었다. 웬지 그날은 예감이 좋지 않았다. 밥을 먹고 각 대학의 산악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막 잡은 돼지를 구워 안주로 삼고 막걸리를 마시며 모두가 흥겨운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웬지 분위기가 어색하고 몸이 피곤하여 아무 생각없이 텐트에 누워 있는데 그때 38기 창균이 형이 와서 누가 자리를 이탈하라고 했냐면서 마구 다그치는 것이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자리에 와서까지 저럴 필요 있나. 산도 아니고 그냥 노는 자리인데 ... 이런 생각을 했으면 서도 뭐라 말도 못하고 그냥 창균이 형을 따라서 그 자리에 다시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자연이 나를 부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창균이 형한테 화장실 간다고 말하고 난 뒤 불일을 보고, 막 나오려고 하는데 광주대 동기를 만났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지기 시작했다. 도균이, 방환이 나, 그 애 4명은 시간가는 줄을 모르고 학교얘기부터 산행얘기 계속 말이 이어졌다.

그러다가 현조 형이 인상을 구기며 나타나 매를 구해 가지고 뒤로 오라는 것이다. 우리는 순간 ‘앗차!’했지만 그리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현조형은 그게 아닌 것 같았다. 모두 5대씩 맞았는데 정말 화가 났다. 그 일로 인하여 나는 사실 몹시 산악회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사소한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나는 이 일로 인하여 산악회를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그 뒤 산행을 일체 가지 않았다. 그리고 빠진다고 말을 하고 일절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무슨 생각인지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이 산악회에 발을 들여놓았다. 다시는 학산인의 한마당에서 겪은 일 같은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게 나 자신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행동하겠다. 사실 그 때는 내가 조금 어렸던 것 같다. 멍모르고 날뛰는 망아지 같은.

이게 나의 학산인의 한마당에서 일어난 일이다. 나는 95학산인의 한마당은 산악회 활동을 하는 동안 잊지 못할 사건 중의 하나가 될 것 같다.

전남·북대 합동등반 (6.3 - 6.4, 전북 대둔산)

39기 이형관

전남·북대 합동등반은 나에게 있어서 두 번째 산행이었다. 처음은 암벽하러 갈려고 했으나 비가 와서 무등산 종주를 한 것이다. 이번 전남·북대 합동등반은 전북 대둔산에서 했다. 나에게 있어서는 처음으로 암벽을 경험하게 한 산이다. 터미널까지 9시에 집합이어서 8시 45분에 도착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차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수연이 누나가 정렬을 하라고 하더니 push up을 시켰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가지도 않는 사람이 나와서는 왜 굴리는 것인가. 또 다른 선배들도 그 짓을 좋아하는지 누구하나 말하는 이가 없었다. 미친 놈들이 미친 짓만 시키는 구나! (터미널에서)

전주에 도착해서 대둔산으로 갔다. 버스에서 내려 트럭으로 산까지 갔다. 조금 올라가서 밥을 해 먹었다. 비가 많이 안 왔으나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암벽은 안할 줄 알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북대 3명이 내려 왔다. 전부 남자인 줄 알았는데 2명은 여자였다. 한참을 걸어 올라가니 텐트2-3동을 쳐 놓은 곳이 있었다. 도착해서 정리하고 빈 몸으로 정상까지 올라갔다. 정상에서 사진을 찍고 내려 왔다. 내려와서 밥을 해 먹고 술 먹으면서 놀다가 12시에 OB선배가 내일 산행이 있으니 일찍 자라고 해서 잤다. 몇 시에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다. 일어나서 식사하고 정리하고 바로 암벽 하러 갔다. 처음 보았을 때 이런 곳을 어떻게 올라갈까 한참을 생각했으나 다른 아이들이 쉽게 올라가기에 쉬운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가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데도 손잡을 곳이 없으면 계속 떨어졌다. 점프를 하라고 해서 했더니 더 많이 떨어지기만 했다. 그 곳을 볼트잡고 넘어간 뒤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올라갔다. 하강하고 바로 조를 나눠서 각각 다른 길로 올라가 정상에서 보기로 하고 헤어졌다. 우리 조에 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역시 힘들게 올라온 댓가를 느낄 수 있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과 바위에 매달려 보는 풍경은 다르게 느껴졌다. 기분은 좋았다.

하산하고 전주에 도착해서 식당에서 뒷풀이를 했다. 모두들 상당히 즐거웠던 것 같다.

잘 먹고 광주로 돌아왔다.



◈ 대둔산 ◈

가장 기억에 남는 산행

38기 임도균

배낭이 어깨를 짓누른다. 몇 계단 올랐을 뿐인데 벌써 숨이 차다. 머리가 아프다. 그만 가고 싶다. 그러나 가야만 한다. 흡사 뱀껍질을 연상케 하는 줄과 생전 처음 보는 쇠고리 등을 짊어지고 나는 월출산 시루봉을 향하고 있었다.

워낙 힘들게 올라와서 그런지 목이 마르다. 수통을 꺼내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물을 먹었다. 한 모금 마시기가 무섭게 옥랑이 누나가 “형들에게 물어 보고 먹어야지!” 하면서 뭐라고 한다.

‘별것 갖고 다 트집이네. 먹는 물 가지고 말이야. 널린 게 물인데’ 이렇게 대꾸하려다 말았다. 지금 같으면 어렵도 없겠지만 어쨌든 나는 선배님들이 해주는 대로 가랑이 사이로 벨트를 차고 안전 모를 썼다.

여기 오지 전까지만 해도 나는 암벽이라는 게 그 뱀껍질 같은 줄만 잡고 올라가는 걸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순전히 자기 힘으로만 올라가는 것이었다. 충격이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무섭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진영이 누나가 나보고 쪼그려 뛰기를 시킨다. 자일을 봤다나…. 어이가 없었다. 그것 좀 밟았기로서니 쪼그려 뛰기를 100개씩이나 하라니 어쩔 수 없이 100개를 했다.

조금 있으려니 내 차례가 되었다. “전남대학교 산악회 임도균 39기 등반준비완료!”, “전남대학교 39기 임도균 출발준비완료!” 등 이 짧은 문구를 못 외워서 또 쪼그려 뛰기를 했다.

바위에 첫걸음을 내딛고 무작정 올라섰다. 조금 올라서니 잡을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 그러나 앞을 보니 쇠고리가 하나 박혀 있었다. ‘아! 이것을 잡고 올라가라고 박아 놨구나, 고맙기도 해라.’ 하고 쇠고리를 잡고 올라 채니 현성이 형이 갑자기 자일을 풀라고 한다. 쇠고리를 잡았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들키고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들켜 버린 것이 너무도 아쉬웠다.

처음으로 슬립이라는 것을 먹었다. 조금 아찔한 것은 들췌치고 가운데 다리가 너무도 아팠다. 슬립을 먹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습득했다.

어떻게 올라갔는지도 모른다. 올라와서 또 보고를 잘못해서 쪼그려 뛰기 추가. 나 같으면 올라오느라고 수고했으니 쉬라고 가만 놔두겠지만 이건 도무지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본다. 노래 불러라, 뭐해라. 정말 가만 두지를 않는다.

이제 2피치를 올라야 하는데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는다. 정말 너무나 가기가 싫다. 처음에 슬립을 많이 먹었다. 내려오라고 할 줄 알았지만 아무 말도 없다. 어쨌든 슬립과 자일당겨를 수없이 외치면서 2피치를 올랐다.

확보를 하고 있으려니 이제는 날 갈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웬걸 현조형이 오시더니 확보를 보라고 한다. 올라오느라고 힘을 다 써서 힘도 하나도 없는데…. 확보 보는 것도 올라오는 것만큼 힘들었다.

경준이가 올라와서 확보 보는 것을 교체하고 앉아 있으려니 이제 2피치는 장난이 아니었다. 너무도 무서웠다. 꼭 떨어질 것만 같았다. 눈발이 흩날리고 너무도 추웠다. 괜히 왔다는 생각은 이미 했지만 이제는 진짜 내려가기만 하면 집에 보내 주라고 말하기로 다짐하고 또 했다. 우리 조가 다 올라와서 하강을 했다. 처음 하는 하강이어서 그런지 하강도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다. 내가 하도 무서워서 왼손에 힘을 주니 왼손을 놓으라고 한다. 왼손을 놓으면 옆으로 넘어질 것 같아서 그래도 꼭 쥐고 내려갔다.

어떻게 하강을 해서 그토록 그리던 흙을 밟았다. 너무도 안정이 되었다. ‘이제야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배낭을 챙겨서 막영지로 왔다. 저녁을 먹고 나서 반성을 하는데 집에 보내 주라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다. 은화는 사촌 결혼식 때문에 내일 가야만 한다고 한다. 너무도 부러웠다. 나도 정말 가고 싶었다.

저녁에 몰래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잠이 들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막 깨운다. 일어나니 아침이다. 밥하라고 한다. 잠때문에 탈출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추위 죽겠는데 선배님들은 텐트 안에서 잠자면서 우리보고 밥하라고 한다. 너무나 억울해서 한마디 했더니 욕량이 누나가 꼬우면 빠지라고 한다. ‘걱정 마쇼, 내려가기만 하면 남아 주라고 사정해도 내 남는가 보시오. 경찰에 신고 안하면 다행인줄 아쇼!’라고 속으로 삼켰다.

어제 저녁 먹은 술로 속이 느글느글하더니 기어이 토하고 말았다. 이제 나는 이런 상태로 도저히 암벽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선배님들에게 이끌려 또다시 시루봉으로 갔다. 오늘은 현성이형, 용훈이형, 경환이, 나 이렇게 한 조이다. 용훈이 형이 톱을 서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언제 나도 저렇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용훈이형 올라가고 나서 경환이와 나는 서로 안 올라가려고 하다가 쪼그러 뛰기를 했다. 결국은 가위 바위 보를 해서 내가 져서 먼저 올라갔다. 용훈이 형은 줄을 위낙 세계 당겨 주어서 너무나 좋았다.

어쨌든 1피치를 올라가고 2피치도 올라갔다. 이제는 3피치를 오를 차례이다. 내 판으론 얼른 올라가서 쉬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3피치는 내가 먼저 올라간다고 했다. 그러자 현성이 형이, “용훈이가 추우니까 니가 썩매고 올라가서 용훈이 옷줘라.”라고 말했다.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배낭 메고 올라가라니 어쨌든 까라면 까야지 어쩐랴. 그래서 올라갔다. 초입이 어려워 보였지만 어떻게 올라 채니 오버행이 나타났다. 나의 시련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산에 간다고 해서 운동화까지 1개 새로 사서 신고 왔는데 바위틈에 발을 끼워 넣으면서 신발 옆에 핑크가 났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확보 보는 사람도 안보이고 정말 여기서 슬립 먹으면 엄청나게 떨어져 버릴 것만 같았다.

몇 분이 흘렀을까? 아니 몇 십 분이 흘렀나 보나 현성이 형이 고전하는 나를 보고 비너에 슬링을 걸어 올려 보낸다. 거기에 발을 딛고 올라서라고. 그러나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발을 넣고 올라서니 몸이 흔들거리며 아까보다 더 무섭고 힘들었다. 계속 시늉만 했다. 오늘은 여기서 만족하고 내려갔으면 하는 심정이 간절했다. 현성이 형이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뒤로 돌아서 “나는 할 수 있다!”를 복창하라고 한다. 정말 이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모험이자 시련이었다. 그냥 바위보고 하기

도 싫은데 뒤로 돌아서서 하라니…. 너무 무서웠지만 열 번을 복창했다. 그러나 계속 바위만 붙잡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나 보다. 현성이 형이 용훈이 형보고 자일을 늦추라고 한다. ‘아! 나를 하강시키려는구나.’ 3시간 동안 바위를 붙잡고 있던 내 정성에 드디어 현성이 감동하신 것이다. 기분은 엄청 좋았지만 이것을 표정으로 나타내면 안될 것 같았다. 2피치에 도착해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경환이가 얼굴이 하얗다고 하면서 괜찮냐고 물었다. 내 연기가 정말로 리얼했나 보다.

어쨌든 나는 3피치 등정을 못하고 내려와야만 했다. 경환이의 표정 속에서 ‘니가 3시간 동안 투쟁한 덕에 내가 안 올라 갈 수 있어서 고맙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여자동기도 3피치까지 올라갔는데 남자인 내가 못 올라간 것에 대해 조금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 이제는 산악회 빠지니까 이 무서운 짓거리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도 좋았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산악회에 남아서 이 무서운 짓거리를 아직도 하고 있다.

무등산악 챌린지대회

39기 노원기

10월 29일 일요일에 제1회 무등산 산악 챌린지 대회가 있었다. 요즘 무릎이 좋지 않아 나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빵의 속임수에 넘어가 나가게 되었다. 8시에 금남중을 도착하여 휴식을 취한 뒤 10시에 출발한다고 했다. 개회식이 끝나고 영계들의 에어로빅을 따라서 한 뒤, 드디어 일반부와 대학생부가 제일 먼저, 그 다음 5분 뒤로 중고등부와 노년부가 출발이다.

나는 혼자 생각했다. 그래 이왕 나온 거 최선을 다해 나의 체력에 한계를 한번 느껴 보는 거다. 드디어 출발. 대부분 이런 대회는 도로에서 결판이 난다고 판단하고 도로에서부터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짧은 도로 구간이 끝나고 산에 붙었는데 발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지 않았다. 모두 내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의 정강이 부분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속력은 줄어 들고 나는 거의 꼴등에 가깝게 되었다. 급기야는 5분 뒤에 출발한 중고등부들까지 나를 향해 ‘좀 비켜 주시래요’ 라고 하는 말이 들려 왔다. 그 순간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듯 했다. 그리고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들까지도 . 나는 도중에 포기해 버릴까 생각을 했다. 꼴등으로 창피하게 들어가느니 차라리 좀 엄살을 부려서 그냥 뛰지 않을까 그러나 우선 동기들에게 창피하고 선배님들의 후환이 두렵고, 나 자신이 생각만 있지 내가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 그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끝까지 가서 4시간이란 기록으로 들어왔다. 들어와서 보니 내 뒤에는 거의 사람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95학번으로서 산에 새해 많이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산은 하나의 인생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상을 향하여 오르막길, 내리막길, 평지를 걸으며 정상에 오르면 다시 . 저 아래 땅을 향해 똑같은 과정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 꼴등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일단 목표를 잡으면 빨리 가는 사람, 도중에 늦게 가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밀어붙여라. 그러면 결국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두 사람은 같은 위치에 서 있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 비록 다리에 통증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지만 완주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음에는 체력을 더 키우고 가꾸어 정상까지 힘차게 뛰어올라 가겠다.

연맹합동등반(광양 백운산)

39기 함경준

이상하게 이번 산행은 가기가 싫은 느낌이 들었다. 회관 문을 연 순간 선배들만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조용한 가운데 선배말씀이 일학년 중 너 혼자 산에 간다고 말했다. 너무 썰렁한 말이다. 동기들이 나의 뒤통수를 치다니 몇 명 가기로 한 아이들이 배신을 하다니 처음부터 느낌이 이상하더라 ….

고속버스에서 혼자서 앉아 외로이 갔다. 광양에 도착해서 타 대학교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하계 장기 등반을 빼고는 너무 외로운 산행이 되었다. 하계 때는 웬지 조용한 가운데 혼자 외로움을 느꼈다. 이번에 산행에서는 동기가 오지를 않았다. 타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좋은 점도 있었다. 타학교 동기들이 적어서 그들과 매우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 보건이라든가 순천 등 여러 학교 아이들을 많이는 아니지만 알게 되어 기뻐다.

오랜만에 내 고향을 옆에 두고 산행을 했다. 그래서인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생각이 나서 집에 전화를 했는데 한 명은 학교 가고, 한 명은 놀러 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도 한 명도 없었다. 와! 이럴 수가 있을까? 옆친 데 뒤킨다더니 정말이구나. 너무 재미없는 산행이 되었다. 동기가 한 명만이라도 왔으면 이런 일은 생길 일이 없을 텐데. ‘이 자식들 갔다 오기만 해 봐라 만나면 가만 안두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다.

94학번 선배님이 세 명이 있었는데 너무 나에게 잘해 주었다. 같이 밥도 하고 짐도 많이 나누어서 담았다. 고로 별로 힘이 들지 않았다. 하계 때문인지 배낭도 별로 무겁지도 않았다. 밤에는 각 학교별 장기를 보이고, 가장 핵심인 동기모임을 가졌다. 동기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뭐 선배가 어찌니 하계가 어찌니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이번 산행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이 이것이었다. 그래도 선배하고 있느니 동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편했다. 처음에는 썰렁했지만 조금 지나니까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술도 많이 마셨다. 가장 기억에 남는 동기가 있다면 보건대 사라가 아닌가 한다. 아주 말도 잘하고 귀엽고 활발한 성격이었다. 이름도 또한 특이하지 않은가. 사라(성이 기억나지 않아서).

밤에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에 그냥 듣고만 있었다. 그것은 집합이었다. 이것을 어제, 이미 늦어 있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잠자는 척했다. 조금 있다가 모두 취침하라는 준연이형 목소리가 들렸다. 텐트로 선배들이 들어오자 다시 또 집합을 외쳤다. 나는 그냥 자는 척했다. 그러니까 선배 말씀이 “경준이가 오늘 술을 많이 마신 것 같구나” 하고는 깨우지도 않고 나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아침에는 일어나서 보통 때와 똑같이 했다. 백운산을 향했다. 힘은 들지 않았으나 따분했다. 옆에서 같이 말할 상대가 없었다. 하계를 끝으로 두 번째, 아주 오랜만에 산행이어서 기분은 좋았다. 점

심을 먹는데 타대학은 김밥이니 빵이니 하며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들은 그냥 보고 있었다. 얻어먹기도 했고, 산행할 때는 식사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백운산 정상에 다 와서는 조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진영이 누나가 사과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조금 먹은 것이 원인이었다. 선배님들의 즉각적인 조치에 의해서 밑으로 업고 뛰었다. 용훈이 형이 먼저 내려가서 119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절반쯤 내려 왔을까. 진영이 누나가 괜찮다며 걸어갈 수 있다고 했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구급차가 산 거의 정상까지 올라와서는 그냥 간 것이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명을 빼고는 이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다. 아주 조용하고 침착하게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일을 내려와서 들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과 알레르기라는 것이 정말로 있나. 한번도 들어보지도 않는 것이어서. 광양 터미널에서 차를 기다리다가 시간도 많이 남아서 역전에서 술을 마셨다. 별로 좋은 풍경은 아니었다. 그리고는 밤늦게 광양에서 막차로 왔다.

쓸 말 안 쓸 말 다 쓴 것 같다. 하여튼 이번 산행은 재미없는 산행으로 기억이 오래 지속될 것이다. 동기들이 너무 했다는 생각이 여전하다.

광주·전남 암벽대회

39기 김성석

일요일 아침 버스를 타고 증심사에 도착했다. 긴장된 마음을 풀기 위해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았다. 대변을 보면서 암벽대회에 대한 긴장감을 풀고 산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가졌다. 화장실에서 나와 새인봉에 오르기 위해 올라가는 도중 도균이와 아미를 만났다. 셋이 올라가는 도중 인숙이 누나와 수성이 형을 만났다. 인숙이 누나가 우리들보고 자동차를 타고 같이 올라가자는 감언이설에 속아 같이 올라가는 길에 연맹 선배님들로부터 차를 얻어 타기는 커녕, 온갖 잡동사니만 들고 새인봉까지 올라갔다.

우리가 대회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참가할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막상 선수 등록할 때에는 남자 대학부에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였다.

예선루트는 직벽. 나는 이 코스를 한 번 밖에 해보지 않았다. 조대공전 동기들은 공전 특유의 홀드잡는 방법을 보여준다면 야단들이었다. 그러나 완등한 사람은 단 두 명이었다.

수많은 사람들 중 본선 진출자는 단 6명. 여기에 나는 간신히 포함되었다. 본선 진출자 중 95학번은 단 두 명이었고 나는 5등 아니면 6등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승코스는 슈퍼 파이널이라는 엄청나게 난이도 있는 코스였다. 완등한 선수는 직벽을 완등했던 두 사람이었다. 막상 코스에 붙어 보니 두려움은 사라지고, 암벽에 대한 것들로 나의 머리는 가득 찼다. 나는 평소의 나의 연습과 운동부족으로 완등을 하지 못하고 4위라는 성적에 머물렀다.

시상식에서 나의 이름이 호명된 것을 듣고 나는 얼떨떨했다. 대학부 4위에게 장려상을 주었던 것이다.

새인봉에서 하산하는 길에 이 상은 평소에 나를 지도해 주신 선배님들과, 나를 도와준 나의 동기들 덕분에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내려왔다.

목포대학교 CROSS COUNTRY

37기 정양숙

95년 10월 11일 ~ 12일,

나에게 목포대학교 CROSS COUNTRY는 좋은 경험이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나의 첫 산행이었던 하계장기등반. 멋모르고 졸랑졸랑 산에 따라가서 평소에는 그렇게도 싫어하던 비와 눈물을 날마다 달고 지내던 나날이었다. 「지금 나는 지옥에 와 있다. 여기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는 내 기록장이 당시의 나의 느낌들을 상기시켜 준다. 속세에만 내려가면 다시는 찾지 않으리라던 산악회에서 난 3학년이 되었고 올해로 세 번째 하계를 다녀왔다.

이제는 아무리 힘들어도 후배들 앞에서 힘들지 않은 척 할 수 있는 나를 목대 C-C는 여지없이 1학년으로 만들어 버렸다.

뛰면서 계속 1학년 하계 때가 떠올랐다. 원하건 원치 않건 형들의 요구대로 뛰어야 하고 소리질러야 했던 하계.

그런데 나는 변해 있었다. 뒤에서 닦달하는 형들이 왜 그리 좋던지 …….

“악으로! 강으로!, 구보! 속보!……”

진짜로 악을 내고 싶고, 강으로 버티고 싶고, 뛰고 싶고, 빨리 걷고 싶고…….

씻소리를 내며 1학년 때와는 다르게 복창을 했다. 좀더 힘을 내서 형들의 기대대로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3관문을 지나고 속이 울렁거려서,

“형, 토할 것 같아요.”

했더니 바로,

“토해버려!”

라고 말씀하시는 지환이형이 안 미웠다.

참가자 대부분이 그랬을 테지만 나도 산행보다 구보가 힘들었다. 산행 때와 마찬가지로 지환형의 닦달은 구보 때도 여전했다. 1학년인 도균이가 여자동기 썩까지 앞에 매고 저 멀리 앞으로 뛰어가도 나는 제자리를 뛰는 듯 다리가 천근만근이었다. 꿈에 그리던, 모교인양 시야 오른쪽으로 보이는 목대를 사랑하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목포대학교 CROSS COUNTRY에서 산행 2위, 구보 2위로 준우승을 했지만 경기가 끝나고 숨을 진정시키고 나니 마음은 즐거웠고 참가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좋은 경험을 1·2학년 때는 왜 갖지 못했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나의 아쉬움을 거울삼아 후배들에게는 다양한 산행을 경험하도록 조언해야겠다는 다짐도 했다.

비록 3학년이긴 해도 1학년이나 다름없었던 나를 지도해 주셨던 지환형, 준연 형에게 감사를...



◆ 산행 힘찬 시작 ◆



◆ 경기가 끝나고 우승기 앞에서 ◆

『신들의 트래버스』를 읽고

39기 박아미

『신들의 트래버스』,

참으로 흥미롭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소설이다. 읽는 순간순간의 긴장과 공포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이 책은 실제 아이거 북벽 등반사에 기록되어 있는 조난사고와 그 주인공들에게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략적 암투마저 실제 인물과 가공인물이 함께 얹혀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다.

주인공 에리히 슈팽글러는 과거에 친구들과 아이거를 등반하기로 했으나 정작 자신은 두려워하지 못하고 친구들만 등반하다 조난사하고 만다. 이 사건으로 슈팽글러는 친구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늘 괴로워하게 된다.

그러던 중 독일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에 승리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핵물리학자를 납치하기 위해 훌륭한 능숙한 산악인들로 구성된 특공대를 조직하여 아이거를 오른다. 슈팽글러는 이 조직에서 매력 있고 지적인 여의사 헬레네 레스너를 만나 사랑을 느끼게 된다. 등반 도중 헬레네가 적의 스파이인 것을 알게 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내려치는 번개와 눈보라의 악천후 속에서 그들에게는 전쟁도, 적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죽음의 아이거를 올라 ‘오직 살아남는 것’만이 그들의 절박한 심정이었다.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조마조마하고 긴장된다. 지은이 뵘 랭글리는 등산가도 아니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절실하고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는지 감탄해 마지않을 수 없다.

이 책이 보여주는 등장인물의 인간적 고뇌와 갈등, 사랑을 포효하는 대자연 앞에서 굴하지 않고 투쟁하여 ‘해내고 마는’ 주인공들의 의지와 고투를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기에 불굴의 용기로 도전해서 새로운 세계를 탐색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오늘도 찬탄의 큰 박수를 보낸다. 나 또한 ‘용기 있는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이고 싶기에 …….

지리산 100km 종주('95.10.22 ~ 10.24)

(인월 → 바래봉 → 정령치(1박) → 만복대 → 노고단 → 토끼봉 → 선비샘(2박) → 천왕봉 → 대원사)

39기 노원기

쏘가리(이형관), 빵(방경환), 만도(임도균), 나(똥땡이) 이렇게 4명은 완전히 지환이 형의 계략에 속아넘어가서 지리산 100km종주를 끝마치고 돌아왔다. 지환이 형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단풍 구경을 가자고 그래서 우리 4명은 “그래 기분전환이라도 할 겸 갔다 오자!”라고 서로를 달래며 약간은 단풍에 대한 동경심과 함께 일요일 아침 일찍 출발하였다.

남원에 도착하여 인월로 가는 차로 갈아타고 인월에 도착하여 한가로운 시골길을 거쳐 드디어 산에 붙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그저 그러려니 했다.

우리는 계속 이어진 오르막길 끝에 능선 위에 도착, 점심때까지 계속 걸어 바래봉 목초지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까지가 아마 가장 행복했던 것 같다. 경치도 좋고, 목초지 근처의 조망도 좋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속은 줄 몰랐다. “아! 잘 왔구나. 경치도 구경하고.”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지겨워져 갔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계속 그런 식이었다. 구경할 것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없고 그럭저럭 산행을 하여 정령치 휴게소 위에서 막영을 했다. 그 때가 오후 일곱 시.

정령치 휴게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지환이 형이 오늘은 무박종주를 해서 천왕봉의 일출을 보자고 했다. 여기서 천왕봉까지는 65km정도 남았는데 우리는 이왕 속았으니 하루만 꼭 참고 파이팅! 하자라는 생각으로 출발, 열두 시에 성삼재에 도착했다. 웬 관광차가 그리 많은지 그리고 사람들은 왜들 저리 좋아 죽겠는지, 사람들이 정말 알미웠다. 우리는 노고단까지 오기 위해 50km를 걸어 걸어 왔는데 이 사람들은 편히 차를 타고 올라와 싸 온 밥을 먹는 것 아닌가!

휴게소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먹다가 지환이 형이 아래 관광버스에서 밥을 얻어 가지고 오라고 했다. 그래서 빵과 내가 관광버스에 가서 측은한 눈빛으로 “밥 남은 것 있으면 좀 주십시오. 지나가는 등산객입니다…”라고 하니, 없다고 가라고 어떤 아저씨가 툭 쏘아붙이는 것이 아닌가. 아! 무너지는 내 자존심.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는 아줌마가 어찌나 잔하게 여겼던지 차 뒤에서 몰래 도시락 두 개를 주었다. 고마운 천사같은 아줌마….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만족하는데 형이 오늘 점심은 이걸로 때울 거니까 좀더 얻어 가지고 오라고 했다. 그래서 성삼재를 출발해 노고단 가는 길에 빵과 쏘가리가 도시락 하나씩을 더 얻어 왔다.

노고단 가는 길은 꽤 길게 느껴졌다. 다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한 것이다. 왜 그리 계단이 많은지….

뱀사골을 지나 토끼봉을 오르는데 이놈의 토끼봉은 계속 짜증나게 오르막길이다. 조금만 가면

정상에 오를 것 같은데 아니고, 정상 같은데 아니고, 빵과 만도가 점심을 적게 먹은 탓인지 배가 고파 비실비실 한다. 나는 약간의 허기만 느껴서 조금 편하게 토끼봉에 올라왔다. 토끼봉에서 사진을 찍고 휴식을 취한 뒤 출발, 저녁 여섯 시경에 연하천 산장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었다. 정말이지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는 어두워지기까지 한다. 지환이형은 빨리 밥먹고 가자고 한다. 야간산행, 생각만 해도 끔찍하였다.

밥을 다 먹고 출발하려는데 연하천 산장에 계시는 초대공전 산악회 선배님들(86학번 김주형, 87학번 ???)이 와서 고기 좀 먹고 천천히 가라고 하셨다. 나는 그냥 아예 여기서 자고 갔으면 했다. 모두 그랬겠지만. 그리고 그 선배님도 표정이 그랬으면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속으로 기뻐다. 그 선배님이 주신 똥돼지고기는 너무 두껍게 썰어 걸은 타지고 속은 덜 익었다. 그러나 막 먹었다. 야간산행을 생각하니 많이 먹어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시간쯤 지났을까 지환이 형이 선배님에게 출발하겠다고 했다. 와!~~~. 우리는 침울한 표정으로 출발, 벽소령을 지환이 형의 벽소령 귀신이야기를 들으며 지나서 선비샘에 새벽 2시에 도착했는데 텐트 한 동이 쳐져 있었다.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켜다가 형이 또 나더러 초코파이를 얻어 가지고 오라고 했다. 안 그러면 모닥불을 두고 지금 출발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서 “저..., 혹시 초코파이 있을까요?”라고 하니 진짜 초코파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임무 완전히 완수.

헌데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냥 여기서 막영을 했으면 했다. 비가 오면 어차피 천왕봉 일출은 못 보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우리 마음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형은 배낭을 매라고 하셨다. 모두 침울한 표정으로 배낭을 매고 출발하려 하니까 대뜸 만도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군대 가는 사람 소원 좀 들어줘요. 그냥 여기서 자고 가면 안됩니까?”라고 사정을 했다. 형도 그런 만도가 안쓰럽기도 하고 비도 금방 그칠 것 같지 않아 보였는지 그냥 여기서 자고 내일 가자고 했다. 그 때 우리 모두는 너무나 기뻐다. 선비샘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니 아직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이제 천왕봉까지는 25km안팎. 비록 가을비가 내리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리를 생각하니 아무 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선비샘을 출발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만도가 설사가 나는 모양인지 일 좀 보고 간다고 먼저 가라고 했다. 그리고 너무 급해서인지, 그리고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안 다닐 줄 알고 길 바로 위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었다. 우리는 먼저 출발하는데 1분쯤 가니 등산객 5~6명이 앞에서 오고 있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일을 마치고 온 만도에게 물어 보니 일보느라 쪼그리고 있는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어이구!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하하.

열두 시경에 장터목 산장에 도착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비를 피해 쉬고 있었다. 우리도 비스킷 몇 조각으로 요기를 한 뒤, 마지막 천왕봉까지 온 힘을 다하여 올라갔다. 막상 천왕봉까지 올라가니까 경치는 안개가 끼어 보이지 않고 비가 와서 춥고 앞으로 가야 할 거리도 18km나 남아서 사진 한 장 찍고 그냥 바로 출발했다. 그러나 대원사 가는 길도 고통, 차시간 때문에 우리는 장터목 관리인이 일곱 시간 걸릴 거라는 18km를 세 시간만에 내려왔다. 이놈의 내리막 길이 왜 그리 가도가도

끝이 없는지 죽는 줄 알았다.

힘들게 대원사까지 내려와 차를 타고 진주까지 갔지만 차가 떨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또 걸어서 진주역까지 갔다. 열차 시각을 보니 23시 50분 열차, 지금은 19시 막막하였다. 역에서 빵이 짜장면 먹고 싶다고 바둑바둑 우기는 통에 그걸로 저녁을 때우고 열차시간까지 역에서 거지같이 자다가, 열차 안에서 또 자다가 새벽에 광주에 도착했다.

이것이 우리가 형에게 속아넘어가 지리산 100km 종주를 하게 된 과정이다. 나중에 빵이랑 들어서 조용히, 대원사 가는 길에 너무 걸어서 똥구멍이 쓰리고 아프다고 말했더니 빵도 그러하다고 한다. 그리고 빵이 형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형도 그랬다나. 하하하 지환이 형도 사람이구나!



◆ 만복대를 넘어서 ◆

두려움(나 개인의 이야기)

36기 이현조

《들어가며》

모르면 무섭지 않다?

모르기 때문에 공포가 생긴다?

어떤 것이 옳은지 객관적으로 모르겠다. 내 경우는 산악회에 들어와 산을 체계적으로 배운지 4년이 흐르고 있다. 대학생할 이전에 산악회 생활(합격자 발표 때 제1학생회관 400호를 찾았고 입학과 동시에 산악회에 입회를 했다)을 먼저 했고 당구장이나 미팅보다 산과 바위를 만났다.

오리는 처음 인식하는 대상을 부모로 여기고 따른다고 했다. 그것이 닭이든, 개든 상관치 않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산악회가 유일하고 최고인줄 알고 살았었다. 그러고 보면 나나 오리새끼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지금껏 산에 대해 바위에 대해 얼음과 눈에 대해 공포심을 가져 보지 못했다. 또 그것이 좋은 상태라 착각하며 살아왔다. 두려움을 가져 보고 그것을 받아들여 극복한 상태에 이르지도 못했고 아예 경험조차 해보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나는 지난 여름 한때 지독한 두려움에 쫓겨다녔다. 이전까지 상상도 못해 봤던 그런 공포를 너무 두려워 그 대상이 보기도 싫었다. 그런데도 하루종일 그것을 생각했고 꿈속에서도 보았으며 모든 것을 그것에 연관지어 상상했다. 그것은 바로 「물」이었다.

6월 28일부터 시작된 수상안전강사 강습은 하루종일 나를 물 속에 있게 했다. 오전 9시, 운이 좋으면 9시30분부터 오후 6시, 조금 운이 나쁘면 7시까지 계속 물 속에서 살았다. 염주수영장에서, 선교저수지에서, 능주 영벽정에서, 해남 송호리 해수욕장에서. 강습에 들어가기 전, 개해엄을 치고 풍당거리던 시절 물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열 사람이 물에 빠져 있으면 열 사람을 구하고 한 명 더 보너스로 구할 객기도 있었다. 모르는데서 오는 ‘만용’ 바로 그것이였다. 공포나 두려움이 낯rang 특집극이나 괴기영화에 나오는 머리 쭈뼛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그때서야 알았다. 하루종일 그것(두려움의 대상)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그리하여 체력을 갉아먹고 종래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무력감까지도 두려움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알았다.

얼마 전 우리 애들(39기, 95학번)은 지환형(34기, 90학번)을 따라 지리산에 다녀왔다. 그 중의 한 애가 말하길,

“이제 산은 질렸어, 정말 보기도 싫고 가기는 더 싫어!”

형은 애들을 데리고 인월에서 정령치, 성삼재를 거쳐 천왕봉으로 그리곤 대원사로 물고 갔다. 2박3일 동안 그들은 인내력, 체력, 정신력을 시험 당했다. 그렇게 산에 치를 떨던 놈이 며칠 지나서 다시 산을 찾았고, 산과 훨씬 친해진 편한 모습을 보여주고 군대에 갔다.

물에 대한 두려움으로 몸서리치다 7월13일 물 속에서 힘겹게 놀던 나는 병원침대에 배영하는 폼

으로 눕혀졌고 잠시 물을 떠나 있을 수 있게 되었다. 물이 나를 끝장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일이 있고 부터는 물이 무섭지 않게 되었다. 이 글을 쓰는 11월 9일, 이제 나는 감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도 수상안전 강사다’

강사가 물에 빠져 죽으면 그건 ‘익사가 아니고 자살’이라고 말들 한다. 나는 이제서야 물 속에서 밥만 주면 하루종일 재미있게 놀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4년을 생활한 산에서는 나는 여전히 길을 잃으면 조난자가 된다. 아직은 물에서만큼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7일 크로스컨츄리가 있었고 나와 후배 둘이서 팀을 이루어 뛰었고, 한 애는 조금, 다른 한 애는 완전히 끝장이 나 버렸다.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가 버렸고 Good bye산악회를 연발했다. 득도한 고승의 표정을 며칠동안 짓고 다니며 말도 별로 하지 않았다. 그 후로 시간은 흘렀고 그 높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놈에게서 작은 산을 본다.

《마치며》

우리는 바위에서 큰 추락을 먹고 한동안, 때로는 영원히 그 두려움으로 암벽을 꺼리고 산에서 피진 기억으로 배낭 꾸리는 걸 주저하게 된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피하면 피할수록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파리 떼와 같다. 하나씩 하나씩 잡아 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함께 살래 하고 받아들여 버리든지 해야 한다. 그런 감정들과 부대끼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극복하면 우리는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다.

산은 아직 나를 갈 데까지 물고 가지 않았고 나를 끝장내 버리지는 않았다.

그날이 빨리 오길 …….

1995년 11월 9일

夏季詩 (설악시 변형)

나는야 산이 싫더라
 파란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나는야 산이 싫더라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하, 하계, 하계가 싫더라

산에서는 물, 간식, 잠, 아무런 자유도 없어, 법도 없어
 찼하게 한따까지 할 수 있는 원상 그대로의 폭력이 있다
 나는 고래고래 비명을 질렀다
 고래고래 비명을 지르기 위하여 여기에 왔는지도 모른다

하늘과 땅이 뒤바뀐 듯
 그 틈에 퍼진 나는 하늘처럼 무한대처럼 마구 개길 수 있는 것을
 아! 정말 희비 12만원이라는 것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을

전봉산 오르는 길에 다려넌 하노라면
 내게 한껏 남는 건
 케이볼카로 정상을 오르고 싶다는 함당한 욕망 뿐

찢어진 청바지처럼 흩어진 십마니 전설이 있는 곳에 어둠이 내리고
 청테이프로 빵구름 특어락은 에코로바 텐트에는
 눈탱이가 빨간 채로 소주잔을 둘러앉아
 몽둥이로 후배를 몽고강다는 어느 선배의 작년 하계얘기가 익어 가는 것을
 아! 정말 이런 밤엔 도망이라도 가면 더욱 좋은 것을

두호봉 가는 길에 진드기 있다 했다
 그 진드기를 잤아다 숙안주로 먹자 했다
 진드기를 잤아 숙안주로 먹자던 선배가 또 하나의 진드기가 된 것처럼
 후배를 갓아 마시자 했다

나는야 산이 싫더라
 파란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나는야 산이 싫더라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하,
 하계,
 하계가
 나는야
 싫더라



에 훈련소 서 온 편지

☐ 이들은 11월 2일 동시에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였습니다 ☐

39기 임도균, 36기 문준연

39기들에게,

잘 있었냐? 지금은 지겨운 입석전호를 마치고 취침시간이다.

취침시간 만큼은 그 누구도 생각하기 싫고 편하게 잠만 자고 싶지만 너희들 소식도 궁금하고 생전 처음 댕장 한 번 받아 볼라고 이 천금같은 시간에 편지를 쓰고 있단다. 진짜 군대 와서 처음 며칠 동안은 시간도 야간고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서 괜히 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고 집에 가고 싶더라 마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아침밥 먹으면 어느새 낮밥 아니 벌써 저녁밥, 이렇게 하루가 쏙 지나가 버린다.

국문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국군 아저씨께 위문편지 쓰곤 했는데 내가 이제는 국군 아저씨라니 참 시간이 빠르기도 하다.

여기서 밖에 안 드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밖에 들지 않는 것이 빵먹기 전에 식당 앞에서 지랄 떠는 것이다. 경계로부터 시작해서 관등성명 등 생각하기도 지겨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서는 애들이 먹는 것이 다 똑같기 때문에 방구냄새도 한가지로만 나더라.

그렇다고 여기 생활이 힘들기만 하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훈련은 육체적으로 참을 만 하다.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게 조금 문제지. 며칠 전 학생방 훈련을 했다. 끈도 하나도 없는 고장난 방독면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참 미치겠더라. 구멍이란 구멍에선 물이 다 나오더라.

내가 여기 와서 후회되는 것이 한 가지 있더라. 뭘지 아냐?

사회에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그 많았던 시간들을 허송으로 낭비해 버린 내 자신이 너무 뻔더라. 물론 살에 다녔던 시간은 제척하고. 그러니까 느그들 시간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라. 특히 휴학생들 형관이, 빵 할 일 없이 당구장이나 다니고 빈둥빈둥 놀고먹지 말고 너희들에게 뭔가 남을 수 있는 것을 해라. 특히 공부 좀 해라. 역시 공부해 두는 것이 낫다는 것을 여기서 뼈저리게 느꼈다.

특기분류 심사를 하는데 화학·생물 전공 쪽으로 갔는데 첫 질문이 1몰이 뭘냐고 물어 보더라. 모른다고 했더니 아보가드로 법칙이 뭘냐고 물어 보더라. 역시 모른다고 했더니 나가 보라고 하더라. 고등학교 때 배운 아니 가장 기초적인 것도 몰랐던 내 자신이 그 때는 너무 부끄럽더라. 그러니까 느그들도 꼭 공부 좀 평소에 해라.

그리고 현준이는 어떻게 사냐? 앞만 재도전 한다고 하지 말고 니가 진짜로 마음먹었다면 한 번 죽기살기로 열심히 해 봐라.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니가 진짜로 열심히 해서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야 어쩔 수 없지만 노력도 않고 결심만 바꿨다면 그게 되겠냐?

음 그리고 또 성석이, 경준이, 원기이, 아미이, 연정이 모두들 열심히 살아라. 늦고먹기란 시간 낭비 말고 너희 자신들 앞길에 대해서 생각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훈련소에 며칠 있더니 만 짜식 완전히 영감소리 하고 자빠졌네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모르겠다, 어쨌든 지금 내 생각은 이래.

훈련 도중 쉬는 시간에 주의 산을 보고 있노라면 산에 다녔던 기억들이 떠오른다. 당시에는 힘들고 고달팠지만 지금은 참 그것이 그립다.

훈련등반 잘 다녀왔냐? Top서서 어떻게 올라갔는지 몰라. Top생각하니 현준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현준이 갔다면 또 엄청나게 빙치겠구먼 아니 빙치기도 힘들겠다. Top서서 올라가니까 또 지가 올라간 코스가 제일 힘들고 어려웠다고 자랑할 것이 뻔하다. 빵은 베프도 없는데 잘하는지 모르겠네. 또 성석이 경준이는 원래 잘하고, 참 또 원기가 문제구만. 한동안 위도를 했었지만 잘했으리라 본다.

날씨도 추워서 산에 가면 따까리하기도 힘들텐데 아직도 38기, 특히 옥량이 누나, 수연이 누나, 그 중에서도 굳이 뽑자면 옥량이 누나가 아직도 강구냐? 짜식들 참아야지 하늘같은 선배인데 많이 야. 하기사 나아 제대하면 같이 늙어 가는 처지이니 강구지도 않겠지.

준연(형)도 입소대에서는 많이 봤지만 여기 훈련소에서는 중대가 달라서 몇 번 보지 못했다. 초체한 준연(형)이의 모습 역시 군인 타입이 아니더구만. 강인한 나의 모습에 무척 놀라던 모습이 더군.

그리고 선배님들 잘 계시냐?

우리 회장님, 연맹 학생장님, 현조 형, 장원이 형, 양숙이 누나, 옥량이 누나, 수연이 누나, 진영이 누나, 용훈이 형, 모두들 잘 지내시겠지.

너희들 못지 않게 무척 보고 싶다.

참 너희들하고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밤을 세워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만 편지이니 여기서 고맙게 써야겠다.

이제 나도 잠자야겠다. 다음에 또 편지 쓰마. 여기서는 낙이 없거든 너희들 당장 읽어보는 것 제히하고는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8명 모두 당장 써라. 집에도 편지 2장 겨우 채웠는데 너희들한테는 3장이나 쓰니까 알아서 해. 물론 선배님들 편지도 환영.

그리고 참고로 편지 보낼 때 각자 집주소를 써라. 내가 시간 남으면 개인적으로 편지 써 줄 테니 준연(형)이도 편지를 썼겠지만 당장 1순위는 나임을 잊지 마라.

1995. 11. 17.

-도균 씀-

그리운 岳友들이여, 문준연이가 연락 띄웁니다.

10일이 넘었다. 입대할지도 어느덧.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하루하루가 지나고 벌써 10일이나 지났나.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내가 군대 가기 전에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월출산을 훈련등반 1차로 다녀왔을 것이고, 1학년들은 동기등반을 갔다 왔는지 모르겠고, 아마도 지리산 무박종주를 계획하고 있을 것 같다.

산에 가고 싶다. 후배들아 산에 열심히 다녀라. 특히 1,2학년 때. 산에 가고 싶어도 못 갈 때도 있으니까. 산에 많이 다니면 그만큼 낡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냥 저학년 때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산에만 갔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 다녀라 후회하지는 않을 테니.

지금은 불침번을 서고 똥싸고 나서 잠이 안 와 가지고 펜을 계속 들고 있다. 군에 있으면 참 산 생각이 많이 난다. 산에 다니는 것, 아니 산악회나 군대가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아서 그럴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군대 안 갔다 온 회원(여학생 제위)들은 산악회 생활이 행복한 지 알아라. 길게는 말하지 않겠다. 직접 군에 와서 느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산에 다닐 때가 그리운지도.

현성이 형, 알프스 호프 중략 거의 갈라지지 않았을까,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좋은 예감이 드는데. 동계장 낚은 산행 회장 넘겨줄 때까지 잘 이끌어 나가세요.

지환이 형, 내가 형 집 담 넘어 들어가서 집 안 쪽겨났나 모르겠네요. 집 쪽겨내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열심히 사세요. 다음에도 꼭 등극해요. 연맹일 회관일 모두 열심히시죠?

만철이 형 아직도 잠수함 타고 공부하세요? 가끔 가다 회관 나가셔서 후배들이랑 머릿도 푹 겹 산에도 다니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형들은 저 첫 휴가(96년 5월 예정) 때까지 숙값 많이 모아 가지고 계십시오. 뜨겁게 땀냅니다. 속세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동기들

현조야, 너도 나이 먹어서 군대복라몬 께께하겠다. 나 같으면 차라리 자살한다, 자살해. 운동은 아직도 열심히 하고 나도 군에 와서 똥이 많이 좋아진 기분이다. 똥이나 잘 단련해서 나가야겠다.

오장민, 너는 아직도 속 못 차리고 아시아자동차에서 일하고 있냐? 빨리 때려치우기 바란다. 짧고 굵게 노가대해서 산에나 다녀 입마.

양숙아 너는 아직도 취짱아 먹은 것 같이 열심히 화장을 하면서 다니겠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화장과 산악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부디 네가 뜻하는 대로 멋있는 인생 설계하길 바란다. 낚자 그만 쫓아 다니고.

진용훈, 천복량, 최진영, 느그들은 휴학계 내놓고 뭐하냐? 괜히 쓸 데 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간 있을 때 산에나 다녀라.

수연아 니들 기수 중에서 유일한 학생인 수연이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겠지. 회관도 열심히 나가고. 긴 대화도 나누고 싶었는데, 잘 살길 바란다. 나 제대할 때쯤이면 졸업한다고 께께죽거러것네!

아참, 여기서 도군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입소대대에 들어가자마자 서로 헤어져서 똥 먹음 때만 몇 번보고 훈련소로 와서는 한 번도 얼굴 못 봤다. 입대동기라고 완전히 떠났어. 제대해서는 2년은 짧고 인생은 길고 한 번 선배는 영원한 선배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처음 땀났을 때는 무척 반가웠는데 여러 번 보니까 식상하더라. 열심히 훈련받고 있겠지.

똥구탱이=늑패=백수 아직도 대책없이 놀고만 있냐? 너 군대 똥래? 참 좋은 곳이다. 정말이다. 어쩌면 평안하시고 건강하신지. 군에 빨리 온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 하계(2학년) 마치고

젊음을 뜨겁게 맛꺼한 다음에 오기 바란다.

진승아 재수준비는 잘 되니? 내가 너 빨리 포기하라고 했지? 빨리 포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순진하고 멍청한 표정 계속 유지하기 바란다. (너의 가장 큰 장점이야) 허기사 니가 뭘매가 좋나? 영국이 잘 생겼냐?

섹시(sexy)야 아직도 당구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냐? 너 한 번 맞아 볼래? 나도 당구 칠 만큼 쳐보았는데 너도 굼뺑 실증 느낄 것이다. 공부나 열심히 해. 너 장학금 못 받으면 군대타야잖아!

쏘가리, 아버지 건강하시지? 사랑하는 제자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노라고 전해주렴. 너도 당구장에서 죽치고 살지? 자식아 농터라도 좀 scale이 크게 농아라. 군대는 많이 농다가 오고.

경준이, 우리 경준이는 39기들 중에서 제일로 착실하고, 말도 잘 듣고(너무 키워 줬나?), 하지만 너도 너희 동기들 닮아 가서 많이 단순해져 가는 경향이 있는데 조심해라. 조금 돈이 들더라도 친구는 항상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하느니라.

원기, 이 똥똥아 살 많이 빠졌냐? 살에 열심히 다녀가지고 살을 빼든지 아니면 그 살을 모두 근육으로 맛들든지. 항상 먹을 것만 찾지 말고.

척부지인지 척천지인지는 나한테 안나온데?

아미야, 승미씨는 잘 있고? 조카는 많이 컸겠다. 큰언니는 집에 아직도 안 갔냐? 요즘 아미파 애들이 너한테 신경 좀 써주냐? 도균이가 군대 가는 바람에 너의 실질적인 추종세력이 빠져 너의 파워가 많이 약해졌겠다. 밝고 밝은 미소 항상 간직하고 살아라.

연정아, 제일 늦둥이로 들어와서 잘해 나가고 있는 네 모습을 보면 대견스럽다. 너하고 나는 졸업동기지?(아니다. 나는 학교 반 학기 더 다녀야 되구나) 나 복학할 때까지 기쁜 틈틈이 닦아 놓고 기다리고 있어라. 형이 가서 마음껏 활개칠 수 있게. 아버님은 여전히 환고하시교? 바깥피우지 말고. (산악회 열심히 하라는 소리니까 긴장하지 말도록) 열심히 살고 제대하면 같이 수업받고 공부하도록 하자꾸나.

또 빠진 회원이 있는가 모르겠다. 혹시 실수로 빠졌다면 당장 쓸 때 꼭 써라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테니.

내가 이렇게 잠도 안자고 불청주야 편지를 4장에 걸쳐 쓰고 있는 이유는 잠도 안자서도이겠지만, 물론 가는 것도 있으면 오는 것도 있겠지?

이름 호명된 사람은 개인적으로 한 통씩 당장을 쓰기 바람. (주소 동봉)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쓰기 싫어도 다 써(으).

동계 가고 그러면 2학년들이 고생이 많겠다. 마지막으로 조장 맡아서 가는 거겠구나. 1학년들도 다음에 맛났을 때에는 멋진 산사람들이 되어 있겠지.

그리고 현성이 형, 지환이 형, 내년 회장은 누구를 목색 중인지, 아니면 결정되었는지 궁금하네요. 39기 시켜 놓으면 산악회 맞아먹어 버릴 것 같은데. 계획서도 가꾼 가다 붙여 주고 그러십시오.

어떻게든 살에 다니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모두들 건강하길, 다음에 산에서 만나 술 한 잔 기웁일 날을 기다리며.

95. 11. 12. 일. 새벽에
우리 나라를 지키는 문준연이가 씀

비망록 글 모음

비가 내린다. 왜 하필 이런 날에 비가 내릴까?
 한 50일 넘게 희란에 오지 않은 것 같다.
 창균이랑 지한, 현성이 형, 옥랑이, 누구지, 아! 몽훈이
 동계 다녀오느라 무지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안 잊은 학교가 왠지 낯섭니다.
 항상 이곳에서 돌아다녔는데, 담배 하나 물고 있네.
 오랜 장생각이 다 나네.
 제가 누구냐고요? 저 37기 박근영입니다.
 오늘이 면회날인데 장성상무대에 있어 가까운 랑주에
 시간 쪼개어 왔습니다. 5시 30분까지 복귀입니다.
 이등병 마크 달고 돌아다니려니 쪽팔립니다.
 그렇다고 사복갈아 입기도 그렇고.
 다들 뭉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하시는 우리 회장님 현성이 형 발레타인 데이인데
 초코렛 나눠먹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또 들으겠습니다.
 1995. 2. 12
 단경!! 근영이 씀 12:45

어제 신입생 우산을 빌려쓰고 시내에 나갔어잉.
 식당에서 라면 하나 먹고 38번을 타려고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리면서 비를 맞았지.
 파란불이 되자 길을 건너서 한참을 걸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잉.
 ‘내가 왜 비를 맞고 걸어야 되나?’
 그 순간 난 우산을 두고 왔다는 걸 알고 비를 맞으며 다시 신호를 기다렸지.
 그래서 다시 식당에서 우산을 찾아서 또 길을 건너서 승강장으로 가고 있는데
 38번이 오는게 보이더라
 그 차를 타려고 열심히 뛰는데 차가 막 출발하려 하드나
 그래서 우산 접을 새도 없이 일단 앞문에 손을 넣었지.
 근데 이 운전기사 아저씨가 그걸 못보고 문을 닫아버린 거여
 난 손이 짝 낀데다가 한 손에는 우산까지 빠져 있어서
 문을 두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아저씨가 알아챌 때까지
 열심히 뛰기만 했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조금만 더 갔으면 앞에 있는 택시하고 박치기를 했을 거다.
 근데 아저씨가 그걸 보고 문을 다시 열어주더라
 역시 우산보다는 오버 트라우저가 낫더라.
 재수없이 승천할 뻔한 저녁이었습니다.
 95. 3. 10.

반성문.

나는 반성합니다.

나는 이상한(재밌는) 책을 산악회에 숨겨놓다가 들켰습니다.

다음부터는 안들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희관에 책을 놓아 둔 이유 :

책을 숨겨 놓을 곳이 없어서 가방에 숨겨 놓았는데

엄마가 가방을 빠는 바람에 들켰습니다.

엄마는 무안해서 책을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제가 가져와

희관에 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환(95. 3. 13)

이유도 모르고 반성문을 씁니다.

무슨 책인지 보지도 못하고 반성문을 쓰게 됩니다.

단지 동기이자 친구인 이유로 같이 고통을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책인지 한 번 보거나 하고 썼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인도균(95. 3. 13)

90. 산악회

저 이번 토·일(18~19) 월출산행 못할 것 같애요

토요일에 시공집에 가야 하거든요

친척언니가 결혼한대요

저 하나뿐 빠져도 괜찮겠쥬?

(너 하나뿐 두들겨 패도 괜찮겠다)

- 은하 (39기) -

아! 십십하다

95. 3. 14 火 3:30

오늘이 수요일인 줄 알고 운동하러 왔다가 들렀다.

희관에 오면 버릇처럼 펼쳐보는 희의책.

기촉이 되어있지 않아. 희의 안했을까?

아차 화요일이었네.

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이곳을 오고 가고 있는지.

39기는 무슨 마음으로 이곳으로 발길을 향하는지

난 33기인데,

이유없이 이곳으로 발길이 달는다.

다들 나쁜대로 열심히 살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란다.

(33기 유명희)

내가 세상을 너무 둥글게만 살아온 것일까?

아니면 내 스스로 둥글게 맞들면서 살아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한 선배가 말했다. 산악회에서 남아 있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다고.

하나는 자기 고집이 있는 높이고, 하나는 둥글둥글한 높이라고.

아마 나는 후자 쪽에 속하나 보다.

등하교 길에 나는 늘 정문을 이용한다.

후문이 가깝고 편한데도 정문을 이용하는 것은 한가지 뿐이다.

무등산이 가장 잘 보이기 때문이다.

산은 늘 거기에 있다.

그러면서도 애써 망하지 않는다.

소리없이 지켜보고 있는 그 모습이 따뜻할 뿐이다.

우리는 가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망각하는 것 같다.

산을 통해서 하나라는 것을 —

어차피 읊는 개인들의 모인이다.

각자의 개성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특히 내가 아는 산악회는 개인들의 개성들은 존중되고 있다고 본다.

그 속에서 하나되는 모습들이 아늑다울 것이다.

오늘도 무등산은 눈부시게 아늑당다.

10/11 현성

옛날 비망록이 어디로 갔지? 어쨌든 비망록 처음에 도균이의 하계일지가 너무 인상적이다.

우리 동기들이 안보인다. 어디 갔지?

현성이 형! 저는요 정문으로 오면 무등산이 보인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다음부터는 아니 내일 아침에 학교를 때 꼭 봐야겠어요. 얼마나 예쁜지 ...

준연이 형은 비디오 보고 수연이 언니는 시험 공부하고 아미는 비망록 쓰고 근데 별로 쓸 많이 생각안나.

다들 내가 희란에 들렀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다.

난 요즘 수업이 끝난 즉시 집으로 달려가야 한다.

우리 큰 언니가 배가 낡살만 해져서 우리 집에 안 있다.

내가 시어머니 대신, 친정 어머니 대신 산모와 돌지날 조카를 돌봐야 한다.

에구~ 내 딸자야.

세상에 요즘 연년생으로 애를 낳는 사람이 어딴?

어쨌든 우리 큰언니넌께서 신경라면이고 해서 내 수업 시간표 붙여 놓고 나 오기만 기다린다.

쏘가리만 빵이 왔다. 그만 쓰고 놓아야지 ...

1995. 10. 11. 아미

어제 담양 큰언니 시댁에 갔다. 물론 식순이 하러.

배복뚱이 언니가 킁킁대며 간다는데 어쩔 수 없잖은가.

근데 갔더니 거기는 환연한 가을이더라.

밤, 감, 방울토마토가 내 항성찬 식욕을 자극하는데 이건 참을 수가 있어야지.

엄청 먹고 어제 목목탕에 갔더니 정말 2kg이 불었지 뭐가.

가을은 물론 풍성해서 좋다.

마음은 자꾸 야위어 가고 몸은 자꾸 풍성해진다면 올 가을 낚자친구 구하기는 틀린 것 같다.

오늘 아침 학원간다고 일찍 나섰지만 도저히 학원갈 기분이 아닌 거 있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희란에 와서 비망록 쓰고 있다.

지한이 형이 보면 '아미 인간 되가는구나' 하실거고,

웁업마 보시면 '딸아이라고 있는게 그냥 ...'

어쨌든 악우 여러분 거울 앞에 갇히어 어때요?

가을냄새 나잖아요. 우리 언제 단풍구경 갇히니까?

갇히어 홍시 될 때까지 따지 마세요. please!

홍시되면 우리 둘러앉아 맛나게 먹자고요.

저 갇히어 내가 피땀흘려 설거지하고 얻어온 거니까 아끼자구요.

아~ 신선해지려고 하네. 뭐하지? 1교시 수업까지 30분 남았는데

그 사이 흡사같은 없음테고 뱃 속도 허전하고 TV는 보기 싫고

참 상장 보니까 생각나네. 목대 CROSS COUNTRY 우승기 축하해요.

넌 언제 1등 해보나

1995. 10. 16. 아미 ^ ^

밤이 되니 1생이 조용해졌다.

그래서 좋다.

95. 10. 22

양수기가

10/24 현조가

애들아! 부럽다. 땀대론 좋은 사람과 산에 다닐 수 있는 너희들의 자유가.

특히 좋은 선배와 같이 하는 산행을 하는 너희의 현재가.

좋지? 그치? 혹시 지리산은 진눈깨비라도 내리지 않았니?

너희보고 가려고 지금껏 기다렸는데 더 시간은 못내.

또 다른 일(약속)이 있어서. 얼마나 더 산사람같아졌는지 알고 싶고, 그것보다는 너희들 땀에
배여 있을 산의 향기를 맡고 싶었는데 이것들이 호응을 안해주네.

혹시 느그들 산이 좋아 하루 더 있다 오는 것 아녀?

아닌 형이 못가게 잤잖나?

나 갇힌다.

나의 꿈을 찾아서 다시 노래할 거야

언제까지 변하지 않는 나의 친구와

이상은 노래 가사입니다.

11. 2

오늘 맛도탕 준연이 형을 논산까지 따라갔다 왔다.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다.

내일 혼련등반인데 힘이 없고 흥이 나지 않는다.

벌써부터 보고 싶으면 안되는데

안녕 ~.

뽕 11. 2

또 쓰고 싶다. 보고싶다 그럽다.

맛도탕 준연이 형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혼련등반도 가기 싫다.

이 두 사람이 내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줄이야

또 쓸께.

11. 3 뽕

오늘 동기등반 가는 날이다.

우리의 동기 맞도랴 준연이 형을 대신해서
더 재밌게 놀고 볼께.
몹 건강히 지내

뽕 11.10

39기가 동기등반을 갔다.
썩썩는 왜 못가나? 아마 그놈의 비땀에 또 어머니가 땀시켰나?
자식 희관에라도 왔다 가지.
요즘은 희관이 항상 깨끗하다. 오는 사람들이 적어서.
역시멋모를 때 산에 갈 때가 좋았다.
밤마다 텐트치고 가스등 아래서 따까리 들고 뽕먹던 시절들이 전에는 있었는데.
그리고 보면 산행스타일이 많이 바뀐 것 같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산행보다는 락영할 때였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리산을 갔으면 ...
버티고 싶은데 배고픈 건 못참겠다. 이건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 심한 가혹행위다.
그래서 집에 뽕먹으러 가련다.

11월 10일 20:30

입희원서를 쓰고 난 이후 처음으로 이 노트에 내 필체를 남기는 것 같다.
난 항상 희관에 들어오면 거의 맨 먼저 이 노트를 뒤적이는데 거의 새로운 글은 눈에 띄지 않았
었다.
그래서 지금 한 글 남기려는 것이다. 물론 재미있는 글이다.
명언은 남깁 자신은 없다.
그냥 다만 내가 이제 이곳에 한글한글을 적을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내 자신에 만족감을 느낀
다.
더 이상 쓸 말이 없는 것 같다.

- jeong - 95. 11. 14.

희관이 많이 깨끗해지고 이것저것 볼거리도 많고(말하, JV, VJR) 헌데 사람은 하나 없군요.
너무 늦게 찾아와 버건경가? 아쉽다. 한 명만 있어도 좋았을 텐데.
얼마전 B-B였나 봅니다. 사진도 그렇고 비매크 내용도.
같이 있고 싶은데 시간과 공간이 허락하질 않아 자주 멀어져만 가다는-잊혀져만 가다는-생각이
문득 드는군요.
정일이가 왔다 갔다던데 이 높은 한 줄도 남기고 가지 않았군.
지한이 형, 현성이 형, 현조 형 + a 후배들 모두 보고 싶은데.
준연이 형은 느즈막히 논산행을 타나 보군요. 내 땀으로 들어오면 어찌지.
이젠 당풍빛 가을산과 파란하늘은 멀리 가고 서서히 겨울이 오나 봅니다. 사람들 옷차림도 두툼
해지고, 군복입은 내 모습이 왜 이리 초라해지는지. 옆구리도 허전하고.
형들 영국 한 번 보려 했는데 내가 게으른 탓인지.
어디가서 찾아야 하나. 무작정 산으로 가야 하나.
군의 겨울은 추운데 내일 모레 또 들어가야 해요.
열심히 생활할 것이고 다음 휴가때 볼 수 있었으면 ...
주중에 오면 되겠지(아직도 수요일에 회의인가?)

건강하십시오.

37기 방랑자 박근영

현조형이 비망록 안적는다고 갈구신다.
그래서 이렇게 펜을 든다.
오늘 만도타 준연이 형 편지를 읽었다.
너무 반갑고 보고 싶다.
퇴소식 때 꼭 가서 만날 것이다. 이상이다.

11.22 빵

70. 현준

잘 봤어요?

조만간에 볼 수 있었으면 해.

전화하도록 할게요.

- 강 하 경 -

1995. 11.24. 금.

4시 30분.

지환이 형이랑 썩씨랑 아미랑 셋이 있다.

할 말이 없는데 쓸 말은 있을 것 아니냐는 형의 음박지늬에도 불구하고 나는 쓸 말이 없다.

형이 옆에서 '어떻게 악우지를 해야 멋있나' 고민한다.

어떻게 해야 멋있나?

썩씨는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한다.

'속없는 늑' 진짜 그 여자애가 좋은 것인지...

'여자친구=애인'이라는 허울좋은 이늬에 '집착'하는 것이지

우리 39기 남성분들 모두다 그런 것 같애.

내가 보기에는 헛소리 쥌 했고.

지환이 형이 방금 나갔다. 나도 5:00에 약속이 있다.

sexy도 곧 만날 사람이 있다는데 어쨌든 잘 되라.

그래야 sexy의 그 sexy한 눈빛이 초롱초롱해지지.

현성이 형이 급방 카초등고 오신다. 내 눈에는 '카초'밖에 안보인다.

그말 쓸래.

兒美

썩씨는 썩씨하지 않은데 썩씨라 한다.

쏘가리는 쏘가리같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쏘가리라 한다.

짚승은 짚승만도 못하는데 짚승이라 한다.

똥땡이는 그야말로 똥땡이다.

하긴 경준이는 대장감이라서 대장이라 하나?

근데 왜 빵이냐?

아미갈 이늬는 거구로 부르면 너무 징그럽다.

연정아 어디서 머하냐? 탕뚱서 가서 독서허냐?

앗! 헛소리였습니다.

저송 ...

11/25

sex란 무엇인가? sex란 사랑을 위한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이 점을 혼동하는 사람이 이 산악회 안에는 존재한다.

이름은 정확히 공개할 수 없다.

단지 ○현○씨라고만 하겠다.

사랑의 마지막이 sex, 아니 사랑이라고 위장한 감정으로 sex를 위한 위선행위, 나는 이것을 증오한다.

여자를 사귀는 것을 sex를 위해서라고 ○현○씨는 생각하는 것 같다.

인간은 항상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여자를 사귀는 것도 이 세상을 새롭게 보기 위해, 또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회원들은 나의 이런 마음을 모른다.

애인이나 여자친구 때문에 고편하는게 아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고편이다.

- 성 석 -

성석아, 그래 내가 죽일 놈이다.

좋게 나라고 말을 하지. 근다고 내가 너를 죽이냐, 아님 운동약한다고 패냐?

근디 이제 꽤 건수가 생겼다.

이 자식이 둘 사이의 대화를 딸인에게 공개를 해.

이제 뭇말고 니한테 장부의 심정을 말할 까.

이 죽일 놈.

“새로운 세계에 대한 고편”, 개코다.

좋게 손 한 번 잡아보고 싶어 한장하겠다고 하지.

너도 잘 하면 ‘현조가’라고 딱 가겠네.

성석아 나도 바르 얼마 전까지만 해도(아니 아주 오래 전에) 니 비슷한 생각을 했다.

속된 말로 나이 먹어 빠라. 그런 좀더 정직해질 수 있으니까.

현식과 사실에 붙어있는 한상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 가는 것이 나이먹어 가는 거고

좀 더 니 감정에 충실해 지는 거니까.

극고 “○현○”라고 하면 누가 널 죽 알겠냐?

무담시 회장님 명예란 훈집이 나지 다음부터는 확실히 해.

또 오히려 사랑이라는 단어가 관계를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경구가 아주아주 많단다.

또 사랑이 아닐지라도 성관계를 갖는 것이 항상 위선인 것은 아니고.

넌 성석이 네가 진심으로 순수하기에 내말에 이처럼 분노하고 있는거라 믿고 싶다.

너에게 변치 말라 말하긴 싫어.

변해 가는 것이 인간이니까.

또 변해야 하고 물론 변할 것들 변화시켜야 할 것들을 잘 선택해야겠지. (어려운 일이지않)

11. 25 현조

11월 28일 6시 20분 兪美

산더미 같이 쌓여진 그릇을 씻기 위해 개수대 앞에 선다.

땀공기들을 하나 둘 ‘퐁퐁’을 묻혀 닦아 내다가 문득 씻지도 않고 쓰는 마음이 손바닥에 맴돌았다.

먹기 위해 쓰이는 그릇이나, 살기 위해 먹는 마음이나 한 번 쓰고 나면 씻어 두어야 다음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이니 싫었다.

그러나 물만 마시고도 씻어두는 유리컵만도 못한 내 마음은 더럽혀지고 때묻어 무엇 하나 닦을 수가 없다.

급이 가고 얼룩진 영혼의 슬픈 그릇이여,

깨어지고 이가 빠져 쓸 데가 없는 듯한 그릇을 골라내면서

마음도 이따 같이 가려낼 것은 가려내서 닦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누룽지가 붙어서 쫌쳐쫌 씻어지지 않는 솥을 씻는다.

미움이 마음에 녹어 붙으면 이쳐쫌 닦아내기 어려울까.

닦으면 닦을수록 윤이 나는 주전자를 보면서

영혼도 이따 같이 닦으면 닦을수록

윤이 나게 할 수 없는 일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릇은 한 번만 써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빠속까지 씻으려 들면서

세상을 수 십년 살면서도

마음 한 번 비우지 못해

청정히 흐르는 물을 보아도

때묻은 情을 씻을 수가 없구나.

남의 티는 그리도 잘 보면서도

제 가슴 하나 행구지도 못하면서

오늘도 아침 저녁을 종종 걸음치며

저없는 넌비의 얼굴만

닦고 닦는 것이다.

- 송유미, 넌비의 얼굴은 반짝인다 -

나는 배신자다. XX가 그랬다. 동기들에게 미안하다.

2학기 추계운동회 전후도 나의 멀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왔다.

무엇인지 나도 모르겠다. 내가 국선도에 찾아 간 것, 여학생과 만나는 것, 학생회 일에 참여하는 것,

모두가 그 어두운 그림자를 피하려는 행동인 것 같다.

어제 회의시간 이후에 나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요즘 학과나 동아리 회원들의 모든 눈초리가 이상하다.

아니 내가 이상하게 느낀 것일까?

요즘 모든 일에 의욕, 희망이 없다.

어제 저녁 도서관에서 일찍 나와 학생회실에서 공부하면서 과 선배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다.

특히 군입대가 주된 토픽이었다.

군대가 피양처가 아니라는 말이 생각난다.

모든 걸 잊기로 했다. (특히 여자)

사람들은 내가 사랑을 하고 싶어 여자가 좋아서 여자타령을 한 것으로 오인한다.

아니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일 것이다.

나의 모든 주변에 있는 것을 정리하기로 했다.

특히 선배들에게 저송하다. 나는 선배들에게 실망을 드린 것 같다.

극재주 없는 내가 이렇게 많이 쓴 것이 신기하다.
라디오에서 '미션'이 흘러 나오고 있다.

- 성석 -

sexy야!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할 지 알았지.
니가 그만큼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
힘내

- 뽕 -

으~, 심심해. 사람들은 많은데 왜 이렇게 심심한 건지
읽고 뭔가 쓰는 일 말고는 희관에 빠져 할 일이 없다.
각자 이야기도 안하구 자기 할 일만 하다니
으~, 양미워 뭐 재미 있는 일이 없을까 —.
아미야! 네 캐비닛 봤는데 없어. (목도리 and 모자)
내일은 가져올 거지. 오늘 바깥이 좀 쌀쌀해.
목도리 했으면 좋겠어.
이제 원고도 다 내고 할 일 없어 죽겠어. (행복한 소리)
- Jeong - 95.12.1.



지리산 10경(智異山十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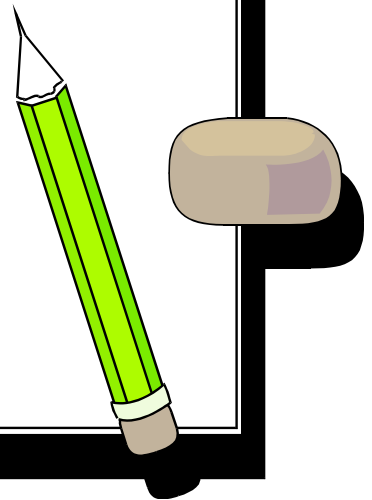
방장산(方丈山), 혹은 두류산(頭流山)이라고도 불리웠던 지리산은 수많은 승경지를 안고 있지만, 그 중 「지리10경」이라고 하여 최상급으로 꼽히는 경관이 있다.

- ① 노고운해(老姑雲海 - 노고당의 운해)
- ② 직전단풍(稭田丹楓 - 피아골의 단풍)
- ③ 반야낙조(般若落照 - 반야봉의 낙조)
- ④ 벽소명월(碧宵明月 - 벽소령의 달)
- ⑤ 불일폭포(佛日瀑布)
- ⑥ 세석(細石)철쭉
- ⑦ 연하선경(烟霞仙境 - 연하봉의 경치)
- ⑧ 천왕일출(天王日出 - 천왕봉의 일출)
- ⑨ 칠선계곡(七仙溪谷)
- ⑩ 섬진청류(蟾津清流 - 섬진강의 푸른 물)

이 중 피아골의 단풍과 세석의 철쭉만 제외하고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부 록

1. OB회원 주소록
2. 재학생 주소록
3. 군입대자 주소록
4. 회 원 동 정



재학생 주소록

성명	학번(기)	학과	주소	전화
김현성	90(34)	금속공학과 3		
최지환	90(34)	기계설계학과 3		
정만철	90(34)	기계설계학과 3		
이현조	92(36)	불어불문학과 4		
오장민	92(36)	유전공학과 2		
신윤자	92(36)	치 의 학 과 4		
정양숙	93(37)	화 학 과 3		
박자파	93(37)	화학교육과 2		
진용훈	94(38)	금속공학과 2		
전옥량	94(38)	불어불문학과 2		
이수연	94(38)	사 학 과 2		
최진영	94(38)	식품공학과 2		
김성석	95(39)	전자공학과 1		
방경환	95(39)	응용식물학과 1		
박아미	95(39)	독일언어문학과 1		
노원기	95(39)	경 제 학 과 1		
함경준	95(39)	자동차공학계열 1		
김현준	95(39)	동물자원학과 1		
이형관	95(39)	체 육 교 육 과 1		
김연정	95(39)	동물자원학과 1		

군입대자 주소록

성 명	학번(기)	주 소	입대일/전역예정월
송 창 석	92(36)		93.11 / 96. 1
문 준 연	92(36)		95.11. 2 / 98. 1
원 정 일	93(37)		94. 8.29 / 96.11
박 근 영	93(37)		94.12.22 / 97. 3
한 창 균	94(38)		95. 6 / 97. 9
송 현 주	94(38)		95. 6 / 97. 9
임 도 균	95(39)		95. 11.2 / 98. 1

재 학 생 동 정

◇ 95년도 재학생 회 장 : 34기 김 현 성 ◇ 96년도 재학생 회 장 : 39기 노 원 기
 총 무 : 34기 최 지 환 총 무 : 38기 천 옥 랑
 장비부장 : 38기 진 용 훈 장비부장 : 36기 오 장 민

☐ 96년도 졸업예정자 : 36기 이 현 조

☐ 정회원 인준 예정자 (39기 총 9명)

김성석 : 전자공학과 임도균 : 환경공학과 방경환 : 응용식물학과
 박아미 : 독일언어문학과 노원기 : 경제학과 함경준 : 자동차공학계열
 김현준 : 동물자원학과 이형관 : 체육교육과 김연정 : 동물자원학과

☐ 95년도 전역자 : 36기 오장민, 37기 박자화

☐ 95년도 입대자 : 38기 한창균, 38기 송현주, 36기 문준연, 39기 임도균

발간에 도움을

김훈봉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김훈봉

전북 정주시 수성동 678

☎ (0681) 537-3011

(주) 남해관광

대표 박향식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69-1

☎ 223-9811

(주) 유일광주영업소

대표 정태영

광주시 서구 쌍촌동 4-7

☎ 373-3508

스페어파트

대표 신한봉

광주시 서구 농성동 626-12

☎ 651-7711

예림칼라

대표 송희범

광주시 서구 쌍촌동 965-4

☎ 371-2251

주신 선배님

까 치 화 원

대 표 이 정 욱
광주시 남구 서2동 65-13
☎ 672-1528

자 모 병 원

원 장 윤 기 현
광주시 동구 계림동 174
☎ 227-0023

상 무 동 물 병 원

원 장 나 중 담
광주시 서구 쌍촌동 956-45
☎ 373-5480

무등기념품상사

대 표 임 우 근
광주시 서구 양2동 73-2
☎ 368-8677

대 룡 산 업

한 민 수
광주시 서구 화정동 743-19
☎ 375-0236



岳 友 (제11집)

발 행 인 : 34기 김현성
 편 집 : 34기 최지환, 38기 진응훈
 발 행 : 1995년 12월
 제 본 : 시온 인쇄/복사
 발 행 처 : 전남대학교 산악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제1학생회관 400호
 ☎ 520-6239



● 사용 S/W : 한글 3.0/DOS & 한글 3.0b/WIN

발
축
간

전 남 대 학 교 O B 산 약 회
전남대학교 OB산악회 서울지부

회 장 : 김 장 영

총 무 : 마 영 기

서울지부회장 : 김 나 연

서울지부총무 : 양 일 승